2020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총괄 요약본

2021. 8.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 례

제1장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Ⅰ.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 3

1.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3
2.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 5
3.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6
4. 경영실적 평가방법 ····· 7
5. 2020년도 준정부기관 전체 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 ····· 10

제2장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요약

Ⅰ. 2020년도 기금관리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47

1. 공무원연금공단 ····· 70
2. 국민연금공단 ····· 76
3. 국민체육진흥공단 ····· 82

4. 근로복지공단 ····· 88
5. 기술보증기금 ····· 94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00
7. 신용보증기금 ····· 106
8. 예금보험공사 ····· 112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18
10. 한국무역보험공사 ····· 124
11. 한국자산관리공사 ····· 130
12. 한국주택금융공사 ····· 136

Ⅱ. 2020년도 위탁집행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45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70
2. 국가철도공단 ····· 175
3. 국립공원공단 ····· 180
4. 국립생태원 ····· 185
5. 국민건강보험공단 ····· 190
6. 국토안전관리원 ····· 196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
8. 도로교통공단 ····· 206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11
10. 우체국금융개발원 ····· 216
11. 우체국물류지원단 ····· 221
12. 축산물품질평가원 ····· 226
13. 한국가스안전공사 ····· 231
14. 한국고용정보원 ····· 236

15. 한국관광공사 ····· 241
16. 한국교통안전공단 ····· 246
17. 한국국제협력단 ····· 251
18. 한국국토정보공사 ····· 257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62
20. 한국농어촌공사 ····· 268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74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79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85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90
25. 한국산업단지공단 ····· 295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00
27. 한국산업인력공단 ····· 305
28. 한국석유관리원 ····· 310
29. 한국소비자원 ····· 315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320
31. 한국에너지공단 ····· 325
32. 한국연구재단 ····· 330
3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335
34. 한국인터넷진흥원 ····· 340
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345
36. 한국장학재단 ····· 351
37. 한국전기안전공사 ····· 356
38. 한국전력거래소 ····· 361

3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67
4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372
41. 한국환경공단 ····· 377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83

Ⅲ. 2020년도 강소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391

1. 국제방송교류재단 ····· 417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423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429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434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439
6. 독립기념관 ····· 445
7. 시청자미디어재단 ····· 451
8. 아시아문화원 ····· 457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463
1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468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474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79
13. 창업진흥원 ····· 484
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490
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496
16. 한국과학창의재단 ····· 502
17. 한국광해관리공단 ····· 508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14

1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520
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526
21. 한국디자인진흥원 ····· 531
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536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542
24. 한국보육진흥원 ····· 547
2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553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559
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564
28. 한국수목원관리원 ····· 570
29. 한국수산자원공단 ····· 576
3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582
31. 한국언론진흥재단 ····· 588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593
3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599
34. 한국임업진흥원 ····· 605
35. 한국재정정보원 ····· 611
3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617
3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622
38. 한국콘텐츠진흥원 ····· 628
3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634
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640
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645

제 1 장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Ⅰ.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1.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본적인 평가방법(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19년 12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였고, 2020년 11월에 이를 수정하였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6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였다.

○ 2021년 3월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각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공기업 경영평가단(37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62명)을 구성하였다.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공모 받은 인력풀을 활용하였으며, 각 평가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 경영평가단을 구성한 이후 합동 워크숍과 기관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 공기업 경영평가단,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는 2021년 3~6월에 평가 대상 기관의 2020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법정기한: 2021년 3월 20일)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 및 집체실사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팀별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

○ 공기업 경영평가단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비계량지표와 주요사업 지표(계량 및 비계량)를 평가하였으며, 평가부문별로 4~5명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공동평가를 실시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외부 전문인력으로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로 평가하였다.

○ 평가 과정에서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경영평가 포털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료 제출, 기관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이 이루어졌다.

〈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

■ 2021년 3월 6일	경영평가단 팀장 회의
■ 2021년 3월 6일	경영평가단 위촉 및 워크숍
■ 2021년 3월 11일~3월 12일	경영평가단 2차 워크숍: 기관설명회
■ 2021년 3월 11일~3월 26일	서면평가 및 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21년 3월 29일~4월 26일	화상 실사
■ 2021년 4월 12일~4월 14일	주요사업 계량평가 대면회의
■ 2021년 4월 30일~5월 5일	중간 평정 결과 검토회의
■ 2021년 4월 30일~5월 10일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 2021년 5월 11일~5월 15일	중간평가보고서 기관 회람 및 1차 이의제기 접수
■ 2021년 5월 25일~5월 27일	2차 이의제기 접수
■ 2021년 6월 1일~6월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소위 2차 이의제기 검토, 최종 평정
■ 2021년 6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7개팀), 주요사업 부문(7개팀)으로 나누어 구성·운영하였다.

○ 평가 대상 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 유형(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총괄반

○ 총괄반은 경영평가단장, 경영관리 비계량 간사, 주요사업(비계량, 계량) 간사로 구성하였다.

○ 총괄반에서는 평가 진행 상황 점검, 평가 유형간 평가 등급 조정 등 평가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평가보고서의 총평을 작성하였다.

나.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

○ 각 평가 유형별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은 총 29명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였으며, 팀별로는 4~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기금관리형은 총 1팀(4명), 위탁집행형은 총 3팀(12명), 강소형은 총 3팀(13명)으로 구성하였다. 전 기관에 걸쳐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업무 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를 팀별로 1명씩 배치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에서는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부문」의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등의 지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을 의무로 하는 10개 기금관리형 기관, 6개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주요사업 부문

○ 각 평가 유형별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사업 부문은 총 30명의 평가위원을 배정하고, 팀별로는 4~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기금관리형은 총 1팀(4명), 위탁집행형은 총 3팀(13명), 강소형은 총 3팀(13명)으로 구성하였다.

○ 전체 95개 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주요사업 부문」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대상기관 유형별 경영평가팀 구성 현황 〉

구분	경영관리비계량	주요사업
단 장	1명	
간 사	2명(경영관리비계량, 주요사업)	
기금관리 (12개 기관)	4명 1팀	4명 1팀
위탁집행 (42개 기관)	12명 3팀(팀당4명)	13명 3팀(팀당4~5명)
강소형기관 (41개 기관)	13명 3팀(팀당4~5명)	13명 3팀(팀당4~5명)

3.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내부 계량평가팀 소속 회계사 6명과 외부 평가위원 25명으로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를 운영하였다.

○ 평가대상 기관은 공기업 2개 유형(공기업1, 공기업2)과 준정부기관 3개 유형(위탁집행, 기금관리, 강소형기관)의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각 평가유형별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3~8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다(공기업 1팀은 3명이 10개 기관을, 공기업2팀은 8명이 26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기금관리팀은 3명이 12개 기관을, 위탁집행팀은 8명이 42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강소형은 8명이 41개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누어 평가, 위원별 평균 3~6개 기관을 평가).

○ 공인회계사와 회계전공 대학교수로 구성하여 1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범주」의 사회적 가치 구현 실적을 확인하고, 업무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포함) 및 총인건비관리 지표를 평가함과 아울러, 국민소통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경영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의 기본 개념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20년도 경영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부문의 이원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 2020년 평가지표 구성 체계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2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주요사업별 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에 대해서는 경영전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단위 평가지표는 평가 항목에 따라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세부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 부문에 대해서는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이라는 세부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사업별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경우, 전년도에는 전체 주요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반면, 올해는 주요사업별로 추진계획 수립, 집행 실적, 성과, 환류 활동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는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한 팀에서 공동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과년도와 달리 코로나19 결측 및 보정 처리 등 계량평가 업무가 과중해진 것을 고려하여 계량평가는 팀별로 계량검토위원을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나. 평가지표 내용 및 평가방법

○ 계량 대 비계량지표 가중치

- 준정부기관의 가중치 합계는 총 100점이며, 계량과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56.5:43.5이다. 이 중 기금관리형의 주요사업에 대한 계량과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24:26, 위탁집행형과 강소형은 24:31로 구성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 경영관리 비계량 부문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분야 지표에서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였고,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에서 조직·인사 일반, 재무예산 운영·성과(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 등의 세부지표를,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서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관리, 노사관계 등의 세부지표를,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혁신노력 및 성과, 국민소통 등의 세부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의 경영실적은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

- 재무제표 및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업무효율, 재무예산 성과 및 총인건비관리 등을 과거 일정 기간 추세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대실적평가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국민소통 지표는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확인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 주요사업 비계량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과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은 지표의 대표성, 지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평가방식, 산식 구성 및 목표치 설정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은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 실적, 성과, 환류 활동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영실적은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 주요사업 계량 부문에 대해서는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를 과거 일정기간 추세치 또는 별도로 설정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식으로는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대실적 등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선도적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에 대해

서는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해 평가·인증되는 실적 및 수준 등을 반영한 글로벌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경영실적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여 기준치 대비 지표 산출 결과가 감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에 따라 해당 지표를 결측 또는 보정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5. 2020년도 준정부기관 전체 기관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

❍ 2020년도 준정부기관 평가단 규모는 총 62명으로 총괄반 3명을 제외하면 총 5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였다. 평가단 구성시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을 팀장으로 선임하였다.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관의 수는 전년 대비 2개 기관이 추가된 총 95개 기관이다. 기금관리형 평가 대상 기관의 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외되어 총 12개 기관이며,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에서 유형이 변경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강소형에서 유형이 변경된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신규로 진입한 총 42개 기관이다. 강소형 평가 대상 기관의 수는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위탁집행형으로 유형이 변경되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2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진입하여 2개 기관이 감소한 총 41개 기관이다.

❍ 평가단 구성 과정에서도 전공, 지역, 성비를 고려하였고, 시민단체 등 공공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단의 객관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평가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시 상피검증을 엄격히 실시하였으며, 한층 강화된 평가단 윤리지침을 적용하였다. 특히, 기관의 평가위원 면담은 사전고지를 통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 평가위원의 기관 이해도를 높여 평가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부문별·팀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표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할당하여 심층,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였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방역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요사업 계량평가는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실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팀별로 기관과의 대면 실사를 진행하되, 평가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엄격한 방역지침 하에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지표와 윤리경영지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안전과 윤리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 다른 지표들에 비해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재난 및 안전과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일탈까지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 및 환경 분야의 경우, 재해 발생 기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 기존 지표 외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이 추가되어 기관의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새롭게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평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적정성의 세부평가에서 PDCA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통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기관의 주요사업 본질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평가는 편람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연관성을 판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실적 조정 요청에 따른 통제 불능성 판단에 있어, 기관간 형평성과 판단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 전문가로 구성한 코로나19 TF를 구성하였고, 평가단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실무반을 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지표에 대한 조정을 위해 코로나19 TF와 평가단 내부 코로나19 실무반간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단은 기관이 요청한 주요사업 계량지표에 대한 실적을 조정하였다.

○ 2020년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특징으로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주요 정책추진 성과의 평가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실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주요 정책추진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고,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였다.

나. 2020년도 기관평가 결과 종합분석

○ 2020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급별 분포

- 기관평가 결과의 등급별 분포는 총 95개 평가 대상 기관 중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A등급 17개, B등급 33개, C등급 30개, D등급 14개, E등급 1개 기관이며, 절대평가(강소형 제외 54개 기관)를 기준으로 하면 A등급 3개, B등급 21개, C등급 17개, D등급 11개, E등급 2개 기관이다.

- 전년과 마찬가지로 종합 등급 외에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등급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상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79개(S등급 1개, A등급 15개, B등급 33개, C등급 30개), 주요사업 부문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총 79개(S등급 1개, A등급 12개, B등급 41개, C등급 25개)로 나타났다.

〈 2020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구분		등급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 미흡)
종합	기금관리·위탁집행형	54개	상대	-	11	18	18	6	1
			절대	-	3	21	17	11	2
	강소형	41개(상대)		-	6	15	12	8	0
종합 합계		95 (100%)	상대	-	17 (17.9%)	33 (34.7%)	30 (31.6%)	14 (14.7%)	1 (1.1%)
		54 (100%)	절대	-	3 (5.6%)	21 (38.9%)	17 (31.5%)	11 (20.4%)	2 (3.7%)
경영관리 부문	기금관리·위탁집행형	54개	상대	-	9	17	21	6	1
			절대	-	2	13	18	16	5
	강소형	41개(상대)		1	6	16	9	9	0
경영관리 부문 합계		95 (100%)	상대	1 (1.1%)	15 (15.8%)	33 (34.7%)	30 (31.6%)	15 (15.8%)	1 (1.1%)
		54 (100%)	절대	-	2 (3.7%)	13 (24.1%)	18 (33.3%)	16 (29.6%)	5 (9.3%)
주요사업 부문	기금관리·위탁집행형	50개	상대	1	6	23	16	7	1
			절대	-	6	24	18	5	1
	강소형	43개(상대)		-	6	18	9	7	1
주요사업 부문 합계		95 (100%)	상대	1 (1.1%)	12 (12.6%)	41 (43.2%)	25 (26.3%)	14 (14.7%)	2 (2.1%)
		54 (100%)	절대	-	6 (11.1%)	24 (44.4%)	18 (33.3%)	5 (9.3%)	1 (1.9%)

- 이 결과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평가의 경우 A등급, C등급, D등급은 각각 2개, 3개, 1개 기관이 늘어난 수치이며, B등급은 4개 기관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7~2020년도 평가 유형별 종합 등급 분포 비교 〉

(단위: 개(%))

기관 유형	연도	기관수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 미흡)
기금관리·위탁집행형	2017	48	8	18	16	3	3
	2018	50	9	17	18	6	-
	2019	50	10	21	12	6	1
	2020	54	11	18	18	6	1
강소형	2017	40	4	14	17	2	3
	2018	43	5	19	13	6	-
	2019	43	5	16	15	7	-
	2020	41	6	15	12	8	-
전 체	2017	88	12 (13.6%)	32 (36.4%)	33 (37.5%)	5 (5.7%)	6 (6.8%)
	2018	93	14 (15.1%)	36 (38.7%)	31 (33.3%)	12 (12.9%)	-
	2019	93	15 (16.1%)	37 (39.8%)	27 (29.0%)	13 (14.0%)	1 (1.1%)
	2020	95	17 (17.9%)	33 (34.7%)	30 (31.6%)	14 (14.7%)	1 (1.1%)

※ 2017~2020년도간 기관평가 결과의 비교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결과를 기입함.

❍ 전체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51개 기관이었으며, 상승한 기관수는 24개, 하락한 기관수는 20개로 나타났다.

- 특징적인 것은 41개의 강소형 기관에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4.4%(10개 기관), 하락한 기관은 14.6%(6개 기관)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많았다.

〈 평가 유형별 전년 대비 상승·하락 기관의 분포 비교 〉

(단위: 개(%))

평가 결과 / 기관 유형	상승	동일	하락	합계
기금관리·위탁집행형	14(25.9%)	26(48.1%)	14(25.9%)	54(100%)
강소형	10(24.4%)	25(61.0%)	6(14.6%)	41(100%)
전 체	24(25.3%)	51(53.7%)	20(21.1%)	95(100%)

※ 신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기입함.

❍ 평가 유형 및 평가 범주별 득점률을 비교하면, 전체 평가 유형의 경영관리에서 계량과 비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각각 90.4점, 63.0점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사업에서 계량과 비계량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각각 94.5점, 64.5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평균은 기금관리·위탁집행형 77.9점, 강소형 74.1점으로 부문별 평균 득점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 평가 유형 및 평가 범주별 득점률 비교 〉

(단위: %)

평가 유형	경영관리			주요사업			전체 (가점 포함)
	계량	비계량	전체	계량	비계량	전체	
기금관리형 (12개)	92.3	64.4	71.9	93.9	66.8	82.1	79.5
위탁집행형 (42개)	88.7	70.0	76.5	95.4	69.2	82.8	77.4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91.5	65.6	72.9	94.3	67.3	82.2	77.9
강소형 (41개)	88.9	59.6	67.5	94.7	60.7	79.8	74.1
전 체 (95개)	90.4	63.0	70.6	94.5	64.5	81.2	76.2

※ 전체 합계는 혁신가점 및 협업가점을 반영한 득점률임.

○ 평가 결과에 따른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간 평균 득점률 차이를 비교하면, 비계량지표에 비해 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은 약 27%p, 강소형 기관은 약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간 득점률 비교 〉

(단위: %)

평가 유형	계량지표 평균 득점률	비계량지표 평균 득점률	총 평균 득점률 (가점 포함)
기금관리형 (12개)	92.744	69.849	79.469
위탁집행형 (42개)	93.492	65.789	77.391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93.326	66.691	77.853
강소형 (41개)	93.137	60.531	74.091
전 체 (95개)	93.244	64.033	76.230

다. 2020년도 기관평가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결과 분석

○ 2020년도 기관평가 경영관리 범주 내 5개 비계량지표('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에 대해서는 모든 지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13개 세부지표가 사용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지표의 내용과 평가 대상 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 '경영전략 및 리더십' 지표는 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등 3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었다.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사회적 가치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는 조직·인사일반, 재무예산 운영·성과 등 2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었다.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는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등 2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었다.

- ‘혁신과 소통’ 지표는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가 세부지표로 포함되었다.

- 2020년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기금관리형 10개, 위탁집행형 6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와 ‘노사관계’ 세부지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 지표별 가중치를 살펴보면, ‘경영전략 및 리더십(6점)’, ‘사회적 가치 구현(15점)’, ‘조직·인사·재무관리(3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5.5점)’, ‘혁신과 소통(3점)’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그 비중을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여가 평가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20년 평가에서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대상 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내 13개 비계량 세부지표(기관에 따라 12개~13개 세부지표 사용)의 평균 득점률(%)을 비교하면, ‘전략기획(65.93)’, ‘경영개선(68.33)’, ‘리더십(70.56)’, ‘일자리 창출(69.26)’,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67.59)’,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62.96), 재난 및 안전관리(65.56)]’,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71.11)’, ‘윤리경영(50.74)’, ‘조직·인사일반(65.37)’, ‘재무예산 운영·성과(75.63)’,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61.48),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65.74)]’, ‘노사관계(67.41)’, ‘혁신노력 및 성과(68.70)’로 나타났다.

○ 2020년 평가 대상 95개 전체 기관의 경영관리 범주 내 12개 비계량 세부지표(16개 기관만 해당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제외)의 평균 득점률을 비교하면, ‘전략기획(63.26)’, ‘경영개선(65.47)’, ‘리더십(67.37)’, ‘일자리 창출(66.74)’,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64.42)’,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62.53), 재난 및 안전관리(63.58)]’,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67.16)’, ‘윤리경영(51.26)’, ‘조직·인사일반(62.42)’,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60.00),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61.58)]', '노사관계(64.00)', '혁신노력 및 성과(64.5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63.03의 평균 득점률을 보였고, 표준편차는 약 5.36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득점률을 기록한 세부지표는 '리더십' 지표였으며,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세부지표는 '윤리경영' 지표로 나타났다. '리더십'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득점률을 기록한 것은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관장의 이해와 실행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윤리경영'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윤리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 다른 지표들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 '전략기획'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5.93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8.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9.76)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3.26, 위탁집행형: 65.24).

- '경영개선'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33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9.1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1.71)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5.47, 위탁집행형: 68.10).

- '리더십'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70.56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7.50)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3.1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7.37, 위탁집행형: 68.57). '리더십' 지표의 경우, 전체 지표 중 유형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소형 기관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자리 창출'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9.26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3.41)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6.74, 위탁집행형: 68.10).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7.59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2.50)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0.24)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4.42, 위탁집행형: 66.19).

- ‘안전 및 환경’ 지표는 ‘환경보전’과 ‘재난 및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환경보전’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2.96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0.8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위탁집행형(60.71)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2.53, 강소형: 61.95).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5.56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0.98)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3.58, 위탁집행형: 63.33).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71.11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1.6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1.95)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7.16, 위탁집행형: 70.95).

- ‘윤리경영’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50.74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54.1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위탁집행형(49.76)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51.26, 강소형: 51.95). 윤리경영 지표가 전체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균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해당 지표를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향후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조직·인사일반’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5.37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6.6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8.54)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2.42, 위탁집행형: 65.00).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경우 16개 대상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75.63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6.00)이 위탁집행형(75.00)보다 다소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과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1.48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6.6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8.05)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0.00, 위탁집행형: 60.00).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5.74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7.50)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6.10)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1.58, 위탁집행형: 65.24).

- ‘노사관계’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7.41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2.50)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9.51)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4.00, 위탁집행형: 65.95).

-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70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59.02)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4.53, 위탁집행형: 67.38).

〈 2020년 경영관리 범주의 평가 유형 및 비계량지표별 득점률 〉

(단위: %)

평가 유형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전체
기금관리형 (12개)	71.667	69.167	69.167	69.015	73.333	70.004
위탁집행형 (42개)	67.302	62.714	65.238	63.593	67.381	64.381

평가 유형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전체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68.272	64.148	66.111	64.798	68.704	65.630
강소형 (41개)	61.545	59.667	58.537	58.049	59.024	59.609
전 체 (95개)	65.368	62.214	62.842	61.885	64.526	63.032

○ 2020년도 경영관리 비계량지표의 득점률을 2019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63.032로 전년도의 63.743보다 조금 낮아졌다. 기금관리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70.004로 전년도의 70.345보다 0.341 하락하였으며, 위탁집행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64.381로 전년도의 65.255보다 0.874 하락하였다. 강소형 기관의 경우에도 2020년도 경영관리 비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59.609로 전년도의 60.446보다 0.837 하락하였다.

○ 전년 대비 등락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강소형을 제외한 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지난 3년간 66% 수준이었고, 강소형 기관의 경우도 약 60% 내외 였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 2018~2020년도 경영관리 범주 비계량지표의 유형별 득점률 변화 〉

(단위: %)

평가 유형	2018	2019	2020	차이 (2020~2019)
기금관리형 (12개)	69.443	70.345	70.004	-0.341%p
위탁집행형 (42개)	65.505	65.255	64.381	-0.874%p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66.529	66.579	65.630	-0.949%p
강소형 (41개)	61.776	60.446	59.609	-0.837%p
전 체 (95개)	64.327	63.743	63.032	-0.711%p

라. 2020년도 경영관리계량 평가 결과 분석

○ 경영관리계량은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재무예산운영·성과, 총인건비관리 그리고 국민소통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2020년도 경영관리 계량의 평가지표의 비중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로 평가되었으며, 공기업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에서 19.5점을, 준정부기관의 경우 위탁집행형은 12.5점, 기금관리형은 17.5점을 차지하여, 2019년의 비중보다 각각 0.5점이 낮아졌다.

○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로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의 수와 하락한 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49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80개이다. 2019년도에는 상승한 기관이 67개였고, 하락한 기관은 57개여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하여 상승기관의 수가 줄어들고, 하락한 기관의 수는 늘어났다. 공기업은 하락기관의 수(25개)가 상승기관의 수(11개)보다 더 많았고, 준정부기관도 하락기관의 수(55개)가 상승기관의 수(38개)보다 더 많았다.

〈 경영관리계량의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 득점률 등락 기관수 현황 〉

평가 유형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		총인건비 관리		국민소통		총 득점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공기업1	6	4	5	4	4	6	0	1	3	7	4	6
공기업2	18	8	10	13	9	14	0	0	2	21	7	19
기금관리	7	5	-	-	8	4	0	1	7	5	6	6
위탁집행	17	24	-	-	-	-	2	1	12	30	18	24
강소형	20	19	-	-	-	1	1	1	4	35	14	25
소 계	68	60	15	17	21	25	3	4	28	98	49	80

※ 2개 기관(강소형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신규로 평가받았음.

○ 지표별로 득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전년도의 92.03점에서 91.72점으로 하락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68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60개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항목의 평균 득점률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95.49점), 일자리 창출(90.24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84.85점) 순이었다.

○ 업무효율의 전 기관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63.59점에서 64.6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15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17개이다.(4개 기관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공기업1 유형에서는 전년도의 66.69점에서 4.38점 상승한 71.07점으로 나타났고, 공기업2 유형에서는 62.21점으로 전년도의 62.39점에서 0.1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준정부기관(기금관리, 위탁집행, 강소형 유형)은 2018년도부터 업무효율 지표가 삭제되어 평가받지 않았다.

○ 재무예산운영·성과의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74.01점에서 72.70점으로 하락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21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25개이다. 유형별 평균 득점률을 살펴보면 공기업1 유형은 76.04점에서 79.85점으로 3.81점 상승하였고, 공기업2 유형은 전년도 65.27점에서 60.62점으로 4.65점 하락하였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계량관리업무비와 부채감축달성도 지표가 2018년도부터 삭제됨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가 있는 일부 기관만 전 기관 평균 득점률에 영향을 주었다.

○ 총인건비관리의 경우 전년도에 “0”점을 받았던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여 만점을 받았다. 2020년도에는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여 “0”점을 받았다.

○ 국민소통의 평균 득점률은 전년도의 87.03점에서 72.53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28개이고 하락한 기관은 98개이다. 국민소통 세부항목의 평균 득점률은 국민평가(85.9점), 경영정보 공시(67.6점) 순이었다.

❍ 2019년도 평가와 비교하여 2020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89.07점에서 87.61점으로 하락하였다. 업무효율 지표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구현, 재무예산운영·성과, 총인건비인상률, 국민소통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득점률이 하락하였다.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득점율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 경영관리계량의 평가유형별 및 지표별 득점률 현황 〉

평가유형 (기관수)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재무예산 운영성과	총인건비 인상률	국민소통	총계
공기업	공기업1 (10개)	88.89 (89.76)	71.07 (66.69)	79.85 (76.04)	90.00 (100.00)	80.89 (84.87)	82.49 (82.98)
	공기업2 (26개)	90.88 (89.62)	62.22 (62.39)	60.62 (65.27)	100.00 (100.00)	68.45 (89.76)	79.54 (80.92)
	공기업 평균 (36개)	90.33 (89.66)	64.67 (63.59)	65.97 (68.26)	97.22 (100.00)	71.91 (88.40)	80.36 (81.49)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2개)	95.37 (96.55)	- (-)	79.41 (78.07)	91.67 (100.00)	88.74 (90.22)	88.74 (90.51)
	위탁집행 (42개)	93.38 (94.61)	- (-)	100.00 (100.00)	97.62 (97.30)	74.75 (85.91)	92.25 (93.89)
	강소형 (41개)	90.18 (90.43)	- (-)	71.06 (72.22)	97.56 (95.35)	66.05 (85.87)	88.90 (90.82)
	준정부기관 평균 (95개)	92.25 (92.95)	- (-)	85.48 (84.36)	96.84 (96.77)	72.76 (86.50)	90.36 (92.00)
전체 (131개)		91.72 (92.03)	64.67 (63.59)	72.70 (74.01)	96.95 (97.67)	72.53 (87.03)	87.61 (89.07)

※ 괄호 속의 득점률은 2019년 득점률임.

마. 2020년도 기관평가 주요사업 평가 결과 분석

○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2019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지표별로 PDCA 관점에서 진행하였으나, 일부 지표체계 개편에 따라 이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였다.

-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비계량 지표 평가방법에 준하였으며,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9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지표는 2019년도 평가와는 달리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별도의 세부지표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지표로 평가하였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2019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였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는 주요사업별로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은 2019년도 평가에서는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분리하여 각각을 세부지표로 평가하였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는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이 설립목적과의 연계성 등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가중치 배분이 적정한지, 산출 및 결과지표로 구성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② 평가방식, 산식 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지,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 전체 지표의 가중치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24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비계량 지표별로는 가중치를 변경하였으며,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지표의 가중치는 2019년도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였고,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의 가중치는 2019년도 14점에서 19점으로 상향하였다.

○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주요사업에서 법령개정, 기능조정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여 평가하였다.

- 법령개정,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의 환경변화가 주요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의 전략목표체계가 주요사업과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 2020년도에는 위탁집행형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각각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기금관리형에서 위탁집행형으로,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강소형에서 위탁집행형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되었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이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강소형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적정성의 세부평가에서 PDCA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통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기관의 주요사업 본질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워크숍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비계량 평가 등급은 전년 대비 개선도와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부여하였다.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PDCA 평가원칙을 바탕으로 PDCA별 가감점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PDCA 과정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실사 과정에서 전 지표에 대해 팀 공동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질문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등급 결정시 팀내 합의를 거친 후에 총괄반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원, 언론 지적사항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리하여 평가위원들이 실사 전에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실사 후의 확인 결과를 평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최종 등급 결정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주요사업 평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와 청렴, 성실업무의무 또는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주요사업 평가시 사회적 가치에의 기여와 혁신성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평가하였다.

- 2019년도 평가시 고려한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수요 창출,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2020년도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해 평가하였다.

○ 2020년 평가 대상 95개 전체 기관의 주요사업 범주 내 2개 비계량 지표의 평균

득점률을 비교하면,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65.158)',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64.277)'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4.461의 평균 득점률을 보였고, 표준편차는 6.492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것은 주요사업 평가시 주요사업과 연관된 직무윤리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를 엄정하게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8.889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1.66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0.244)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5.158, 위탁집행형: 68.095).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의 경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6.881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68.509)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0.847)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95개 기관 전체: 64.277, 강소형: 60.847).

〈 2020년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 유형 및 비계량지표별 득점률 〉

(단위: %)

평가 유형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전체
기금관리형 (12개)	71.667	68.509	69.167
위탁집행형 (42개)	68.095	66.416	66.766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68.889	66.881	67.299
강소형 (41개)	60.244	60.847	60.722
전 체 (95개)	65.158	64.277	64.461

○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득점률을 2019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64.461로 전년도의 65.484보다 조금 낮아졌다. 기금관리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69.167로 전년도의 68.974보다 0.193 상승하였으며, 위탁집행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66.766으로 전년도의 67.793보다 1.027 하락하였다. 강소형 기관의 경우에도 2020년도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60.722로 전년도의 62.442보다 1.720 하락하였다.

○ 전년 대비 등락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강소형을 제외한 기관의 평균 득점률이 지난 3년간 66~68% 수준이었고, 강소형 기관의 경우도 약 60% 내외 였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 2018~2020년도 주요사업 범주 비계량지표의 유형별 득점률 변화 〉

(단위: %)

평가 유형	2018	2019	2020	차이 (2020~2019)
기금관리형 (12개)	68.462	68.974	69.167	0.193%p
위탁집행형 (42개)	66.036	67.793	66.766	-1.027%p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66.667	68.100	67.299	-0.801%p
강소형 (41개)	60.078	62.442	60.722	-1.720%p
전 체 (95개)	63.620	65.484	64.461	-1.023%p

○ 주요사업 계량 평가는 주요사업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사업별로 1~3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 지표 간소화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하여 지표수를 기관당 2~6개로 유지하였고, 필요한 경우 세부지표를 활용하였다.

- 지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입지표(input)가 아닌 성과지표(outcome)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해당 사업의 특성, 기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산출지표(output)로 설정하였다.

○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대실적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표의 과거 5개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목표치를 정하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였고, 평가대상 실적치가 3년 미만이거나 5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치의 일정비율로 목표치를 산정하는 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에서 2×표준편차를 적용하였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 중 큰 값을 기준치로 설정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기준치 설정의 합리화를 유도하였다.

-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과도하게 큰 표준편차 값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상의 표준편차 계산시 극단치(outlier)를 제외하도록 설정하였다.

- 극단치 실적 제외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표준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표준편차의 50% 이하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나, 해당 평가팀이 과거연도의 처리방법, 극단치의 발생원인, 전반적인 지표 실적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 글로벌실적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관의 실적을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의 실적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해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과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하였다.

-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 목표대실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목표를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 달성도로 평가하였다.

○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부여, 글로벌실적비교,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대실적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 2020년도 주요사업 계량평가는 편람에 따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지표에 대한 조정을 위해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단은 기관이 요청한 계량지표에 대한 실적을 조정하였다.

- 결측은 ① 코로나19 발생이 실적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② 기관의 실적 변동 통제가 불가한 경우, ③ 실적이 기준치 대비 2×표준편차 이상 또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지표는 결측 처리하였다. 또한 결측 처리한 지표의 득점은 해당 지표의 직전 연도 득점률과 과거 3개년 득점률 평균 중 작은 값을 적용하여 부여하였다.

- 보정은 ① 코로나19 발생이 실적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② 기관의 실적 변동 통제가 불가한 경우, ③ 실적이 기준치 대비 2×표준편차 미만 또는 20% 미만 감소한 경우, ④ 객관적인 보정계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지표에 대한 실적은 ① 특정기간 제외, ② 특정사업 제외, ③ 보정계수 적용 방식을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 준정부 95개 기관 중 58개(61%)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사업 계량실적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을 요청한 지표수는 117개(전체 지표수 511개 대비 23%)로 확인된다.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에 따라 평가단이 최종 수용한 지표수는 76개로 수용률은 약 65%이며, 수용에 따른 해당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85%(준정부 전체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94%)로 나타났다.

❍ 2020년도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률을 2019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94.463으로 전년도의 95.307보다 조금 낮아졌다. 기금관리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95.376으로 전년도의 95.714보다 0.338 하락하였으며, 위탁집행형의 경우 2020년도 득점률은 93.940으로 전년도의 95.302보다 1.362 하락하였다. 강소형 기관의 경우에도 2020년도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4.732로 전년도의 95.187보다 0.455 하락하였다. 전년대비 득점률이 하락한 데에는 계량지표에 대한 코로나19 보정 요청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등 코로나19 보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8~2020년도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의 유형별 득점률 변화 〉

(단위: %)

평가 유형	2018	2019	2020	차이 (2020~2019)
기금관리형 (12개)	94.260	95.714	95.376	-0.338%p
위탁집행형 (42개)	93.058	95.302	93.940	-1.362%p
기금관리·위탁집행형(54개)	93.370	95.409	94.259	-1.150%p
강소형 (41개)	91.463	95.187	94.732	-0.455%p
전 체 (95개)	92.489	95.307	94.463	-0.844%p

바. 2020년도 기관평가 혁신성장 가점 결과 분석

❍ 2020년도 기관평가 혁신성장 가점 평가는 혁신성장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다음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다.

〈 2020년 혁신성장 가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점
(1)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1점
(2)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4) 혁신성장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5)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	

❍ 2020년 평가 대상 95개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67.895이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69.25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0.8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6.098)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위탁집행형: 68.810). 전반적으로 혁신성장 가점의 득점률이 기관의 비계량 득점률 평균보다 높아 준정부 기관에서의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 혁신성장 가점 평가 득점 현황 〉

평가 유형	2020년
기금관리형 (12개)	70.833
위탁집행형 (42개)	68.810
기금관리· 위탁집행형(54개)	69.259
강소형 (41개)	66.098
전 체 (95개)	67.895

사. 2020년도 기관평가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결과 분석

❍ 2020년도 기관평가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다음 평가항목으로 평가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점
(1)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3점
(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3)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2020년 평가 대상 95개 전체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69.895이며, 강소형을 제외한 54개 기금관리·위탁집행형 기관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72.22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73.333)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높게, 그리고 강소형(66.829)의 평균 득점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위탁집행형: 71.905).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시설과 인력을 공유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에 걸쳐 다양한 기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 득점 현황 〉

평가 유형	2020년
기금관리형 (12개)	73.333
위탁집행형 (42개)	71.905
기금관리· 위탁집행형(54개)	72.222
강소형 (41개)	66.829
전 체 (95개)	69.895

〈 2020년도 기금관리/위탁집행형 등급 분포 : 상대평가 〉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신용보증기금 (1)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B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23)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D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국립생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
E	우체국물류지원단 (1)	한국농어촌공사 (1)	우체국물류지원단 (1)

〈 2020년도 기금관리/위탁집행형 등급 분포 : 절대평가 〉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관광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24)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D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1)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
E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2)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우체국물류지원단 (1)

〈 2020년도 강소형 기관 상대평가 등급 분포 〉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6)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6)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8)

등급	종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2)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
D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8)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7)
E			한국보육진흥원 (1)

〈 2020년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

단장 최 현 선(명지대)

경영관리 비계량 (30명)	**주요사업(비계량/계량) (31명)**

간사	이석환 (국민대)	김창완 (중앙대)
기금관리 (8명)	**권원순 (한국외대)** 전현정 (KCL법무法) 권순원 (숙명여대) 백지건 (대현회계法)	**박광수 (동의대)** 정창수 (경희대) 문성욱 (서강대) 김종승 (금융연수원)
위탁집행 (25명)	**최태현 (서울대)** 소순창 (건국대) 금재덕 (시립대) 이자연 (중앙인사法)	**박선규 (성균관대)** 김동률 (서강대) 박정윤 (명지대) 김성렬 (서울대) 홍순만 (연세대)
	이병하 (시립대) 황성원 (군산대) 김상노 (한길회계法) 박지웅 (율촌법무法)	**홍승진 (광장법무法)** 심재승 (청주대) 이인원 (시립대) 유경한 (전북대)
	박수철 (울산대) 이수진 (전남대) 고길곤 (서울대) 김철회 (한남대)	**서경란 (IBK경제연)** 박성민 (성균관대) 성용준 (고려대) 이창준 (한국외대)
강소형 (26명)	**최대식 (선진노무法)** 오문성 (한양여대) 윤웅중 (정세법무法) 장영순 (명지대)	**이덕주 (서울대)** 백승철 (안동대) 최해연 (공주대) 황순주 (KDI)
	윤영진 (상명대) 최 민 (노동안전보건연) 서은숙 (상명대) 이민호 (한국행정연)	**구철회 (청주대)** 박승준 (산업기술대) 이희복 (상지대) 이동규 (동아대)
	전태준 (서원대) 이능복 (하나감평法) 이관영 (중앙대) 김준현 (부경대) 안병선 (에이블세무)	**김 철 (사회공공연)** 김경아 (전북대) 김영재 (명지대) 정 진 (경동대) 배귀희 (숭실대)

제 2 장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요약

I 기금관리형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체육진흥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기술보증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 신용보증기금
8. 예금보험공사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한국무역보험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12. 한국주택금융공사

Ⅰ. 2020년도 기금관리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대다수 기관은 설립목적을 재해석하거나 미래상에 기반하여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외부환경의 변화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SWOT분석 등을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한 전사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대다수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가치체계에 반영하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핵심가치를 도출한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매년 비전 및 핵심가치를 재해석하고 내재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은 SWOT분석에 있어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등의 외부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전략과제의 도출에 필요한 내부역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석이 다소 아쉬운 점은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관의 미래상과 주요사업,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사회적가치 지수를 개발하여 경영목표에 반영한 경우도 존재한다. 대다수 기관은 경영목표와 연계한 전략목표, 성과지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을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목표와 전략목표를 구분하지 않고 있거나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각각 설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을 중장기경영전략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등에 반영하여 롤링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 경영전략의 롤링에 따른 경영목표의 도전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전략체계의 실행을 위해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의 설정, 전략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실행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세부실행 과제별 KPI의 명확화와 도전적 목표설정 등의 보완과 함께 PDCA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하고 재난대책본부 등과 함께 비상경제상황실 혹은 비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경영개선

○ 대다수 기관은 경영환경 분석, 대내외 의견수렴 결과, 미래 트렌드 분석 등을 토대로, 기관의 미래상을 수립하거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기존 사업이나 과제를 분석하여 기능조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의 성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해외 유사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용하거나, 외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력, 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자원배분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중장기 자원배분계획의 연도별 로드맵의 롤링이 다소 미흡하고 전년도에 이미 선정된 신규사업의 지속성과 새로 선정된 신규사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기관의 미래방향과 기능조정에 부합하도록 미래과제 및 신규과제의 선정과 추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내부 역량진단 등과 함께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기관의 여건을 반영한 경영개선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개선과제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 등을 반영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언택트 환경하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대부분 업무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업무처리 및 자료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고 AI와 RPA등을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도입하여 업무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업무자동화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및 피드백을 통해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언택트 환경과 디지털 격차로 인한 업무와 대국민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리더십

○ 대다수 기관은 경영환경과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기관장 계약과제를 합리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여 기관장 재임기간 중 경영 계약상의 3년치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기관에서 계약과제들은 경영목표를 반영하거나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분야의 과제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계약과제의 과제별 우선순위와 과제 수에 있어서 기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계약과제의 성과지표는 상당수의 비계량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어 비계량 성과지표의 한계로 인한 성과측정의 보완과 성과지표의 도전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기관은 기관장 계약과제의 추진과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계약과제와 성과지표를 중장기경영전략의 비전과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의 롤링을 통한 도전성의 제고와 함께 경영목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기관장은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의 설정과 공유를 위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이메일, 부서별 간담회, 지사현장방문 등을 통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에 대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다. 대다수 기관장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에 따른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는 현장중심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인 점 또한 긍정적이다.

○ 대다수 기관은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강화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제안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등의 환경에 대응하여 비대면 이사회와 전자의결시스템 등을 통한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사회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률, 경영제언 건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이사회의 역량을 제고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에서는 비상임이사의 의미 있는 경영견제기능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일자리 창출

○ 기관들은 정규직 증원 노력, 수시증원 인원 확대, 예비합격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현원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 결과 많은 기관에서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일부 기관은 업무간소화와 업무자동화(RPA)를 확대하여 연간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다만 1인당 연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 외 근무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눔이나 탄력 정원제 도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정부권장비율에 미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기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사전심사를 이행하였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직무기반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직원에 비해 임금인상률을 상향 적용하고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수의 기관이 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업무 내용을 명시하고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계약서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였다. 다만 자회사의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회사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이 고용창출력과 고용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 4차 산업 분야, 혁신

성장 창업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을 하는 등 핵심사업 및 조달·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관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살려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선제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창업 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참여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기관들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을 발굴하여 채용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였으며, 심사위원 자격요건,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내외부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수 기관이 AI평가를 통해 표절내용이나 블라인드 위반요소를 제거하고, 기관의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전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점수 공개 확대 및 커트라인 공개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자에게 역량분석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구직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각 대상별로 채용목표제 운영, 별도전형, 가점부여 등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청년·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 장애인 직원의 직무만족도 진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직원을 자택 인근 희망지사에 우선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 근무친화적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보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에서 여성 직원 신규채용 비율은 상승하고 있고 여성관리자의 비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기관들은 핵심보직 여성배치 확대, 다양한 역량개발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여전히 낮으므로 목표 자체의 점검과 함께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여성임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므로 적합직무 개발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고졸자가 입사하여 일정기간 경과 시 대졸직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률을 지속해서 적용하여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등 고졸자, 무기계약직 등의 적절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고졸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직으로 전직 평가 기회를 부여하거나 무기계약직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승급제도 등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안전 및 환경

○ 기관들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경영관리 분야에서 환경보전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LED조명 교체,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시설 확충, 친환경 자동차 구매 등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다수 기관이 ESG채권, SRI펀드 등 사회적책임투자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분야에 대한 우대보증도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을 통한 중장기적 추진체계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국민과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위험점검 및 대응훈련에 임하는 등 매뉴얼에 의한 안전관리 노력을 하는 점이 인정된다.

다수 기관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내지 KOSHA-MS)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로 획득하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대다수 기관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망사고 가능성이 큰 고소작업, 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의 의견을 근로환경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안전근로협의체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안전근로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해서 평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전담 대응조직을 신설하고, 방역지침 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감염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업무연속성계획 등을 수립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신속히 재택근무환경을 구축하였는데, 재택근무에 필요한 관리·기술·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원격근무시스템의 활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보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대다수 기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상생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태도에서 기관별로 편차가 있고 체계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기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성원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기관의 특성과 역량을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고통 나눔, 업(業) 중심의 지역공헌이라는 자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한 일부 기관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니즈를 수집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협력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성이나 체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기관들은 선지급률을 확대하고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하고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정하는 등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계약 및 관리 부문 점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하도급지킴이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공사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하도급지킴이 활용건수가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그 도입을 추진하여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품·용역·발주·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일부 기관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전문가협의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기관에 맞는 동반성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 소통채널과 성과공유의 필요성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니즈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한 편이므로 그와 관련된 보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관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계약 발굴·운영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윤리경영

○ 기관들은 윤리경영 관련 조직과 지침을 갖추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을 구축하고 윤리·준법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비윤리적 행위 신고채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익명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였다. 윤리경영에서는 실행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일부 기관은 청렴도 하락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내부청렴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내부직원이 바라보는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조직·인사관리나 수평적 소통 강화방안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업무별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부패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관심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 다만 인사업무나 조직관리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므로,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 확산대응 및 감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방식을 혁신하여 비대면 감사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였다. 다수 기관이 3중 방어선을 통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내부통제 취약지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단계로 부서별 자율통제, 2단계로 총괄부서 모니터링, 3단계로 감사실 내부통제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들은 적극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구비하고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변보호 강화,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수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구제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윤리경영 전반과 비교해 인권경영에 관한 관심이나 체계는 미비하다고 보이므로 보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직원의 일탈행위나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대다수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및 권고를 수용해 적극적 개선을 모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의 선별이 기관별로 자의적이며 개선의 내용과 수준 또한 편차가 존재한다.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지표별 개선 요구사항을 항목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이행

수준을 비율로 계량화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 대다수 기관이 조직·인사 운용계획 설계와 실행에 있어 PDCA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의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 사업수행 직전년도 말 또는 당해연도 초에 전략목표(또는 사업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운용의 계획 및 자원배분 방향이 정해져야 하지만 대다수 기관에서의 전략계획이 사업수행 마무리 시점인 3/4분기에 확정되었다. 향후 조직인력 운용의 계획 설계와 실행이 PDCA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변화가 생기는 경우 기존 전략목표 및 인력운용 계획이 수정·변경되고 변경 사유와 변경 후 전략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이 체계적으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주어진 목표(코로나19 대응 및 한국형 뉴딜에 따른 사업 전환 등)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기관별로 위기와 위험 또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사조직 운용 매뉴얼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역량개발 또한 기관의 경영전략 및 조직인력 운용 방향과 연계되어 필요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기초해 교육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에서 훈련 수요조사와 만족도 평가에 근거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용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석(조직, 인력, 과업 차원)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 분석은 기관의 추구하는 전략목표와 인력운용의 방향에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기관의 전략 및 조직인력 운용 방향과 연계해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대상자가 선정되고, 훈련 및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10) 재무예산 운영·성과

○ 기관들은 내·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재무예산 운영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기관이 금융지원, 투자예산 등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재무계획 및 재무예산 목표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 기관은 안정성, 건전성,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의 주요 재무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일부 기관들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운영하였는데,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관리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의 위험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관리하였다.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를 통하여 예상손실금액을 검토하고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채 및 유동성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자금수지 예측 및 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하는 등 노력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부실률 내지 사고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신용위험 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세밀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대다수 기관에서 직무형 임금체계(이하 직무급)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별로 직무급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직무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직무기술서 등을 설계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임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직무평가단을 설치해 직무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의 조직 내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 다수 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도입의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전체 평가대상 12개 기관 가운데 일반직(비간부직)에까지 직무급을 전면 확대한 기관은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 기관은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기술서 등을 설계했으나 도입 및 확대 수준은 미미한 상황이다. 직무급 도입이 비교적 빠른 기관도 전면 도입의 사례는 없으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무급적 요소를 일부 부가하는 형태의 보조적 체계가 지배적이다.

○ 직무급 도입 및 확산의 제도적 장애는 노사간 이견이다. 직무급 도입의 수준이 비교적 빠른 기관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급 전환에 필요한 연구, 개발 및 적용 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졌지만,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딘 기관의 경우 직무급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간 합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선 및 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를 목적으로 형식적 수준에서 직무급 전환을 시도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임금체계 변경이 인사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고려해 인사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직무급으로 전환되면서 성과관리 체계, 평가방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급의 설계, 도입 및 확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직무급을 매개로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그동안 보수복리후생 제도 및 수준에 대한 규율의 효과로 대다수 기관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예산제약의 조건에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비금전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제도 운용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창의적 복리후생제도를 개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관들의 노력으로 복리후생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의 경우 보수복리후생비의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영평가를 위한 본보고서의 내용과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내용간 불일치가 많았고 심지어 알리오 공시데이터와 보고서상 데이터가 상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향후 공시데이터와 보고서상 데이터가 일치되도록 기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복리후생제도 적용에 있어 대다수 기관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많은 기관에서 상당히 격차가 해소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의 경우 여전히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식상 복리후생 프로그램 이용의 고용 형태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1인당 복리후생비 격차가 존재하는 기관이 다수 있어 원인 분석과 격차 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임금피크제도의 경우 대다수 기관에서 가이드라인 권고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별도직무로 구분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임피제’ 대상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배정하는 기관이 다수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 기존 직무를 유지하되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임금피크제가 호봉제(연공형 임금체계)가 갖는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임금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운용되는 한시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하다. 만일 전면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는 필요 없는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무급제로의 전환과 임금피크제 간 연계를 통해 향후 임금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노사관계

○ 대다수 기관이 노사관계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등을 체계화해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사관계의 체계는 전략목표, 실행과제, 성과지표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과피드백의 프로세스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각각 전략적 단위, 기능적 단위, 작업장 단위의 역할들과 연계해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즉, 기관의 전략적 의사결정

단위에서는 노사관계의 전략적 목표를 설계하고, 담당 부서는 이러한 목표의 실행을 위한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전략을 설정해야 하며. 일터 현장에서는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합의의 적용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해 전략 설계 과정에 피드백하는 환류 구조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소수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관에 부재한다. 노사관계 또한 이상에서 설명한 전략적 체계도에 따라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모든 기관이 노사공동의 전문역량 및 노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필요역량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노동법 및 노사관계 기초 및 실무관련 지식이 중심이다. 대부분 기관에서 노사관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조직의 노사관계 전략 및 로드맵 등과 연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교육 대상자 또한 전략적 필요에 따른 선정으로 보기 어렵다. 적합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경영 및 노사관계 전략과 연계한 '필요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인력, 과업 차원의 교육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대상과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의 노무역량 교육대상이 기관의 관리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조합 운영진도 교육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이 노사, 노노간 갈등관리를 위해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적극적 성과로 인정된다. 많은 기관이 효율적 갈등 예방체계 구축 및 시스템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슈분석, 갈등예측, 대응, 복구 등의 시나리오별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별 위기대응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노사협의회의 기능 강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혁신노력 및 성과

○ 기관들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3대 기본방향과 17대 혁신과제를 기반으로 기존 혁신과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혁신계획의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이월된 과제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대내외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과 점검 및 공유 등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장 직속의 과제해결형 혁신조직도 신설되었으며,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되는 등 혁신공감대 형성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된다.

○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소통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는데,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기관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구축하여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신규로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들은 주로 정부의 3대 혁신방향을 반영하여 혁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빅데이터 및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와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혁신의 개선효과를 기존 고유사업의 성과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혁신과제들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혁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성과로 내세운 경우도 있어서 향후 혁신과제의 범위, 목표 및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혁신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2020년도 경영관리 계량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88.736점으로 전년도의 90.508점

보다 1.77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경영관리 계량 지표의 최고 득점 기관과 최저득점 기관의 득점률 차이가 22.845점으로 전년도 9.014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부문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95.365점으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98.5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은 모든 평가 대상기관(10개)이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는 76.082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74.932점에 비해 1.15점 상승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전년도에는 모든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통 지표는 평균 88.739점을 기록하였다. 기관별 득점률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97.8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이 71.467점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2020년도 경영관리 계량 지표의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득점률이 90점 이상인 기관은 6개로 평균 92.577점을 기록하였으며, 득점률이 90점 미만인 기관은 6개로 평균 84.896점을 기록하여 상하위 그룹 간의 평균 득점 차이는 전년도 3.689점보다 증가한 7.681로 나타났다.

(2) 지표별

○ 일자리 창출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4.445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100점)과 신용보증기금(99.667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99.5점)이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4개로, 기술보증기금(94.267점), 한국무역보험공사(92점), 근로복지공단(90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71.133점)이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88.6점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만점을 득하였으며,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4개로 나타났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80점), 예금보험공사(80점), 한국무역보험공사(70.0점), 근로복지공단(65.7점)이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매우 높은 평균 득점률(98.542점)을 기록하였다. 9개 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이 만점을 득하였으며, 평균 득점률보다 낮은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2개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98.4점)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84.7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중장기 재무관리이행계획 지표 대상기관은 10개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에도 10개 기관이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득하였다.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76.082점으로 전년도 74.932점에 비하여 1.15점 상승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0점대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60점대를 기록한 기관은 1개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는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기록하였다.

○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는 7개 기관(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낮은 60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 국민평가 지표는 86.217점의 평균 득점률을 보였다. 기술보증기금(94.4점), 신용보증기금(93.4점), 한국무역보험공사(93.4점), 국민연금공단(93.2점)이 90점대 이상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장 낮은 77.2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2개 기관이 속한 기금관리형은 크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개의 기관이 포함된 공적연금 관리공단과, 기금을 운영하며 정부 위탁형 사업을 수행하는 나머지 9개 기관이 포함된 사업성 기금기관으로 분류된다. 사업성 기금기관들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금융성 기금기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일반 사업성 기금기관으로 세분될 수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에 추가된 장애인지원사업에 더해 2020년에는 국민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목표로 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4개의 새로운 주요사업을 추진한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기존의 주요사업을 유지하되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설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가중치는 19점으로 전년의 14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비중을 축소(10점 → 5점)한 결과이다. 2020년도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관들의 상당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및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상황 변화를 적절하게 사업편성에 반영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은 기관들의 많은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 및 경륜·경정 등의 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상 수행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동제한, 대면접촉 금지 등으로 고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상당수 사업들이 지장을 받았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가계 및 기업에 유례 없는 자금지원정책을 실행하면서 정부자금지원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기존 업무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자금지원 업무 수행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관들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요사업 전략과 성과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2020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보통 5~7개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가장 많은 기관은 9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가중치는 전년의 경우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에 각각 2점, 8점을 배분하여 총 10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올해는 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구분하지 않고 총 5점으로 크게 축소하였다.

○ 2020년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기관이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계량지표 대부분이 사업 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성을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표설정의 도전성 측면에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택하고 달성난이도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한 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중장기목표부여

및 목표대실적의 목표설정방식을 선택하고 기관의 의지나 정책결정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제 계량실적은 목표의 99.9%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이 주된 목표설정방식일 뿐 아니라 상당수의 지표가 투입(input)지표 성격이라는 점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최근 기관들의 계량지표 개선 추세를 보면, 많은 경우 목표설정방식을 목표부여(편차)에서 목표대실적이나 목표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어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상당수의 계량지표는 투입(input)지표의 성격이 강해 기관의 의지나 정책결정에 의해 성과가 결정됨으로써 높은 목표달성률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기관들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지표 개발을 통해 계량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도전적인 계량목표설정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 기관의 성과지표는 실현된 성과가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며,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에 따른 목표들이 이미 달성되어 보다 도전적인,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한 지표와 지표의 정의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더 적합한 측정산식이 필요한 지표도 있었다. 향후 이들 지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 합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2020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보통 5~7개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기관에 따라 적게는 4개, 많게는 9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기금관리형 기관 전체로는 12개 기관이 37개 사업에 대해 총 7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방식으로는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39개)과 목표대실적 방식(21개)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목표부여 방식(11개)

또는 중장기목표부여 방식(4개)을 활용하였다. 기관별 주요사업의 계량 가중치는 26점으로 동일하며, 기관들은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계량 가중치를 사업별로 조정하였다.

○ 기금관리 유형에 속한 12개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은 전년 대비 0.339%p 하락한 95.376%를 기록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4.988%p 상승하였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의 득점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의 득점률은 전년 대비 각각 5.327%p, 4.219%p 하락하였다.

○ 기금관리 유형의 경우, 2019년 평가에서는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3개 기관, 90%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8개 기관이었으며, 2020년 평가에서도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2개, 90%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9개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기금관리형 기관의 대다수(약 92%)가 90%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여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계량지표 득점률의 표준편차는 3.658%로 기관간 성과 수준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계량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금관리 유형의 득점률 분포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이 100%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이 9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8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80% 미만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없었다.

○ 기금관리형 12개 기관 중 11개(약 92%)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사업 계량실적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을 요청한 지표수는 27개(전체 지표수 75개 대비 36%)로 확인된다.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에 따라 평가단이 최종 수용한 지표수는 15개로 수용률은 약 56%이며, 수용에 따른 해당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90%(준정부기관 전체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94%)로 나타났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기금관리형 기관들은 혁신성장 수요창출, 혁신기술 융합 등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성 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동형암호 기술에 상용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초고속 통신망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ICT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간 협업을 주선하여 스마트 스포츠 체험관 조성 사업을 수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마트용 인공팔 전동 카트와 가상현실 휠체어 훈련시스템과 같은 재활보조기구를 국산화하였으며, 기관에서 보유한 재활보조기구 관련 특허 5건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유재산의 안전 점검, 소송 토지 현황조사, 도시계획시설 인접 재산 조사 등 드론 기술 활용 가능 분야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IT 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불공정 거래 조항 리스트'를 기관 내부 계약서에 반영하는 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계약서를 개선하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서 불공정 조항을 제거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주시 개선된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데이터 공개를 통해 민간 스타트업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타 금융기관간 연계 및 표준화 방향을 공유하는 등 관련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공공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금관리형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관품질관리', 'DB품질관리' 및 '데이터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2020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기관들은 향후 기관

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위 '포커스 사용자 그룹(베타 테스터 등)'을 설정하여 이들 그룹의 이용 패턴을 선도적으로 분석하고 이용 절차를 공공데이터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 기관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통 분담 활동을 수행하였다. 급여 반납 및 기부,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고객에 대한 보험료, 임대료 등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하였다. 기관들은 코로나19 문제해결의 시작인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부적인 방역활동을 넘어서 정부 및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을 지원하였다. 다수의 기관이 감염전담병원을 운영하거나 임시검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였으며, 의료 및 방역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 및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수행하였는데, 급증한 업무와 대면심사 제약에 대응하여 비대면 평가시스템 신속 도입, 전결권 조정 및 본사 인력의 현장 파견 등을 통하여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대다수 기관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 및 방안에 따라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별도의 뉴딜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4대 추진방향으로 하여 고유업무와 접목하여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과제를 선정하여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다수 기관이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과 그린 인프라 확대를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예산 및 인력 강화,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및 분기별 실적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역할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과 과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공무원연금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8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727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2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연금사업				
	(1) 가입자관리 적정성			10	9.426
	(2) 연금수급권리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노력도			10	9.847
	(3) 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C		
	2. 재해보상 사업				
	(1) 재해보상급여지급 적정성			3	3.000
	(2) 재해보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3. 복지 사업				
	(1) 복지사업 운영성과			3	2.990
	(2) 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미션과 정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사 경영전략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치체계를 수립하고 PDCA 기반 전략 실행체계를 운영하여 금융자산 운용수익 실현, 장해자녀 유족연금 승계 등 연금 사각지대해소, 쌍방향 실시간 데이터 공유에 의한 징수 업무프로세스 혁신 등의 성과를 달성한 노력은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업무프로세스 혁신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을 수립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3대 경영개선 방향 및 9대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과 함께 인사·교육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 등 포용적 인사를 구현하고 디지털 업무혁신 등의 노력을 통해 내부가치체계 공유도가 전년 대비 1.7점 증가한 95.6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사회 운영 만족도, 비상임 이사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의 이사회 운영 설문조사 및 직무활동 자체평가 피드백을 실시하여 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미래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과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연계하여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정현원차 해소나 시간외 근무 축소를 위한 보완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강화하고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강약점 진단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피드백을 확대한 노력이 인정되나, 여성관리자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과제로 환경·육아·교육·문화를 발굴·추진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결과분석과 자체 점검을 통해 윤리경영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여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친환경 기금투자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및 복지시설에 친환경 인프라를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안전관리 조직. 규정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 한바퀴 캠페인, 안전문화 마일리지 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금융자산별 차별화된 운영전략으로 2년 연속 최대 중장기 투자자산 수익률을 실현하고, 최적의 자금수지 관리로 단기자금 운용규모를 최소화하여 기금운용수익 제고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중장기 전략목표와 조직인력 운영방향간 인과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2년부터 간부직에 대해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간부직의 직무급의 비중을 차차 높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간부직(3급이하)에서는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 전 직종으로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별 소통 채널 활성화 노력은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예산제약 하에서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유복지사업을 추진한 점과 고객민원(VOC 등)분석을 통한 맞춤형 민원정보 사전제공 플랫폼 구축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예방적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은퇴공무원과 함께 여러 시설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역할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의 한국판 뉴딜 계획 수립과 과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년도 95.461점 대비 4.398점 하락한 91.063점을 기록하였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9.43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목표 달성으로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74.53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평점 80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 점수는 85.14점으로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81.733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년 연금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서비스 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연금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성과평가의 가중치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는 연금사업을 가입자관리 사업과 급여관리 사업으로 나누어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연금사업에서는 연금자동조절장치와 연금 적정지급액 기준 마련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연금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한 것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다. 향후 연금제도의 개선과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해보상사업에서는 재해통계체계 개선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재해보상 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인사혁신처로부터 명시적 업무 위탁이 없어 본격적인 예산 수령 및 사업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복지사업은 은퇴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직경력을 활용한 전문봉사 활동률을 중장기적으로 '24년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복지사업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계량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목표설정의 도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가입자관리 적정성과 연금수급권리 확인 및 고객권리찾기 등의 지표의 경우 '20년 실적이 임계치에 달하고 있어 '21년도에는 지표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공무원연금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97.2%를 기록하였다. 2019년 100% 목표달성률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한 수치이다. 연금사업의 '가입자관리 적정성' 지표와 '연금수급권 확인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노력도' 지표에서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인데, 기관의 업무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부여(편차)방식에 따라 최고 목표 수준이 상승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재해보상사업의 '재해보상급여 지급 적정성' 지표 및 복지서비스사업의 '복지사업운영성과' 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99.7%)를 거두었다. 전체 계량지표 가중치 26점 중 20점이 연금사업에 집중된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국민연금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913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6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사업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성과			4	4.000
	(2)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			4	3.999
	(3) 노후준비 심층서비스 연계 강화			2	1.847
	(4) 가입자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연금급여관리사업				
	(1) 연금지급의 정확성 향상 성과			3	2.843
	(2)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1	0.991
	(3) 급여 적기지급 성과			6	6.000
	(4) 연금급여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장애인지원사업				
	(1) 장애인등록심사 신속성 제고			2	1.829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속성 제고			2	2.000
	(3) 장애인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4.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				
	(1)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			2	2.000
	(2) 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고도화, 기금인프라 확충에 ICT 활용 관련 내외부 이슈를 SWOT 분석을 통해 재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전략목표 '미래 성장기반 강화'와 전략과제 '데이터 개방·활용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추진'에 반영하는 개선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상안전경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한시적 납부 예외 조치 등을 비롯한 연간 6,967명의 방역체계 지원 인력 파견, 생활치료센터 4개소, 임시생활시설 2개소 운영 등의 성과를 창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대내외 의견수렴 및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본업의 역할 강화와 미래에 대응하는 혁신으로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강화', 'NPS 뉴딜' 가속화, 경영체질 개선의 3대 방향을 설정하고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하였다. 다만,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실행력 강화 및 이행관리가 되도록 신규과제를 선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추가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비정형 근로자 가입 확대·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투자 활성화로 장기·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추진하였으며, 조직문화지수 부진 항목별 보완으로 인사·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상호역량평가·보직관리제를 도입하여 인사운영 만족도에서 86.8점을 달성하였으며, 전 직원 참여 핵심가치 재설정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열린 조직문화 조성·일하는 방식 및 공간혁신 추진하여 핵심가치 실현역량의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은 종합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수립과 함께 경영평가 경영개선 지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포용적 일자리, 사회통합 일자리, 국민체감 일자리, 혁신적 일자리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일자리 성과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일자리창출 노력을 본부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되며, 사회형평적 채용 및 여성임원 비율과 관련한 우수한 실적이 인정된다. 기관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니즈를 수집하고 기관에 맞는 동반성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사람 중심의 종합적 'NPS 쇄신대책'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성원의 일탈행위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ESG 투자 확대, 수탁자책임활동 강화 등 업을 통한 환경 보전 역할을 강화하였다. 안전경영을 시스템화하고 내재화하는 노력으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기관의 전략 목표 및 조직운영 방향(국민중심 조직운영, 미래지향 생산적 조직운영,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이 PDCA 원칙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방향 또한 외부환경, 내부전략 등과 연계해 논리적 체계화가 요구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기관의 전략목표 및 인력운용 방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무기계약직 임금의 인상을 통해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관은 국민의견과 핵심역량(국민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및 전국단위 국민접점)과의 연계성 평가를 통하여 중점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였는데, 동형암호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선으로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점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미래세대의 연금소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미래세대와 소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정책 수행자원 부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역 인력·시설 적극 지원하였다. 공단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입국자를 모니터링하고 출입국 자료 등 97종의 데이터를 방역 당국에 제공하는 등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에 기여한 점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92.100점 대비 17.682점 하락한 74.418점의 매우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90점을 획득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만점을 받았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78.26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75.92점 대비 득점률이 증가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2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7.73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도와 다르게 가입자관리사업, 연금급여관리사업 및 장애인지원사업에 국민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추가하여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민안전사고 감소 노력은 기관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사업으로서 기관의 본질적 설립목적과는 동떨어져 있어 '21년부터는 주요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가입자관리사업에서는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격상실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가입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나아간 가입자 서비스를 마련했다. 그러나, '20년 신규도입된 노후준비 심층서비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금급여관리사업에서는 데이터 활용 노력 증가 및 타 기관들과 디지털화 협력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초연금 대상자의 개인 정보 관리에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지원사업에서는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도입을 통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장애인 10만여명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기관의 우수한 성과로 인정되나, 장애인정 확대, 장애인 권익보호, 부정수급 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안전사고 감소 노력 사업에서는 KOSHA-MS 우선 인증 등을 통해 공단의 자체사옥 및 휴양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계량지표의 목표설정 도전성은 세부지표별로

상이하다고 평가되는데, 연금급여사업 등에서는 사업성과를 보다 잘 측정하고 목표설정의 도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 개발에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연금공단은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9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98.1%를 기록하였다. 2019년 96.5% 목표달성률에 비해 1.6%p 증가한 수치이다. 가입자관리사업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성과' 지표 및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 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99.9%)를 거두었으나, 2020년 신규 도입된 '노후준비 심층서비스 연계 강화' 지표는 결측으로 처리되었다. 연금사업의 경우 '급여 적기지급 성과' 지표는 100% 목표를 달성한데 반해, '연금지급의 정확성 향상 성과'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94.8%, 99.1%를 기록하였다. 장애인지원사업의 '장애인등록심사 신속성 제고' 지표는 91.5%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속성 제고' 지표와 '국민안전 사고 감소 노력' 지표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의 경우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최고목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	3	2.13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541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344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38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체육진흥사업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8	7.486
	(2) 국민체력관리 확대			4	3.617
	(3) 체육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1) 경륜·경정사업 건전성 제고			6	5.271
	(2)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2	2.000
	(3)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건전성 제고			3	2.798
	(4) 체육기금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스포츠산업육성사업				
	(1) 스포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1.809
	(2) 스포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	1.000
	(3) 스포츠산업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사회적 가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전년도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영전략을 롤링하고 신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전략방향을 재설정하고 전략과제를 개선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스포츠산업 지원 경영목표에 지원기업 성장률 목표를 추가하고 '코로나19 환경 국민안심 체육환경 조성', '코로나19 피해 스포츠 기업 위기극복 지원' 과제를 포함한 12대 전략과제로 전면 개선한 노력과 함께 4대 경영목표의 목표치를 추세치와 정부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2030 경영목표를 재설정한 개선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영목표와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의 실행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실행하여 피해기업 긴급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피해기업 통합지원을 위해 '코로나 기업지원 TF'를 설치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경륜·경정 총괄본부를 기금조성 총괄본부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직 통폐합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배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1,601억 원 예산 긴급 확보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지원액 2,197억 원을 달성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내부역량, GAP 분석을 바탕으로 체육진흥·스포츠산업 강화와 KSPO뉴딜 이행 및 온라인 신시장 창출을 기능조정 및 신규 사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 8개 세부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점은 인정되나, 경륜·경정·투표권 사업 추진조직 일원화 및 통폐합과 경륜·경정 영업파트, 지점 등 지원인력 감축과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TF 등 5개 TF의 신설 등 체육진흥·스포츠산업으로의 조직·인력 전환배치는 경영개선을 위한 기능조정과 신규 사업의 실행과제의 실행 결과인지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과 이의 실행으로 창출된 성과인지 차별성이 없으므로 향후 기관은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과 연계된 신규과제의 실행 성과를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행 성과와 구별하여 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기능조정과 신규 과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일자리와 매출액이 급감하고 경륜·경정 휴장, 스포츠토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내부 위기 상황에서 스포츠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여성임원비율 33.3%를 달성하였으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이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올림픽공원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스포츠 지역기업을 무상 입주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체험을 토대로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여 제로에너지 체육센터 65개소 신설, 노후 공공 체육시설 98개소 그린리모델링 등 핵심사업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안전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全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ISO-45001)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륜·경정·올림픽공원 등 수익사업 매출감소 위기 속에서 신규 수익원 확대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적정 매출을 확보하고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및 체육기금 지원액의 3대 재무목표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2020년 경영전략이 2020년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조직·인력 운영전략 및 방침 또한 그 이후에 결정되었다. 경영전략과 조직인력 운영 방향이 PDCA 원칙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 1조 7,228억원을 조성한 점, 지원기능 효율화로 정원의 1.2%(10명)를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배치한 점, 직무형임금체계의 설계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은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기업수요 분석을 통하여 융합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스포츠데이터 개방 확대(68종 → 83종)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품질평가 최고등급 획득(96.5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규제입증책임제의 적극적인 운영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간체육시설의 방역 및 생활안정화를 지원하고 스포츠기업 긴급금융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대규모 체육관 최초 온라인 비대면 공연장을 운영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년도 87.728점 대비 6.557점 하락하여 81.171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84.7점으로 기금관리형 기관 중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71.133점의 낮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66.88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는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77.2점의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 체육기금 조성사업, 스포츠산업육성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스포츠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체육과학연구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스포츠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체육진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소년 및 장애인 등 생활체육 참여 취약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접근성 지표 개발과 의료분야 전문기관이나 의사들과 협력 확대에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1.5조원 규모의 차년도 체육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한 점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VR 컨텐츠 등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사업의 예산과 인력의 배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설정방식의 도전성은 다소 미흡하나 목표치 설정과정에서의 도전성을 확보하려는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향후 기관은 관리하는 성과지표를 결과(outcome)지표로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기준치 대비 20%를 초과하여 실적이 감소하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평가 미실시 등으로 인해 실적 산정이 불가하였다. 다만, 체육기금 건전조성사업 중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지표와 스포츠산업육성사업의 '스포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 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산출이 가능하였는데, 두 지표는 모두 목표 수준을 100% 달성하였다.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결측 처리되었으며,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지표들에 대한 기관의 과거 실적이나 주요사업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량지표 점수를 산정한 결과, 92.2%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4. 근로복지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7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657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73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32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1)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5	5.000
	(2)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성과관리 적정성	4	C		
	2.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1)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			8	8.000
	(2)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6	6.000
	(3)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3.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1)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4	4.000
	(2)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복지연금사업				
	(1)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3	2.247
	(2) 복지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전략과제를 개편하여 6대 경영목표, 4대 전략방향, 16개 전략과제, 73개 실행과제의 체계로 개선하였고, 조직 및 인력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와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 직무중심 중기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경영목표-전략과제”의 KPI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략과제별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추진과제를 중장기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와 연계하여 정부정책지표를 반영하여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cascading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의 cascading에 따른 자원배분 계획을 년도 별로 수립하는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2021~2025 중장기 경영전략’이 리더십 및 주요사업의 PDCA 관점의 성과관리체계에서 실행되도록 개선하는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지속가능 경영 선도와 전사적 경영효율화를 위한 4 Up+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기 개선과제 17개와 중기 개선과제 2개와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55개를 도출하고 추진한 노력은 인정된다. 또한, 위기 대응 선도를 위해 긴급 자율과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차질 없는 수행’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COMWEL 중앙 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349명의 기존환자를 일대일 상담과 희망병원을 반영하여 2일 만에 전원 조치하고 66개 컨테이너와 격벽을 설치하여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208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667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완치 성과를 창출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노동복지 서비스 기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양성평등 관점의 다차원 평가 등을 통해 여성관리자 목표를 달성하고 여성임원비율도 정부권장목표를 상회하였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용건수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상생결제 적용기준을 2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하고 인권 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통하여 녹색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67점으로 낮은 편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조직 및 인적자원 운영 계획은 단기(2020년), 중기(2023년), 장기(2025년)로 나누어 설계되었고, 조직과 인력 운영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CEO의 리더십과 대응능력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화 된 점 또한 성과로 인정된다. 직무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와 실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소통채널을 보완하였으며, 국민제안을 반영한 '산재보상 모바일 검색 서비스'가 '20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하여 감염병전담병원(대구병원, 창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긴급재난기부금"사업을 전담하였으며,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지원,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전년도 86.447점 대비 0.88점 상승한 87.327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기관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전년도에 이어 100점을 획득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지표 90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65.7점으로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74.6점으로 전년도 69.48점에 비해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90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나,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전년도 91.9점에 비해 하락한 84.4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에 이어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복지연금사업 등 4개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AI기반 지능형 재활추천시스템 활용, 진료정보 자동입수시스템 구축 등 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일상 복귀를 총력지원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당금을 지원함으로써 임금소득 안전망 구축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도심재활센터의 입지요건에 대해서는 기관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전적 목표설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의료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한계수치에 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및 결과(outcome)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근로복지공단은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수치인 97.1%를 기록하였다. 산재·고용보험가입·부과업무사업의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 지표, 산재

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의 ‘산재보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 성과’ 및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지표,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의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지표는 모두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복지연금사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지표는 74.9%의 다소 저조한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실적치 자체는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상향된 목표 수준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퇴직연금가입 근로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체당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5. 기술보증기금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A^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2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4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71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07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기술금융지원사업				
	(1) 기술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성과			7	7.000
	(2) 혁신창업기업 및 혁신성장기업 지원 노력도			5	5.000
	(3) 사회적 가치 실현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2	2.000
	(4)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강화			1	1.000
	(5)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2	2.000
	(6) 기술금융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C		
	3. 복지사업				
	(1) R&D 및 IP 평가를 통한 기술기업의 매출액 성과			3	3.000
	(2)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3	3.000
	(3) 기술평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3. 구상권관리사업				
	(1)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 강화			3	3.000
	(2) 구상권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환경, 대외환경, 대내환경을 분석하고 고객과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을 재해석하고 주요 역할을 구체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4대 중장기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대 전략과제, 48개 실행과제 및 122개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실행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나, 사회적 가치 종합지수는 상향지표이므로 측정산식의 지수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 성과지표 또한 14개로 다소 많아 4대 경영목표와 16대 전략과제를 대표하는 지표 체계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금융, 기술평가, 구상권 등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세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과 세부 운영방향의 정합성을 보완하여 사업의 운영방향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조정 방향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기보형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공정, 혁신, 협력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술평가 역량 강화, 협력기반 안전 실천 등의 명확한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하여 가치체계 공유지수 9.21점을 달성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기보 고용창출계수'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분야에 집중지원을 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관리 방법을 추정치에서 실제 측정치로 변경하여 일자리 양과 질 성과관리를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블라인드 평가 TOOL을 고도화한 점이 인정되나, 여성관리자 목표 자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고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실효성 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대학의 기술창업강좌에 기관의 박사급 실무전문가가 출강하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최초로 준법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준법·윤리경영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내부청렴도 1등급을 유지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녹색보증 신규로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기업에 우대보증 1,513억원을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지원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안전보건 조치 강화 노력을 통해 안전만족도가 7.2점 향상(77.4점 → 84.6점)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발생과 한국판 뉴딜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무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 결과 보증규모 확대, 출연금 확보, 사고율 감소, 부채비율 감축 등을 실현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보증기업의 부실율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관리방안의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사업 초기에 설정했던 기관의 전략목표와 자원활용 로드맵을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적절하게 변경·조정한 점, 이 과정에서 국민·고객, 노동조합, 기관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진단 전담반을 활용해 전문적 진단을 수행한 점, 위기극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 중심의 권역별 맞춤 지원을 고도화 한 점 등이 성과로 인정된다. 노사관계의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점 또한 긍정적이다. 기관은 디지털 혁신계획을 통하여 비대면(무방문), 자동화(무인화)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술평가 피드백 정보, 특허등급·가치평가 정보 등 고수요 중심 공공데이터를 개방을 확대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에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521개 기업에 약 3조 7천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중기-장기 46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창업 초기 시드투자 확대, 기술인재 창업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예비유니콘 지원 등의 성과 창출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전년도 89.344점 대비 0.453점 하락한 88.891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 94.267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94점 그리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100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4.32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68.8점에 비해 증가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60점을 기록하였으나,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4.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평가사업, 구상권관리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재기지원과 구상권의 회수로 구성되는 구상권관리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역량이 실패기업의 자금지원 및 재기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실채권회수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관련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감한 보증절차 혁신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인공지능(AI)기술을 기술평가모형에 적극 활용하고, EU기술평가모형 InnoRate 개발에 참여하여 기관의 기술평가모형 노하우를 지원하는 등 기관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기관은 구상권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실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사고특례조치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 및 고용안정망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실채권회수 기법개발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량지표의 전체 목표달성률이 보정 이후 100%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상당수의 지표들이 투입(input)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지원을 받는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고용 변화, 혁신활동 등 결과(outcome)지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기술보증기금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8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보정 이후 전년 대비 1.2%p 상승한 100%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실현하였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의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지표와 기술평가사업의 'IP 및 R&D 평가를 통한 특허사업화 촉진 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기술금융지원사업 중 '기술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성과'는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목표달성률이 100%로 산출되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가 대폭 증가한 점('19년 8,369→'20년 13,643)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신규보증금액이 확대된 점('19년 46,900억원→'20년 77,258억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무관하게 100% 목표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6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52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532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9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 부담금 업무 정확도 제고 노력			7	6.780
	(2)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직원) 연금수급권 확보노력			4	3.428
	(3) 가입자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2. 급여관리사업				
	(1) 부정수급 환수 성과			3	3.000
	(2)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4	2.992
	(3)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3	2.415
	(4)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2	1.901
	(5) 급여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3. 복지사업				
	(1) 퇴직교직원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 창출 성과			3	3.000
	(2) 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다각적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공성 강화, 미래 대비 등 지향점을 도출하고 가치체계 개선 방향 설정과 함께 설립 근거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공단 미래역할 재정립하고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력 및 예산 배분 포트폴리오 수립으로 2020~2027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한 개선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전년도 수립된 중장기 경영전략인 'Vision 2027'을 단기 경영계획인 'TP Focus'에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을 당해 연도에 반영하여 PDCA에 기반한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경영전략 롤링 및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의 cascading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경영목표와 전략목표를 차기년도 'Vision 2027'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의 PDCA 체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업(業) 연계성 강화 등 이슈별로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되나, 실제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시스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임원 비율이 모두 우수한 편이다.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역량을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고통 나눔, 업(業) 중심의 지역공헌이라는 자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갑질근절을 위한 상호존중문화 조성, 비윤리적 행위 차단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환경보전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안전환경팀을 신설하여 환경보전활동의 추진력을 제고하고, 안전인증 필수기관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획득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경영전략과 기금 수익성의 균형적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 수익률 11.49% 달성(사상 최고 투자수익 2.1조원 달성) 등 재무관리 지표가 전년 대비 향상 되고 목표를 초과 달성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조직·인력 운영 로드맵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이 변화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조직자원 동원체계 변경의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동적(dynamic) 대응이 필요하다. 직무형 임금체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직무평가심의위원회에 간부직 이외에도 내부구성원 특히 노동조합 등을 참여시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복리후생비 수준에 있어 고용형태별 격차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점은 기관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차별없이 관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적극적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결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외에 '조직 혁신 강화' 방향을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혁신과제 수립 시기를 고려한 이월 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를 운영하여 감염병으로 위축된 지역의 문화강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온라인 교육 노하우가 부족한 학교기관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통하여 교육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관련 산업부문에 대한 기금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스마트산업 인력 육성을 추진하는 등 한국판 뉴딜 자율 확산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년도 92.822점 대비 4.582점 하락한 88.2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95.533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90점 그리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98.4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0.64점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80점을,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78.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9년에 이어 가입자관리사업, 급여관리사업과 복지사업 등 3가지 주요사업을 2020년에도 추진하였다. 2018년도에 도입된 복지사업은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이나 재직교직원과 퇴직교직원 및 퇴직예정자의 균형있는 사업수행과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자관리사업을 통해 고객중심의 급여제도 운영 및 연금수급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범죄경력 검증 강화 및 경찰청과의 협업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 최소화 및 환수금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ICT기반 비대면 급여서비스, 부정수급 예방활동 강화, 재해보상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급여관리 사업을 통해 고객중심의 급여제도 운영과 안정적 재해보상제도 운영이라는 성과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기관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의 실질적 편익 증대와 노후 준비 및 퇴직이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폐교기관 증가 대응 방안과 고액 연금수령액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사학연금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복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방향설정 및 조직정비, 연금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은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은 목표부여(편차)방식의 도전적인 목표설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이론적 최고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점 등 목표 도전성을 유지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복지사업의 경우 재직자에 대한 복지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90.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7개 계량지표 중 6개 지표에 대해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따라 목표달성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계량지표 중 급여관리사업의 '부정수급 환수 성과' 지표와 복지사업의 '퇴직교직원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 창출 성과' 지표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 밖에 가입자관리사업의 '부담금 업무 정확도 제고 노력'과 '제도소외계층 연금수급권 확보노력'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96.9%, 85.7%를 보였으며, 급여관리사업의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급여수급권 보장 성과',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지표는 각각 74.8%, 80.5%, 95.1%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목표 수준을 100%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7. 신용보증기금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99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59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46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신용보증사업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7	7.000
	(2) 기술평가 활성화 노력도			5	5.000
	(3) 성장 유망 창업기업 육성			4	4.000
	(4) 리스크관리 강화			2	2.000
	(5) 사회적금융 지원 강화			2	2.000
	(6) 신용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B^{+}		
	2. 구상권 관리사업				
	(1) 부실채권 정리 강화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4	4.000
	(2) 구상권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3. 신용보험사업				
	(1) 신용보험 저변 확대 노력도			2	2.000
	(2) 신용보험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환경을 반영한 가치체계 강화방향을 도출하여 가치체계의 명확화·구체화를 추진하고 행동목표를 개선하였으며,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분석하고 3대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영목표를 도전적으로 재설정하였으나, 미션, 비전, 핵심가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경영방침에 따른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cascading하는 보완 노력을 통해 '중장기 경영목표'를 고도화하고 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PDCA에 기반하여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재무 건전성 강화', 과감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중심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국가위기 총력대응을 위한 조직전반의 '경영효율화'를 중점과제로 도출하여 '정부출연금 확보',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 '인사운영 인프라 개선' 등 1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중점추진과제 98개 추진, 업무계획 조정에 따른 경상과제 변경 및 조정, 현장배치팀 6개 및 보증지원 실무인력 101명 전환배치 등을 통해 65조 원 보증공급으로 경제위기를 지원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보증기업의 실제 고용인원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성과관리를 하였으며, 육아 휴직자 비율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43명을 채용하였다. 기관은 2030세대로 이루어진 청년이사회를 운영하여 젊은 직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 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2030세대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역기업과 전통시장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001)의 고도화를 추진한 점이 인정되나, 정체가 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상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친환경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으로 예방·현장·실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재해·무사고를 실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인 중 이월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및 혁신성장을 반영한 S-VIG 예산의 목표를 전년(11.0%) 대비 확대(20.0%)하여 사회적 가치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보증기업의 부실율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험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PDCA원칙에 따라 업무계획·조직인력·지원제도·성과관리 등을 기존 체계에서 변경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했으며 이를 위한 실무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업수행이 원활하도록 정비했다. 기관의 전결권 위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그 이행의 성과는 인정하나 위험관리체계 설정 및 운용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복수노조 환경에서 노사간 갈등예방을 위한 소통을 활성화 하고 소통의 방법을 다양화한 것 또한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VOC 분석(검색어)을 통하여 국민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선제적 정보공개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및 입법방식 유연화 확대를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 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일자리유지, 민생안정, 연쇄도산방지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업무절차 간소화 및 영업점 현장중심으로 조직·인원 집중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 노력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91.726점으로 전년도 90.817점 대비 0.909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99.667점의 득점률을 보이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와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100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1.9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68.760점에 비해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만점을 기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4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7.8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사업, 구상권 관리사업, 신용보험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신용보증사업의 비중이 타사업에 비해 너무 높아 사업분할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6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관의 돋보이는 성과로 인정된다.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술평가 시장 본격 진입 및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 노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성장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포용금융 강화와 재도전기업에 대한 사후지원확대, 비대면 Digital 보증채무이행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채무자 재기와 구상권회수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코로나19시대에 맞는 구상권관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실채권 회수부서의 역량 강화 등 향후 발생할 부실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 보험지원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전체 목표달성률이 보정 이후 100%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성과지표를 산출(output)지표나 결과(outcome)지표로 고도화

하는 등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신용보증기금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보정 이후 전년 대비 1.6%p 상승한 100%로 평가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신용보증사업, 구상권관리사업, 신용보험사업의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실현하였다. 특히 신용보증사업 중 '기술평가 활성화 평가' 지표의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같은 사업 내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지표는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측 처리 기준에 따라, 과거 실적치를 기초로 목표달성률이 100%로 산출되었다. 국가 전체 고용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증대상 일반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신규 보증금액의 57.8%에 해당하는 자금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이 고려되었다.

8. 예금보험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91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786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31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4	3.743
	(2)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4	4.000
	(3)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		
	2.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1)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8	6.366
	(2)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1) 상환기금 회수 성과			2	2.000
	(2)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6	5.876
	(3) 부실채권 정리 성과			2	2.000
	(4)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개편하고 도전성, 실현가능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역량결집을 위해 경영목표와 전략목표 일원화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국민이 체감하는 한국판 뉴딜성과 창출과제를 전략과제에 신설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을 롤링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사 성과관리 체계의 전사KPI, 부서KPI 등과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가 중장기 경영전략과 매칭을 보다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PDCA에 기반한 중장기 경영전략의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의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노력과 함께 경영전략 롤링 및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의 cascading 시기를 명확히 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고유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사업을 발굴하고,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제도 법제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필기전형 점수와 합격선을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취업 희망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 점이 인정되나,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의 구축 노하우를 중소 IT업체에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부패요인을 다각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계약분야와 회수분야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관리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보유기금 활용한 그린뉴딜 참여 및 사회적 채권 인증 및 매입 등을 통한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안전보건환경 관리체계를 전반적인 개선으로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하고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가 전년도 대비 2단계 상승(D → B)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3.7조원의 부채를 감축

하여 목표 3.4조원 대비 111.4% 달성하고,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지속하여 상환기금 부채(82.4조 원) 상환시기를 당초 2027년 12월에서 2021년 8월로 단축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경영전략과 조직인력 운용의 계획이 PDCA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운용되도록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사합동비상대책위원회를 노사합의로 설치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은 노사통합의 위기대응 노력이라는 점에서 인정된다. 다만, 고용형태별 복리후생비 격차 해소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혁신업무의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나, 분기별 실적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권별·금융회사별 위험 분석, 시장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저신용자·소상공인 등 취약한 차주가 많은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별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전년도 90.506점 대비 1.18점 하락한 89.326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 전년도에는 85.5점으로 낮았으나 97.167점으로 높아졌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80점을 기록하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100점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5.72점으로 평균 이하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70점을 기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6.2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75.4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사업,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을 통해 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예보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의 조기 국고귀속, 정상화 정리계획(RRP)제도 도입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험사고예방 등의 성과를 실현하였다, 또한 예금자보호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와 부실정리체계 정비를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미수령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예금자보호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파산재단 운영 효율화 노력과 공식 기관을 재산자료 제공처 기관으로 등록하여 부실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기관은 증권부문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 가계 및 기업 부실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고, 부실보험사 정리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계약조정과정에서 계약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량 성과지표는 대체로 각 사업의 대표성이 지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되나 수치관리가 어려운 보험금지급비율과 소멸시효가 포함된 부실채권 정리성과 지표는 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예금보험공사는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전년 대비 4.3%p 감소한 수치인 92.2%를 기록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 중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와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지표는 각각 93.6%, 100% 목표를 달성

하여 전년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사업의 '예금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지표는 목표달성률의 79.6%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해제가 완료되지 못한 점이 실적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의 경우 '상환기금 회수 성과'와 '부실채권 정리성과' 지표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사업 내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성과' 지표는 98%의 목표달성률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	3	2.98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935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662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439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6	5.887
	(2) 정책자금 리스크관리			3	3.000
	(3) 일자리 성과 창출			8	8.000
	(4)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2.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1)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4	2.728
	(2) 마케팅 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		
	3.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1) 중소기업 인력·기술지원 성과			5	5.000
	(2) 창의인재 양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기업, 민간투자유치,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강화하고 온라인수출비중, 미래성과공유 지표를 신설하여 기존 고객서비스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지표를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로 개선하는 등의 고도화로 전년 실적 대비 도전적 경영목표 재설정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정부 정책방향과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4대 전략목표 및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목표 Cascading을 통해 경영전략과 사업·부서별 체계적 연계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의 실행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성과관리 체계의 전사 KPI와 부서 KPI등이 중장기 경영전략과 대응하도록 PDCA에 기반한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평가기준을 공공성, 성장성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 개선하고 3대 혁신방향에 부합하는 기존사업 조정과 신규 사업 선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인정되나 신규 사업 발굴추진 건수, RWLA비율과 같은 계량 성과지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대응 노력과 같은 비계량 성과지표를 경영개선 성과관리에 부합 하도록 보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핵심사업은 경기적·구조적·마찰적 실업유형별로 대응하고, 기관 특화 일자리 모델로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추진하였다. 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유형·수준별 적합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본사 이전지역인 경남과 전국 현장거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저조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도 하락하였으므로, 윤리경영 전반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정부감축목표를 상회하는 CO2 배출량 중장기 목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채권(ESG)을 역대 최대 규모(2019년 9,775억 원에서 2020년 6조 7,440억 원) 시장에 공급하여 친환경 분양 투자 확대를 견인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전문성·신뢰성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고 근로자 산업재해 및 고객의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만,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69점으로 낮아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최우선의 단기 전략 설정하고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중장기 재무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안정성, 건전성,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의 주요 재무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금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세밀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대외이슈 및 중장기 조직운영 로드맵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조직인력 운영방향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다. 조직목표, 주요사업 조정, 조직 및 인력운용의 방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형 임금체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비간부직에 대해서도 체계적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급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복리후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플랫폼」을 통해 예비유니콘 기업 100개사를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기관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자체적인 규제개선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125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점검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총 1조 7,000억 원을 증액하여 역대 최대 규모 정책자금 6.3조 원을 공급하였다. 한편, 기관은 급증한 업무와 대면심사의 제약에 대응하여 서면 및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을 신속 도입하고, 융자 전결권을 보유한 신속 기동반 확대 운영 및 본사·연수원 인력의 현장 파견 등 유연한 인력운영을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년도 92.606점 대비 4.657점 상승한 97.263점의 가장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득점률은 99.5점으로 전년도 95.867점 대비 3.633점이 상승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득점률은 93.5점으로 전년도 97.2점 대비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100점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여 100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전년도 82.580점 대비 10.66점 증가한 93.24점으로 평가되었다. 경영정보공시점검 100점,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7.8점으로 국민소통 지표의 득점률은 95.933점으로 전년도 84.6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년과 동일하게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및 비대면 방식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예비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및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등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의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지원 및 협업을 통한 온라인수출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코로나19 피해 수출중소기업 안전망 확보 등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다. 한편, 기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한 혁신창업가 양성과 신산업 기술인력 양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고위험 자금을 제외한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증가할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과 체계적 전략 수립,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발 및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대부분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어 목표설정방식의 도전성은 인정되나, 대부분 투입(input)지표의 성격이 강해 달성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기관은 성과지표를 자금지원 이후 기업들의 변화(성장률, 고용률, 혁신 활동 등)를 반영하는 결과(outcome)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전적인 목표설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94.7%로 전년도 목표달성률 100%에 비해 계량실적이 하락하였다.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사업의 경우 '정책자금 리스크관리' 및 '일자리 성과 창출' 지표에서 100% 목표를 달성한데 반해, '혁신성장 기업생태계 구축 노력도' 지표에서는 98.1%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지표의 목표달성률이 68.2%에 그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별로 수출 실적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주요 지원대상인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크게 하락한 점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현장 밀착형 창의인재 양성지원 사업의 '중소기업 인력 프로그램 지원성과' 지표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10. 한국무역보험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	3	2.76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0.7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898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6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1) 수출 확대 기여도			9	8.957
	(2)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2.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5	3.984
	(2) 신시장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4	4.000
	(3)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1) 수출기반 확대 성과			6	4.940
	(2) 국외채권 회수 성과			2	1.402
	(3)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설립근거법, 경영환경 변화 및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긴급안정망 구축, 신성장동력 육성·지원, 공공성 강화를 진단기준으로 도출하고 미션·비전·핵심가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PDC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은 수출경기 선행지표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K-SURE 긴급경영추진단'을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속계획을 긴급 수립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무역보험의 비대면·디지털화,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 등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관은 위기 대응 체계에 따른 기존 경영목표 조정 및 도전적 신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롤링하여 4대 전략목표,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cascading하여 전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실행체계를 구축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경영개선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전년도 대비 모두 개편 하였는바, 성과분석 및 환류 등 PDCA에 기반한 성과관리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지양하고, 경영개선 성과관리에 부합하도록 정합성을 보완하는 경영개선 지표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정현원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현원차 제로를 달성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정부권장기준을 충족하였다. 기관은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업(業)과 연계하여 상생형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경영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청렴문화를 확산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환경보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그린산업 우대를 위한 Green Value Index 신설 및 그린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친환경 요구에 부응한 프로젝트 환경 심사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D등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자본 확충을 재무관리 주요 목표로 하여 역대 최대 정부출연금과 16년 이후 최초 민간출연금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년도에 사고율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별 사고율의 역전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신용위험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기관의 전략목표가 2020년 사업이 진행중인 하반기에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조직인력 운용의 방향 또한 이 시기에 병행 설정되었다. PDCA 원칙에 따라 조직인력 운영의 방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직무형 임금체계의 전환과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사이의 복리후생 격차는 여전히 적지 않다. 지속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을 반영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혁신과제를 중장기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목표달성을 제고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구축하여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향후 신규로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및 보증료를 감면하고, 전사적 신속·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 부응하여 모바일 다이렉트 보험·보증 출시, 수출결제정보 분석 및 개방,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득점률은 90.429점으로 전년도 89.361점 대비 1.068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 92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70점의 낮은 득점률 그리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100점의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수준을 달성하여 100점을 기록하였고,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 득점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77.96점을 기록하였다. 경영정보공시는 100점을,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93.4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7.8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수출성장동력 지원사업,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의 3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중기에 대한 총력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통합보증서 도입, 비대면 무역보험 및 무역보증 도입, 신산업 비재무 심사확대 도입, 신흥시장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성장동력지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기금건전성 및 수출지원 간 균형 확보, 채권관리 강화를 통한 회수실적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기관의 설립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기관은 비대면 보험상품의 부실 심사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조치로 인해 발생될 무역보험 부실증가 등 각종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계량 성과지표가 달성난이도가 높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목표설정의 도전성을 유지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부실률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유형별 부실위험률 관리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개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89.6%를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3.8%p가 하락한 수치이다.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의 '수출 확대 기여도' 지표는 전년보다 근소하게 하락한 99.5%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중 '총괄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지표는 전년보다 하락한 79.7%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며, 해외 사업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된 점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신시장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지표에서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다.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의 경우, '수출기반 확대 성과', '국외채권 회수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각각 82.3%, 70.1%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무역량 감소와 국외채권 회수 어려움 등이 성과 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11. 한국자산관리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8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67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1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				
	(1)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4	3.341
	(2) 기업구조조정 지원 성과			7	6.627
	(3) 가계 기업안정지원사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2.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1)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4	3.512
	(2)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			2	1.720
	(3) 국유재산 위탁관리 성과			6	6.000
	(4)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3	3.000
	(5)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3. 협업우수과제				0.60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을 전략기획 지표의 목표로 설정하고 ‘포용적 위기 극복지원’, ‘혁신성장·경제 활력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표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계량 및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략기획 추진과제와 성과지표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설립근거와 경영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포용적 위기 극복 지원’과 ‘뉴노멀 대응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경제주체의 안정·성장과 공공자산 가치 증대를 위한 캠코의 역할 고도화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체계 진단을 통한 비전·핵심가치 개선방향 설정하여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안전’ 신설 및 ‘포용’을 개선하고 내재화를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업기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업 영역별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수혜자 니즈 연계 일자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상생·협력 기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실행과제 선정으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고졸자·지역인재 채용에서 모두 정부 권장정책 기준을 초과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실적을 낸 점이 인정되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사회 소통채널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부패 취약분야 업무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제로에너지 공공청사 개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그린뉴딜사업 조기 착수 및 공익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안전관련 조직, 인력, 예산 및 규정을 전반적

으로 개편하고, 본사 및 자회사 동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투자 확대에 따라 7,519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위기대응 성과를 창출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전략목표와 조직인력 운영방향이 PDCA 원칙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직무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인정되나 팀원급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K-Square, K-Studio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 장기간 방치된 양구 무주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토지 소유관계를 확정하고, 적법한 대부·매각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및 영농환경 조성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박펀드와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 연체채권 매입,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대출형 사모펀드(PDF)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1.9조원의 역대 최고 투자집행 실적을 달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캠코판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캠코판 뉴딜 지수를 도입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관의 체계적인 계획과 성관관리는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득점률은 91.286점으로 전년도 88.311점 대비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6.16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100점,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도 100점을 기록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여 100점을 득점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73.5점을

기록하며 전년도 68.89점에 비해서 4.61점 증가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100점을 득하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83점을 득하여 국민소통 지표는 94.333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과 공공자산 가치증대사업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강화, 국민체감형 포용형 채권관리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위기기업 긴급지원, 일시적 위기기업 정상화 견인, 회생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등 위기상황의 가계 및 기업을 총력 지원하였으며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국유재산 공공성 강화, 공공개발 공적역할 강화, 체납정리 재정기여 최적화 등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보유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및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특혜시비,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조직비대화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설정방식 자체는 도전성이 높지 않으나 목표치의 설정을 전년 실적대비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설정의 도전성을 유지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93.1%('19년 87.9%)를 기록하였다. 가계·기업안정지원사업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은 83.5%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부여(편차)방식에 따라 목표치가 크게 상향된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융소외자의 상환여력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부여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성과' 지표는 목표의 94.7%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한시 인하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인해 목표의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88.5%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의 경우 '국유재산 위탁관리 성과' 지표와 '체납압류재산 정리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국유지 개발사업 확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87.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개발사업의 취소나 중단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유지 개발사업 안전관리 성과' 지표는 전년보다 다소 향상된 86.0%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다.

12.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5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82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07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39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유동화사업				
	(1)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			7	6.983
	(2)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			3	3.000
	(3) 유동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5	5.000
	(2) 사회적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3	3.000
	(3) 부실채권 정리율			2	2.000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주택연금보증사업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6	5.991
	(2) 주택연금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경영목표를 진단하여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맞춘 주택금융공급액, 국민주거비용절감액, 비대면 주택금융 공급비중, 핵심자본비율 보증운용배수, 민간 일자리창출, 사회적 배려층 지원 비중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3대 전략목표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주택금융 전문역량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추가하여 전략목표를 재설정하고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별 인력 및 예산의 자원배분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실행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략 추진체계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과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기관은 PDCA에 기반한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과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와 전략실행체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성과분석 및 환류 등 PDCA에 기반한 성과관리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경영개선 지표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재검토하여 경영개선 지표의 성과관리를 고도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한국판 뉴딜 등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와 근로환경의 질적 측면 강화, 한국판 뉴딜정책과 결합한 혁신형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였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청년,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낸 점이 인정되나,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본업과 연계하여 HF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자연경관 정비를 통해 힐링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청렴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계약 단계별로 공정계약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주요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노력으로 친환경주택 건설자금보증 및 그린리모델링 개량자금보증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기관은 국가정보원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 5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가 인정된다. 하지만, 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D등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바젤III의 도입으로 핵심자본비율을 개선하여 보금자리론 등 주요 사업 경영목표의 달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회적책임투자를 확대하여 재무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의 2020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에는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와 전략과제만 제시되어 있고 2020년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조직인력의 운용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PDCA 원칙에 따라 조직인력 운용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급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노사실무회의, 공동 워크숍, 협의체 운영 등 노사간 소통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다. 복리후생비의 고용형태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 점 또한 성과로 인정된다. 기관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공사법령, 내규 등을 전사적으로 점검하여 규제요인 발굴하고 규제심의위원회의 입증 절차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맞춤형 주택금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금융포털의 구축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8천억원을 정부에 출연하고 5천 3백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여한 점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도 90.533점 대비 3.164점 상승한 93.697점을 득점하여 전년대비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8.467점으로 전년도 95.800점보다 상승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100점 그리고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99.4점의 높은 득점률을 보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득점률은 81.42점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11.691점 상승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100점을,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는 78점을 득하며 국민소통 지표는 92.667점의 득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도와 동일하게 유동화사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주택연금보증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역대 최저금리 및 최대규모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한 저리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지원 등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지속가능한 주신보 사업을 위한 안정적 기금 관리에 노력하였다. 한편, 기관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및 가입대상 주택범위 확대를 위한 공사법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실질적인 주택연금 수혜 확대를 이루었는데 기관의 돋보이는 성과로 인정된다. 향후 기관은 아파트중심의 모기지신용보증 개선, 보금자리론 확대 및 주택연금상품의 다변화 등의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 전체의 목표달성률은 99.9%로서 전년 100.0%에 이어 높은 달성률을 보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방식으로 볼 때 기관의 목표설정의 도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관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투입지표보다는 산출(output)지표 또는 결과(outcome)지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개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전체 목표달성률은 99.9%로 100%를 기록하였던 전년에 이어 높은 목표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유동화사업의 '주택담보대출 취약차주 지원 노력' 지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의 '무주택 서민 정책보증 지원 실적', '사회적 약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노력', '부실채권 정리율' 지표에서 모두 100%

목표를 달성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기관의 성과달성 노력 이외에, 중장기목표 부여방식에 따라 성과지표의 목표가 설정되었고 지표의 성격도 투입(input) 지표의 성격이 강해 목표달성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Ⅱ 위탁집행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가철도공단
3. 국립공원공단
4. 국립생태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6. 국토안전관리원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도로교통공단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우체국금융개발원
11. 우체국물류지원단
12. 축산물품질평가원
13. 한국가스안전공사
14. 한국고용정보원
15. 한국관광공사
16. 한국교통안전공단
17. 한국국제협력단
18.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한국농어촌공사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한국산업단지공단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7. 한국산업인력공단
28. 한국석유관리원
29. 한국소비자원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1. 한국에너지공단
32. 한국연구재단
3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4. 한국인터넷진흥원
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6. 한국장학재단
37. 한국전기안전공사
38. 한국전력거래소
3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1. 한국환경공단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Ⅱ. 2020년도 위탁집행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대내외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자체적인 평가를 결합하여 목표를 재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대다수 기관이 2025년까지의 경영목표를 설정한바, 더 장기적인 시계에 따른 사업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장기로드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공공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시급성 등 균형이 필요한 경합적 가치들을 다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 자원배분계획에서 확장적 자원확보계획에 비해 이를 실제로 구현할 방안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더 적정한 계획과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성과는 주요사업의 직접적 성과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요사업을 위한 경영적 지원과 시스템 기반 마련의 성과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안전은 기관들의 노력 외에 여러 요인에 의해 그 성과가 결정되는바, 주요사업 성과와 별개로 기관의 경영적 노력 자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외부환경 및 경영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 유관기관,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수렴하여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로 이어지는 전략체계를 보완하였으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책임부서를 배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대다수 기관은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SWOT 분석,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체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관은 한국판 뉴딜 전략,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전사적 경영전략과 사업단위별 전략 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전략목표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해 기관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과 컨설팅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이 반영된 전사적인 사업진단과 기능조정을 수행하여 미래 핵심사업을 설정한 후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상자 확대와 그들의 신뢰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다수 기관은 기능조정 과정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일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기관들의 손길이 절실한 기업과 국민들에게 기관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2) 경영개선

○ 대다수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의견수렴을 토대로 매트릭스 분석, GAP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미래과제 POOL을 구성하는 등 미래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기존에 선정된 미래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 후 유형화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등에 반영하는 등 미래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전년도 선정된 미래과제가 지속되지 않는 등 중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미래과제의 지속성 유지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미래과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장기 로드맵에 변화가 심하여 안정적인 중장기 로드맵 설정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대다수

기관이 확장 기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의 기능조정을 수행한바, 수요가 쇠퇴하거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 등에서는 더 과감한 자원재배분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사업의 발굴에 있어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그 적극성에 차이가 발견된다. 사업의 안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경우, 혹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법적 기반 마련 노력이 요청된다.

○ 전반적으로 대다수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노력을 기울였고, 대내외 표준적인 자문기구들을 활용한 컨설팅에 기반하여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수준에 머문 경우들이 발견되거나, 프레이밍을 달리하여 대응하는 등 실질적 개선과 성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자문기구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다수 기관이 표준적인 자문기구들을 구성해두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실질적 운영에 방점을 두는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RPA를 활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업무시간과 자원 절감을 달성한 기관들이 발견된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성과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측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도 연계하여 대내외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다수 기관이 데이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는바,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달에 있어 선도적인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정보보안 시스템 역시 데이터의 규모에 걸맞도록 개선되어나갈 필요가 있다.

(3) 리더십

○ 대다수 기관은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 및 중장기·연도별 목표수준의 적정성과 경영계약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리더십에 특유한 과제와 성과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기관 전반적인 전략기획과 경영개선, 그리고 주요사업 성과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은 제도적 기반과 성과로부터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른 탄력적 조정과 성과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기관의 위기를 불러오거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의 신축적인 사업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관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리더십의 성과가 더욱 명확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장은 대내외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영계약 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성과지표 조정을 통해 경영계약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기관장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대응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과제를 추가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장의 경우 성과지표가 여전히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경영계약 과제가 중장기 경영전략 과제와 차별화되지 않은 채 일부를 차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장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새로운 경영방침을 제시하여 경영을 구체화하고, 직원들과의 미팅,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조직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기관장이 주도하여 하향식으로 하기 보다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비전과 핵심가치에 몰입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제안이 경영에 반영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조치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이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노력과 측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핵심가치의 내재화 정도에는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었고, 핵심가치

내재화 정도 측정 결과가 실제와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인식조사방법의 과학성이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기관들은 핵심가치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조사체계를 고도화하여, 그 결과에 기반한 전략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구성원의 동기부여 수준이 낮고 조직구성원 집단들 간 갈등이 발견된바,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이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진 구성의 질을 개선하고,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며, 비상임이사의 발언을 강화하고, 근로자참관제 등 노조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 횟수 및 출석률 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이사들의 경영제언 역시 그 실질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노조의 참여가 비공식적인 절차로 남아있는 기관의 경우 그 여건에 따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고, 이사진의 전문성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 일자리 창출

○ 대다수 기관은 신규 일자리 과제의 발굴로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및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외부의견의 수렴을 통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의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일자리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바, 민간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업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결과를 추진전략 및 계획의 수립에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은 정현원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충원 계획을 세우고, 채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효율적인 정현원차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다수 기관은 시간선택제, 교대근무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탄력정원제 실시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적절하게 진행하였다고 평가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처우의 질적 개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성과 관리 및 교육 강화 등 정규직 전환 이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자회사 직원과의 형평성 제고 등 노력도 아울러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이 핵심사업과 조달위탁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기존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나 신규 사업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 신규 사업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내벤처사업의 경우 몇몇 기관만이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되었지만 아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부 기관은 유관기관, 국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 등 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내벤처 등 혁신적인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대다수 기관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채용 전반의 운영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제의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였다고 평가한다. 응시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 만족도 조사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한 환류 조치가 강화하였다고도 평가한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제 시행에 따라 AI 면접과 같이 응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채용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채용 면접자와 합격자 중심에서 전체 응시자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들은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고졸 인재, 지역인재의 채용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지역인재 비중이 높아지고 채용방식이 변경된 기관들은 이것이 우수인재 확보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규 채용 인력들의 역량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달성하기 위해 대다수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채용이나 고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 우수한 고졸과 장애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단순업무가 아닌 기관의 핵심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채용 후 조직에의 적응 및 업무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개선의 노력과 함께 향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회형평적 인력의 채용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은 여성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대체로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기관들은 여성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별관리를 통해 고위직 여성관리자 비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채용 및 승진 부분에서는 점점 여성 비중이 증가하여 역전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이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안전 및 환경

○ 대다수 기관은 자연·사회·복합재난 및 기관 고유 업과 연계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대다수 기관이 재난유형별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두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매뉴얼의 작성과 배포, 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재난유형별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면·비대면 교육 및 대응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예방과 대응 및 복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의 강화는 물론 평가와 환류 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주로 2020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목표를 달성하였고, 기관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평가하는 산업부 평가 기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녹색인증 보유 의무화 등 녹색 제품 우선 구매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2020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 고유업무와 연계한 환경보호 운동 확산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동참하는 환경보호 활동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방지를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고도화하고,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대다수 기관은 기관의 관리부서 노사 대표와 수급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자료 및 이슈를 공유하고, 수급업체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다. 다만, 수급업체의 안전 관련 위험파악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참여하는 수급업체를 확대·다양화하는 등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별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담당자의 전문기관 교육 참여를 통해 위험성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발주공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였다. 다만,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시설별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은 랜섬웨어 등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격 위협 예방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는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단 평가점수와 국가정보원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정보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안 평가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해킹 메일 모의훈련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안전가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사적 차원에서 기관의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안전가치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 가치의 실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발굴하여, 3~5년 기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안전 부문의 성과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대다수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발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관 고유의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기관이 주도하여 지역의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산업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은 공정경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행과제를 준수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기관 고유의 모범 거래 모델을 수립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계약조건을 완화하고, 계약의 이행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선금지급액을 늘려 기관의 이익을 협력업체에게 부여하는 조치를 추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국내 및 해외판로를 지원하고,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등 노력과 함께 협력업체의 임차료 감면 등 조치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의 안착을 위해서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유관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지원사업의 발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액 확대 등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바, 지원실적 목표를 상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 윤리경영

○ 대다수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법·윤리제도의 정비와 함께 부서의 조직개편을 통한 윤리경영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별로 기관장이 해임되기도 하고, 상임이사가 해임되는 등 편차가 존재하는 바,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기강을 강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기관의 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윤리경영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등 다양한 기구들을 설치하였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 및 모임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의견수렴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제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보공개율을 높이고, 직원의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수·복리후생제도 개편 및 일자리 환경분석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에 있어서 기관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바, 정보공개율이 낮은 기관의 경우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기준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은 부패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견제시스템을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패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종합·특정감사를 통해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기관에서 직원의 부패 또는 업무기강 문제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이 단행되기도 하였는 바, 문제 사안의 부패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인권경영 제도를 구축하고, 인권 피해자의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에 있어서 직원의 인권침해 사례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등 사례가 있었는 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엄중한 조치 단행이 필요하다.

(9)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대다수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 조직 및 인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하여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인력의 증원 또는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중장기 인력운용계획과 단년도 인력재배치간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의 재배치 후 구성원의 수용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핵심업무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사회적가치, 공공성강화와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상시로 단위조직의 기능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단위조직의 장(부장 또는 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을 통해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들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및 업무부담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 시 반영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이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구성원의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직 구성원의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수 시행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MZ세대와 기존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다만, 다수의 기관은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교육훈련계획간의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교육내용과 현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실시 후 현업적용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세대와 MZ세대간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인식의 차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별로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부실하거나, 직무중심과 역량중심의 교육이 혼재되어 일관성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인사와 성과급 및 보수 등에 연계 활용하고 있고, 매년 정부정책과 외부환경 변화 및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에서 여전히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가 낮은 기관들은 타 기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저성과자 내지 저성과조직 관리방안이 과거의 패널티 중심에 머물러있거나 구체적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은바 개선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이 비대면 업무환경의 구축, PC OFF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통하여 장시간 근로의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증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구성원의 근태관리에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시스템적 보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적정규모로 적시에 충원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또한, 일부 기관별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복리후생만족도가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이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인력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와 개방형 직위제도 및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사교류와 특별승진은 규정화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관별로 해당 직위의 발굴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하여 도출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며,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0)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대다수 기관이 연공급 위주의 보수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직무분석, 직무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이 간부직(보직자)에 대한 직책수당이나, 역할급 등을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로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직원들이 공감하는 직무급제도의 확립 및 노사합의 도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직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절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가 높아 직무급이 높게 설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제도 측면에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모든 직원이 보유한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기인사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인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모든 기관은 2020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였다. 기관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일반), 정규직(무기), 비정규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직군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동일하며, 복리후생비 차이는 학자금, 선택적 복지, 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의 개인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기관은 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였고,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외부주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들은 복리후생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거나 외부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사적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속에 복리후생의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3~5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부서 및 개인 단위에서 성과지표를 책임지도록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제도의 만족도 측정방식에서 정성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량적 지표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든 기관은 2020년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였다. 기관들은 임금피크제 하에서 별도정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규정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들은 임금피크제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진단하여 불필요한 직무는 제외하고, 필요한 직무는 추가하여, 적합 직무를 고도화하였다. 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 특성과 소속 부서의 목표를 연동하여 계량/비계량 목표를 부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제도에 환류한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대다수 기관이 임금피크제도 적용 근로자의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퇴직예정자들이 수립하는 재취업, 창업과 관련한 계획들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퇴직지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11) 노사관계

○ 대다수 기관은 중장기 노사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사협의체와 노사소통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을 위해, 노사비전을 정립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공감과 혁신의 노사관계 정립, 노동 존중 가치 실현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관통합 또는 복수노조 등 노사관계의 주체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충돌 없이 임단협 등을 체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직무급제 도입 등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는 기관의 경우 본부와 지역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또는 소통채널이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적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사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전사적 관점의 노사역량 개선을 위해,

중장기계획에 3~5년 동안의 성과목표를 결과 및 계량지표 중심으로 설정하고, 조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지표를 관리하도록 설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환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혁신노력 및 성과

○ 대다수 기관은 정부정책에 따라 기관의 혁신역량을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전략과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혁신추진체계를 조직,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전년도 혁신과제 이행실적을 평가·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년도 전략에 반영하는 등, 혁신전략과 실행과제를 일회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확인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의 혁신추진조직은 중점추진 세부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설계되기보다는 전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의 역할에 머물러 있으므로 혁신과제별로 기관 고유의 핵심사업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전략과제에 대비하여 혁신과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다수 기관은 혁신아이디어 발굴과 전략 수립 등 혁신활동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민참여혁신단을 확대 운영하고 지자체나 타 공공기관 등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외부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안전 강화라는 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을 도출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시민참여혁신단이 본래의 목적보다 제한적으로 활용되거나 반대로 무분별한 선발로 실효성 있는 활용이 되지 않는 등 기관마다 편차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혁신과제 이행실적과 혁신사례들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적 체감을 위한 채널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전반적인 기관들의 주요 과제라고 하겠다.

○ 다수의 기관은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발현하여 혁신공감대 형성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덧붙여 일부 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의 혁신피로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 확인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이 혁신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비공식적 조직(예컨대 CoP, 혁신주니어보드 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반하여 일부 기관들은 형식적인 운영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자체 벤처 등 실질적인 혁신 활동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문화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대다수 기관은 직원의 자발적인 혁신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포상 및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승진제도는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평가 및 보상까지 진행하는 독립적인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원들의 혁신 내재화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팀 단위, 개인 단위의 혁신 보상체계를 세부적으로 설계·규정화하여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 업무혁신내용을 평가한 후 우수직원에게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되도록 체계화하는 등 혁신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주요 중점추진과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민간기업, 학교, 타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경제 활성화 등 혁신과제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혁신과제에 투입된 자원에 비하여 국민체감 효과가 분명하지 않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소극적 목표설정으로 그친 점 등은 향후 혁신과제수립과 이행방안 설계에 있어서 개선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위탁집행유형은 2019년도 37개 기관에서 5개 기관이 증가한 42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2020년도에 위탁집행유형 경영관리계량 평가 결과 평균 득점률은 92.252점으로 2019년도 유형 평균 득점률 93.892점에서 1.640점 하락하였다.

○ 2020년도에 2019년보다 평균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18개였으며 평균 득점률이 하락한 기관은 24개였다.

- 29개의 기관이 2년 연속으로 9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90점 대에서 2020년에 80점 대로 하락한 기관은 9개, 70점 대로 하락한 기관이 2개로 전년 대비 득점이 하락한 기관이 증가하였다.

○ 2020년도 경영관리계량 최고득점은 99.592점이었고 최저득점은 71.826점으로 최고/최저 득점 범위는 27.766점으로 2019년도의 득점 범위 36.267점(최고 97.975점, 최저 61.708점)에 비하여 기관별 득점률 편차는 감소하였다.

- 득점률 범위별로 90점 대 기관이 30개, 80점 대 10개, 70점 대 2개이며, 95점 이상의 고득점 기관은 18개에서 14개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80점대 기관이 전년 1개에서 1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평균 득점률의 하락은 2020년도 혁신과 소통지표 득점이 전년도 대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탁집행유형 중 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2) 지표별

○ 주요 지표별 특징과 평균 득점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항목의 2020년도 전체 평균 득점률은 93.377점으로 2019년도 94.611점에 비해 1.234점 하락하였다.

- 항목별 2020년도 평균 득점률은 일자리 창출 93.179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83.452점 그리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 96.884점으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가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중장기 재무계획 이행실적은 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도 평균 득점률은 100점으로 2년 연속 만점을 유지하였다.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도 42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득하였다. 2019년도에는 37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하였다.

○ 혁신과 소통 지표는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를 합산한 지표로 구성되며, 2020년도 평균 득점률은 74.751점으로 2019년도 85.911점 대비 11.16점 하락하였다.

-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의 2020년도 평균 득점률은 70.7점으로 2019년도 81.6점보다 10.9점 하락하였으며, 경영관리 계량지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득점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 결과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지표의 2020년도 평균 득점률은 85.6점으로 2019년도 90.2점보다 4.6점 하락하였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위탁집행형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분야에서 적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관이 국정과제와 연결된 사업실행과제를 선정하였고,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실행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요사업 부문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수행된 사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업의 목표 및 대상을 단선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그쳐 그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위탁집행형 기관들은 대체로 주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성과로 제시된 몇몇 주요 사례의 경우 위탁집행형 기관의 특성상 기관만의 노력에 따른 성과로 인정되기 보다는 외부 요인의 기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기관이 주도적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부 기관은 주요사업별로 제시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연계성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계량지표의 사업 성과에 대한 대표성 확보 노력에 더해 비계량 분야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위탁집행형 기관 중 2020년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위탁집행형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환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성과가 미흡한 세부지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관행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환류를 수행하여 차년도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기관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기관은 설립목적과 미션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이 주요사업의 목표와 성과목표를 기반으로 성과지표 풀(pool)을 구성하고, 공공성과 SMART 분석을 통해 대상 사업의 평가와 관리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요사업에 영향을 받은 일부 기관의 경우, 지표의 내용 중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이 있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를 개선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 기관들은 주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정한 핵심지표를 계량지표로 선정하였고, 예산 및 인력 자원 배분과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선정한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대표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의 인력 또는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그 비중에 비해 가중치가 불균형하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배분된 경우가 있어 신중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지표 계산시 국가통계 또는 외부 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현행화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들은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으로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중장기목표부여, β분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 또는 목표부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도전적인 목표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계량지표의 산식에서 산출된 결과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기관의 성과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각 기관에서 주요사업의 비계량 성과지표를 설계하면서 측정 대상 및 목표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등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

된다. 다만,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거나, 대상 사업에 대한 대표성이나 정합성이 부족한 일부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 합

○ 위탁집행형 기관들은 2020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보통 4~7개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위탁집행형 기관 전체로는 42개 기관이 총 23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방식으로는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116개), 목표부여 방식(69개), 목표대실적 방식(34개)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부여 방식(8개), 글로벌실적비교 방식(5개) 또는 베타분포 방식(2개) 등을 활용하였다. 기관별 주요사업의 계량 가중치는 31점으로 동일하며, 기관들은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계량 가중치를 사업별로 조정하였다.

○ 위탁집행형 기관들은 2020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로 설정하였으며, 평가방식으로는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각 주요사업별 계량 가중치는 모든 기관에서 31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위탁집행형 유형에 속한 42개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은 전년 대비 1.362%p 하락한 93.940%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18개 기관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각각 6.548%p, 6.229%p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3개 기관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각각 10.661%p. 9.884%p, 9.010%p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 위탁집행형 유형의 경우, 2019년 평가에서는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1개 기관, 90%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32개 기관이었으며, 2020년 평가에서도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6개, 90%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27개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위탁집행형 기관의 대다수(약 79%)가 90%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여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계량지표 득점률의 표준편차는 4.816%로 기관간 성과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계량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탁집행형 유형의 득점률 분포를 살펴보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100%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7개 기관이 9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이 8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80% 미만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없었다.

○ 위탁집행형 42개 기관 중 28개(약 67%)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사업 계량실적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을 요청한 지표수는 55개(전체 지표수 235개 대비 23%)로 확인된다.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에 따라 평가단이 최종 수용한 지표수는 35개로 수용률은 약 64%이며, 수용에 따른 해당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85%(준정부기관 전체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94%)로 나타났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과 비전에 기초하여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 수립과 중점사업의 선정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예산과 인력의 확보, 조직 신설과 개편 등의 자원 배분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혁신성장체계도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한 반면, 일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과 혁신성장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러한 기관의 경우 혁신성장의 체계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 기관들은 고객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은 물론 기관의 내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기관간 격차는 향후 해소해 나가야할 부문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관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함께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과 협력하면서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산업 및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6.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 대다수 기관은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 후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려움 함께 덜기에 동참하였고,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임대료 감면, 선결제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였다. 특히 대다수 기관은 고유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였다.

○ 모든 기관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하여 임직원의 임금 반납과 성과급의 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구매나 지역단체 협력 물품 지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 건물의 임대료 감면과 취약계층에 방역 및 생활물품 기부 등을 수행하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기부 활동도 이어졌다. 기관 본업이 K-방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들의 발생 초기 문제점 해결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관 업무 관련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지원 역시 금전적, 행정적(또는 제도적),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기관은 이번 사태를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각 기관 업무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기관 내부의 방역지침을 마련·준수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특히 기관들은 업무방식을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도 활성화하여 확진자의 외부유입은 물론 기관 내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기 상황에도 중단없이 국가기반시설의 운영 및 핵심업무가 수행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대다수 기관은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의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인력을 파견하여 음압병상 운영시스템 구축 및 병상 배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기관들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장기 계획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과제를 설정·추진하였다. 특히 기관들은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DB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업무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 노력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급격히 증가한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 여부와 진행된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에 입각한 효율성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며, 일부 기관의 직원들 업무 개선에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둔 사업 추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국민과 기업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업, 조직, 전략에 맞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42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7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진료비 심사 사업				
	(1) 적정진료 성과			7	6.123
	(2)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성과			3	2.871
	(3) 진료비 심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의료의 질 평가 사업				
	(1)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9	8.584
	(2) 의료의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건강보험 정책지원 사업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5	5.000
	(2)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4	4.000
	(3) 건강보험 정책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4. 국민 안전 관리 사업				
	(1)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1	1.000
	(2)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			2	2.000
	(3) 국민 안전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래상 2040을 수립하면서 의료의 양에서 질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의료 영역에서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20년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채용 및 직무정보를 상시 투명하게 제공하였으며, AI 평가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HIRA 맞춤형 모범 거래모델을 도입하고 협력업체 거래 관행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였다. 기관은 예방중심의 윤리경영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등급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부패처벌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교육훈련체계의 고도화 및 조직과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구성원 수용도 및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을 도입하고 HIRA문화학교 운영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직무평가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콜센터 근로자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사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사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노사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여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득점률은 94.748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800점에 비해 2.052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로 인해 평점 89.633점을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임용을 연기함에 따라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각 세부 평가지표별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중치 1점 중 1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7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진료비 심사’, ‘의료의 질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국민 안전 관리’ 등 4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국민 중심의 적정진료를 견인하고자 선별집중심사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료비를 크게 절감하고 OECD 보건의료 질 지표를 벤치마킹하여 안전지표를 신규 도입하는 등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국민-의료공급자-정부’로 구성되는 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평원-정부-의료기관-지자체’ 간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발전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생의 마지막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에 따른 의사협회의 지속적 반대 및 심사체계 개편 보이콧 선언,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계 반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진료비 심사사업에서 '적정진료 성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성과' 등 2개 지표, 의료의 질 평가사업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률' 지표, 건강보험 정책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등 2개 지표, 국민 안전 관리사업에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진료비 관리 성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내방인 안전사고 감축 성과'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적정진료성과' 지표는 87.4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5.41%로 전년의 97.10%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철도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94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92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33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철도망 구축사업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증대			11	8.432
	(2)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 노력			7	5.692
	(3) 철도망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10	10.000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신성장 사업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3	1.753
	(2) 신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전략 개선 수준 평가지표 신설 등을 통해 사업단위별 실행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과제와 중장기 경영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되나,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SWOT 분석,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체계성을 강화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역세권 폐선·폐역 부지 활용 등 기관의 고유역량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 수당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채용과정 공정성에 관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졸직,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 및 여성 관리자의 비중확대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은 안전 인력 23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2020년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기관의 고유역량을 활용한 'KR스타트업 라운지' 구성 등은 긍정적이나, 시설임차인 전반에 대한 임차료 및 대부료 감면 등 조치확대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내부 견제시스템 체계화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하락 등이 있었는 바, 윤리경영제도 내실화를 위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 수립 및 책임경영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인재 양성 기반 및 제도 확충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역량중심의 고도화된 인적자원 개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있어 기관은 부채 목표 초과 달성 및 저금리로 채권 2조 4,400억 원을 발행한 결과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567억 원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기에 직무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 및 이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향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2025 중장기 노사

전략 고도화 그리고 노사 공동위를 통한 다면평가 확대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혁신과제가 기관 고유의 핵심사업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전략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가철도공단은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94.832%,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100%를 기록하여, 2019년도 득점률 96.869%에 비해 상승한 98.267%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여, 1.000점(만점 1.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각각 72.014%와 95.446%를 달성하여, 2.926점(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은 108.3%로 만점인 1.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지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부여된 벌점 0.5점으로 경영정보공시는 가중치 1점 중 0.9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3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망 구축사업, 철도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신성장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적절히 가지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영여건 및 정부정책과 국민니즈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철도 SOC 디지털화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00km/h급 초고속철도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도 확인된다. 다만, 다수의 사업이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성과가 바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개별 실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해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pool를 다수 발굴하여 운영하고 이들의 대표성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설정한 지표의 상당수를 달성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비계량지표의 목표수준 설정의 과정에서 전년도의 성과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실행과제의 추진계획과 이의 달성여부로만 제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교통편의 증대',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제고노력' 등 2개 지표, 철도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지표, 신성장 사업에서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지표이다. 평가 결과,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지표는 58.43%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3.47%로 전년의 80.61%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립공원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59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567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2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1)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9	7.383
	(2)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노력			7	6.678
	(3)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탐방문화 개선사업				
	(1) 대국민 환경보전의식 확산노력			5	4.692
	(2) 탐방문화 개선정책 추진노력			3	2.744
	(3) 탐방문화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		
	3.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7	6.945
	(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협업				0.600
	3.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TF를 구성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과제를 중장기 전략과제에 연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SWOT 분석,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체계성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 고유의 역량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이나, 단시간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가 대부분인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제의 개선 등 전반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 및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졸직,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 및 여성 관리자의 비중확대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로 기관 및 임직원이 유해·위험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립공원 탐방객 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의 확대,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매액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 예비감찰단 양성 등 조직개편 및 내부 견제시스템 체계화 등 노력은 긍정적이나, 직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역량모델링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존 역량모형의 보완이 필요하고, 저성과자 관리방안이 역량모델링 및 진단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급 지급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고 이를 연봉제 시행규칙에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직무급 본질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복리

후생 전반에 대한 개선 체감도가 전년 대비 향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열린 소통과 상시 협력체계 내재화를 통한 노사의 소통노력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의 운영원칙과 정립했으면서 내재화 노력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중장기 전략과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혁신 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혁신과제별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설정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립공원공단의 득점률은 89.44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3.817점에 비해 4.374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가중치 대비 87.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등 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등 기술개발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등 5개 지표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32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 탐방문화 개선사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 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공원자원 건강성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동물 복원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국민참여형 협력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공원자원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를 활용하고 자원봉사 통합 브랜드를 도입하여 한국형 시민보호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을 목적으로 탐방객 거리두기와 저밀접 탐방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환경에서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스마트 기술 및 ICT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사회적 가치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립공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반영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탐방편익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공원자원 보전·보호사업에서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노력' 등 2개 지표, 탐방문화 개선사업에서 '대국민 환경보전의식 확산노력', '탐방문화 개선정책 추진노력' 등 2개 지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에서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지표이다. 평가 결과,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지표의 득점률이 99.21%를 기록한 반면,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지표의 득점률이 82.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0년 득점률은 91.75%로 전년(91.9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립생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8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4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73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생태연구 사업				
	(1) 국가 자연환경보전정책 지원 성과			7	7.000
	(2)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생태계 관리 성과			6	6.000
	(3) 생태연구실적 활용 성과			3	3.000
	(4) 생태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2. 생태전시 사업				
	(1) 생태전시 사업 성과			8	5.693
	(2) 생태전시 사업 안전성 확보 성과			2	1.940
	(3) 생태전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생태교육 사업				
	(1) 생태교육 사업 성과			5	4.497
	(2) 생태교육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협업				0.600
	3.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립생태원은 전략체계 개선을 위해 전략 방향별 중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략 방향별 예산과 인력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래과제 도출에 있어 체계성을 보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전략방향과 경영목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정현원차 비율을 축소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한 생태모방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이나, 하위직급의 직급보조비에서 일부 차등이 존재하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채용과정 공정성에 관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성의 관리자 비중확대, 고졸직 및 무기계약직의 차별요소를 인지하여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취득하는 등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연계한 지역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시스템 도입 등 노력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 비중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부패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원거리 감사대리인 제도 도입 및 종합청렴도 향상은 긍정적이나, 인권 피해자의 보호시스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사관리 전략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핵심 가치 및 인재상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재수립하였으나,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의 체계성이 다소 미흡하여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간부직에 대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복리후생 제도 만족도와 직장 만족도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직장 만족도의 수치는 여전히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 소통 채널 내실화와 사각

지대 없는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노사협력 지수, 신뢰 지수 등 노사관계 지수의 수치가 조금 개선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혁신과제가 기관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혁신과제별로 기관 고유의 핵심사업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전략과제에 대비하여 혁신과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립생태원은 득점률은 91.78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2.425점에 비해 0.642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96.489%,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1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6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에서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 실적은 70.093%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경영공시 항목 대상 일제점검 결과 부여된 벌점 7.7점으로 경영정보공시는 0.4점을 득점하였다. 고객만족도는 달성도평가 제외기관으로 분류되어 결측 처리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립생태원은 '자연환경의 연구와 보전 및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여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생태연구사업, 생태전시사업, 생태교육사업의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실행,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SMART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정부정책기조에 맞춘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비계량지표 가운데 사업의 질적 성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며 지표별 성과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고 생태연구사업의 동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립생태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생태연구 사업에서 '국가 자연환경보전정책 지원 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생태계 관리 성과', '생태연구실적 활용 성과' 등 3개 지표, 생태전시 사업에서 '생태전시 사업 성과', '생태전시사업 안전성 확보 성과' 등 2개 지표, 생태교육 사업에서 '생태교육 사업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국가 자연환경보전정책 지원 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생태계 관리 성과', '생태연구실적 활용 성과'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생태전시 사업 성과' 지표는 71.16%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0.74%로 전년의 91.80%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B^+	3	2.91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26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자격 및 부과·징수사업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5	5.000
	(2)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4	2.614
	(3)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		
	2. 보험급여관리 사업				
	(1)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3	1.739
	(2)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4	4.000
	(3) 보험급여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건강검진·증진 사업				
	(1) 암검진 수검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5	4.958
	(2) 건강검진·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		
	4. 장기요양보험 사업				
	(1)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재가급여 이용 확대 성과			4	4.000
	(2)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환수 성과			4	2.763
	(3) 장기요양보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5.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				
	(1) 안전사고 감소노력			2	2.000
	(2)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1	C		
	6.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위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중장기 경영전략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과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에 있어 성과지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관 고유의 역량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확대, 고졸·청년·지역인재·한부모·다문화·탈북민 채용확대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졸직·정규직 전환은 처우개선 및 AI시스템 활용한 인재채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 전문인력 보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의 재난 안전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임직원의 안전관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목표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이전지역과의 상생노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비율 확대, 중소상공인의 조달 기회 확대 등 전반적인 노력이 긍정적이다. 윤리경영에 있어 ISO37001 운영 등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은 긍정적이나 성관련 비위로 직원 5명이 해임되는 등 성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구성원의 필요역량 및 교육수요자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성과지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준비금 적립률 목표 달성 이외에도 유동비율도 계획 대비 46.1%P 초과 달성하는 등 재무계획 대비 실적이 우수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장기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자구적인 재무 개선책을 더욱 창의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기본연봉을 유지하면서 월정 직무

비를 직무등급과 역할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설계하여 기준 급여에서 직무급 비중이 작고, 직무가치 평가 결과, 연공급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은 노사 상호 협력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20년 만의 노사합의를 통한 업무량 중심 지사 정원 재산정 합의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혁신전략의 전략 방향 설정에 따른 전략과제 수립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과제와 예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분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득점률은 97.456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685점에 비해 0.77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58.939%를 달성하여 미흡하였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19년 부채비율은 59.440%로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여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보험급여관리 사업, 건강검진·증진 사업, 장기요양보험 사업,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 등 5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정부정책기조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비계량 지표로 설정한 성과지표에서는 대부분 적절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급여관리 사업의 성과목표별 유의미한 성과로 연계되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기관평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경영평가단 지적사항, 국회·감사원의 외부평가, 언론이슈제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노력은 바람직한 성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류활동으로 미흡한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에 5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8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비중 확대 성과',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등 2개 지표, 보험급여관리 사업에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등 2개 지표, 건강검진·증진 사업에서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검진 사후관리 강화' 지표, 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재가급여 이용 확대 성과',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환수 성과' 등 2개 지표, 대국민 접점시설 안전관리사업에서 '안전사고 감소노력' 지표이다. 평가 결과,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비중 확대 성과',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재가급여 이용 확대 성과', '안전사고 감소노력'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지표는 57.9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7.34%로 전년(87.3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국토안전관리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96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83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1)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3	3.000
	(2)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			10	10.000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3	3.000
	(4)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2.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1)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안전 확보 성과			10	10.000
	(2) 싱크홀(지반함몰)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			5	5.000
	(3)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2월 기관통합이라는 도전적 변화에 대응하여 통합 과정의 관리 가운데 기관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통합 이후 새로이 요청되는 사업 분야의 역량 강화와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기관은 기관의 핵심사업인 시설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의무 강화를 통한 일자리 2,372명, 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일자리 297명을 창출하였으나, 향후 신규 사업의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후 검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종합만족도를 전년도보다 개선하였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구리시 지반침하사고와 평택물류센터 구조물 붕괴 원인 규명, 시설물별 위험공종 분류체계 마련과 위험공종 DB화 등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으나, 향후 복합재난에 대비한 대면·비대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업체와 24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15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기관은 전반적인 준법·윤리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승진제도와 연계된 승진후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설 및 교과목의 운영 및 현장근무자 특별승진 기회 등 개선의 필요가 있다. 기관은 2급 이상 간부직과 3급 이하 일부 특수직무 수행자에게 직무급을 설계·적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3급 이하 직원에게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또한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의 니즈발굴을 위해 조사결과를 적극 환류하여 실질적인 만족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자발적인 성금과 방역물품 기부, 지역농가 및 취약계층 지원, 비상경제체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토안전관리원의 득점률은 93.878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4.550점에 비하여 0.672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30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와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모든 세부지표에서 만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벌점 6.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0.5점 중 0.43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확보' 등 2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 사업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안전산업 육성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물 사고 제로화 유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능 개선 및 기술인력 양성 및 혁신기술 확산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본부별 점검 및 점검횟수 증가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대내외 환경 분석, 사회적 가치 고려 등의 적절한 체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 확보 사업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건설현장과 생활시설의 안전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지하)현장 사고 예방, 생활시설 안전·성능 개선

및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GAP분석 및 도전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지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성과 목표에 따른 적정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년 대비 예산증가에 따른 인력 편성의 편차가 다소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부분에 있어, 주요사업의 추진배경과 다소 관련이 없는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주요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성과 구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개발을 통한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도전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출·결과지표의 구성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 확보사업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예방',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활용도 향상' 등 3개 지표, 국민생활 기반시설 안전확보 사업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안전 확보 성과', '싱크홀(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노력과 성과'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의 97.94%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41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	0.993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6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7	6.427
	(2)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		
	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1)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7	6.855
	(2)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			6	6.000
	(3)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글로벌 성장기반 확대 지원사업				
	(1) 해외M&A지원 성과			2	1.954
	(2) 해외 취업지원 성과			2	2.000
	(3) 글로벌 성장기반 확대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4.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1)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7	7.000
	(2)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위기대응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전략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ESG 경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 전략이 기관 경영 전반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장의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활동과 투명한 인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역량과 실적 중심의 인사를 지속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근로자 대표 참관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목표 달성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화상 상담으로 수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였고, 발달 장애우와 디자인 콜라보를 통해 마스크 해외 수출을 도왔다.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경영을 강화하였으나, 기관 업(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분야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과 안전가치에 대한 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및 규범이 정비되었으나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등급 하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인력운영 방향성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관의 표준직무와 고유직무 도출, 연공성 완화와 생애 단계별 균형있는 보수체계 구축,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한 전 직원 복리후생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실현을 도모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비상대책반 설치, 디지털 추진 전담반 구성과 함께 기업규제·애로 응답센터를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맞는 선도적 혁신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만 현안 대응 수준의 혁신이 아닌 기관의 전략적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혁신 운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득점률 93.344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5.923점에 비해 2.579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가중치 3점 중 2.410점을 득점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국가 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은 및 는 전년과 동일하게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정부의 권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연중 상시 구매비율 점검 및 MRO를 통한 우선구매 유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전 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은 176.6%로 목표치인 213.7%를 하향 달성하여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총인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만점을 달성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벌점 1.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0.5점 중 0.46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과 무역진흥이라는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전략목표와 과제를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을 이끄는 평가대상과 그 실행과제가 전년과의 연속성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관은 대상 사업과 실행과제를 충분한 분석과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관은 4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의 양과 질을 늘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다양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노력과 성과가

다수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수출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기관이 설정한 목표치를 상당수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나 개별 실행과제에 있어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전세계 무역관으로의 원활한 공유 확산과 추진이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기관내 환류 활동이 조직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에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지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에서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 등 2개 지표, 글로벌 성장기반 확대 지원사업에서 '해외M&A지원 성과', '해외취업지원 성과' 등 2개 지표,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에서 '외국인투자지원 실적' 지표이다. 평가 결과, '성약바이어 확대실적', '해외 취업지원 성과', '외국인 투자지원실적 성과'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육성 및 신시장개척 지원실적' 지표는 91.81%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7.54%로 전년의 95.78%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도로교통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B^0	3	2.90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2.999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4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도로환경 개선사업				
	(1)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8	7.756
	(2) 도로환경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2. 운전면허사업				
	(1)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제고도			11	9.051
	(2) 운전면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3. 교통방송사업				
	(1) 교통·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 공익성 향상도			7	7.000
	(2) 교통방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4.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1)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5	4.187
	(2)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핵심가치를 포함한 구성원 인식조사를 개선하여 전략기획과 리더십에 환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내적으로는 조직문화 진단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취약지점을 접중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소통만족도를 개선해나가고, 외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정비와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운전자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전사적 노력으로 2,958명 창출, 사회적 일자리 전년 대비 29.7% 확대, 민간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 30.6%로 감소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고도화를 통하여 투명한 채용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사업본부별로 특화된 채용 분야의 세분화 및 직무평가도구의 정교화를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과공유제의 활성화, 판로지원, 핵심기술 보호, 동반 해외 진출의 노력을 도모하여, 대통령상 수상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기관은 인권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과제를 선정, 인권경영 기반 마련 및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환류 시 일반 국민의 참여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직무급 도입과 실질적인 직무평가 이행, 자체성과급 비중 확대, 연공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적합직무 발굴 프로세스 개선과 만족도 확인 등 제도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급 도입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노사협의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사협의체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연간 771만명 이상 방문하는 국민 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사적 비상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도로교통공단의 득점률은 94.339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7.800점에 비해 3.461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7.543%을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96.251%를 달성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60%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제한경쟁채용의 지속적 시행 등의 노력을 통하여 목표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등 6개의 세부평가항목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의 경우 99.488%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34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예방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도로환경개선’, ‘운전면허’, ‘교통방송’,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고 감소, 고령 보행자 사망자 수 감소, 인명 피해 심각도 최대 감소율 달성 등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의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교통사고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교통사고 분석기법 개발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개발, 운전면허 적성검사 모바일 문자고지 수신율 향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사회적 편의 증진을 위해 충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정책홍보 및 다양한 특집방송 제작, 신속한 재난안내방송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기여하였다. 특히 위험운전자 교육강화, 생애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안전운전 365문화 확산 등의 3개 지표 성과 수행을 통하여 장관상 및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의 환류활동이 체계적이며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에 대해 정책연계성과 사회적 가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근거로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노력, 이륜차 단속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 PM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PM 면호 도입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교통사고 심각도 개선실적' 지표, 운전면허사업에서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제고도' 지표, 교통방송사업에서 '교통·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 공익성 향상도' 지표,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에서 '운전자 법규위반 재범감소 교육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교통·재난 등 국민안전을 위한 방송 공익성 향상도'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운전면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제고도' 지표는 82.2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0.30%로 전년의 96.59%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0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452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46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79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 온누리상품권 유효 가맹점 확대			4	4.000
	(2)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7	7.000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4	4.000
	(4)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사업주기별 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과 재기지원			5	5.000
	(2)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과 성과			5	5.000
	(3) 사업주기별 소상공인 지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정책자금 수혜업체 영업지속률			6	6.000
	(2)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대 변화에 맞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목표 제약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기관은 정책자금의 온라인화 비중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특화된 신기술 접목과 경영혁신 지원, 데이터 기반의 성공적 창업지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관은 기관장 의지를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관리를 추구하였으나 혁신관련 지표는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과 재도약 노력,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반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기관은 점차 직무 중심의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채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지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행정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경영개선 지원을 수행하였고, 내·외부적으로 안전교육 강화와 전통시장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확대하였다. 기관은 전 직원 부패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채용 과정을 정비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개방형 직위제 및 전문직위를 확대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내부역량 분석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페이밴드 설정과 연공성 완화 노력,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단일화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디지털 여건 변화에 맞는 노사제도 운영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디지털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IT 전문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현안 대응 수준에 그친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득점률은 87.791점으로 2019년도의 득점률 94.133점에 비해 6.342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목표치를 달성하여 만점을 받았으나,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902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중치 1점 중 0.452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4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6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39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주기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등 3대 주요사업을 기관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주요사업의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 및 세부실행계획을 도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목표가 주요사업 중장기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 도출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정책금융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비대면화를 추진하였고, 모든 자금지원 기준 내 7등급 이하 지원제한 요건을

일괄 삭제하고 저신용자 특화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에 제한이 되는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 슈퍼, 스마트 공방, 스마트 상점 등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상 선정과 지급 내용,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과 성과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효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등 3개 지표, 사업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과 재기지원’,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과 성과’ 등 2개 지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사업에서 ‘정책자금 수혜업체 영업지속률’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99.73%)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체국금융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1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486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0	0.6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금융연구개발 사업				
	(1) 우체국보험 손해율 관리 성과			3	2.802
	(2) 금융연구개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2. 금융마케팅 지원 사업				
	(1)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			10	7.679
	(2) 금융마케팅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우체국보험심사 사업				
	(1) 24시간 이내 보장서비스 제공 성과			6	5.541
	(2) 유병력자 보험계약 유지 성과			7	7.000
	(3) 우체국보험심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4.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				
	(1)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5	4.301
	(2)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0**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우체국보험의 경쟁력 강화, ESG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 건설근로자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영성과를 창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신규사업은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기관의 적극행정으로 이루어낸 보험 환급금대출 금리 인하는 고객편익 제고와 기관의 안정적 수익확보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은 일자리 규모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급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친환경 금융 지원 및 환경보전 경영으로 연간 약 3억원을 절감하였고, 금융 간접투자 형태 환경보전 과제 발굴 및 정부 환경정책 참여 요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관의 재난 유형별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강화, 안전관리 TFT의 적극적인 운영,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인권경영지수 개발과 신고채널 통합 관리는 긍정적이나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2등급 하락과 윤리경영의 환류체계가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의 실무형 팀장제 도입 및 투-트랙 인사교류 실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및 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 성과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기관의 직무급 정착을 위한 내부의견 적극 반영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과 노사갈등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비상 대책반 구축 및 기관 내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의 혁신 방향성 설정과 혁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득점률은 89.118점으로 2019년 92.358점 대비 3.240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저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영향으로 가중치 3점 중 2.717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통합 지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직원 중 다수의 퇴사자 발생으로 가중치 1점 중 0.486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모든 세부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4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6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미평가 대상 기관으로 결측처리 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제시된 사업집행내용이 대체적으로 주요사업 및 성과목표와 연관되고 경영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환급금 금리상한 인하 및 우체국요양보험의 개발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공 금융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과 금융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의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실시한 후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청약심사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해당 단위사업의 인력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당해연도 실적이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환류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환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금융연구·개발사업에서 '우체국보험 손해율 관리성과' 지표, 금융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보험사업 성장 지원 성과' 지표, 우체국보험심사 사업에서 '24시간 이내 보장서비스 제공 성과', '유병력자 보험계약 유지 성과' 등 2개 지표,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 사업에서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지표이다. 평가 결과, '유병력자 보험계약 유지성과'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보험사업 성장지원성과' 지표는 76.79%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8.14%로 전년의 86.97%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우체국물류지원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D^+	3	2.07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B^0	3	2.934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0	0.2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우편물 운송사업(국내·국제운송)				
	(1) 운송품질향상			6	5.637
	(2)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6	4.394
	(3)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7	4.418
	(4) 국제물류사업성장률 (국제우편 항공물량 점유율)			4	3.746
	(5) 우편물 운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C		
	2. 우편물 발착사업				
	(1)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4	3.835
	(2) 우편물 발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3. 소포배달사업				
	(1) 소포배달사업성장률 (소포배달사업 점유율)			4	4.000
	(2) 소포배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0**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전 및 기존의 스토리 중심핵심가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해외 소포 주소 한글화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영효율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전사적 경영전략과 사업단위별 전략 간 연계성 강화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미래과제 선정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정현원차 비율 해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운송사업 인력 확대 등 노력은 긍정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한 갈등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 정규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기반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PDCA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사업자 지원 등에 노력하였으나, 기업 제로페이 실적의 확대 및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발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윤리경영위원회 활성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처벌 강화 및 우편물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의 핵심 성장사업과 현장·실무자 중심 인력배치 노력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MBO평가 시스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개선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 개정과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직무분석의 세부화, 그리고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 간 연계성이 약한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간 차별해소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충처리제도 개선 노력 등 노사협의체 운영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세부 혁신 실행과제별로 기관 고유의 핵심사업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전략과제에 대비하여 혁신과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여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득점률은 83.718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61.708점에 비해 22.010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가중치는 100% 실적을 획득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기관의 직무특성상 청년미취업자 채용, 청년인턴 채용 등이 어려워 가중치 1.4점 중 0.629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가중치 0.6점 중 0.446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66.792%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평가항목은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2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우편물 운송사업, 우편물 발착 사업, 소포배달사업 등 세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 가중치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을 적절

하게 배분하였고, SMART 분석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롤링 과정을 거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이 꾸준히 자체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환류활동을 전개하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송물량이 급증하고 운송 장애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송채널을 다각화하여 서비스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내 운송 경쟁력 강화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운송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은 실제 성과가 기관의 노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송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나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바람직한 성과로 판단되고, 우체국 택배 공유배달 및 농어촌지역의 택배서비스를 통해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에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지능화 물류센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술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 주도적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우편물 운송(국내·국제운송)사업에서 ‘운송품질향상’,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국제물류사업성장률(국제우편 항공물량 점유율)’ 등 4개 지표, 우편물 발착사업에서 ‘발착사업 오구분 감소율’ 지표, 소포배달사업에서 ‘소포배달사업성장률(소포배달사업 점유율)’ 지표이다. 평가 결과, ‘소포배달사업성장률(소포배달사업 점유율)’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운송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지표는 63.11%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3.97%로 전년의 92.98%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55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4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68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축산물품질평가사업				
	(1) 한우 품질향상 성과			7	7.000
	(2) 돼지 품질향상 성과			5	5.000
	(3) 축산물품질평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축산물이력사업				
	(1) 축산물 사육단계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6	5.980
	(2)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6	6.000
	(3) 축산물이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축산물유통사업				
	(1)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 성과			7	6.987
	(2) 축산물유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존의 축산물 품질 및 이력관리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에 더하여 유통 영역에서 단순한 사업 확대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공익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돋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축부터 상품까지 축산물 관련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정현원차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여 충원율 96.7%를 달성하고 채용 절차와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극복 고통 분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관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기관은 Global 축산 전문기관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인권경영시스템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및 과제실천, 그리고 인권 침해 구제 절차 고도화를 통하여 인권경영의 전략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관은 직무분야 교육내용이 현업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규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면적인 직무급제 도입을 이행하였고, 연공적 성격의 임금재원을 직무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에 외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노사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통채널을 확대·강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결과물을 원만하게 도출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과 방역물품을 기부하였고, 소비 장려 유튜브 영상 캠페인 실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득점률은 92.696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4.900에 비해 2.204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정부 권장 기준 각각 68% 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각각 80%와 100%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70%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평가항목은 모두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유통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축산물품질평가’, ‘축산물이력’, ‘축산물유통’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ASF 확산방지를 위해 품질평가인프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관은 축산물 이력사업과 유통조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력정보 및 유통 정보의 품질과 관리역량을 확대하고 폭넓은 대외협업을 통해 해당 정보의 활용도를 적극 제고하였다. 특히 계량 및 비계량 성과는 전반적으로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에 부합

하며, 학교급식 관련 사업 등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관리 관점의 개선이 요구되며, 새로운 사업추진에 있어 '수요자 관점'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일부 사업계획의 성과지표, 실행과제의 분류체계나 명칭 선정에 있어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측정기준 또한 사업의 성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요사업 계량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축산물품질평가사업에서 '한우 품질향상 성과', '돼지 품질향상 성과' 등 2개 지표, 축산물이력사업에서 '축산물 사육단계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등 2개 지표, 축산물유통사업에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한우품질향상 성과', '돼지 품질향상 성과',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축산물 사육단계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지표는 99.6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9.89%로 전년의 96.92%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한국가스안전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61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966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894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14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안전검사사업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7	3.393
	(2)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5	5.000
	(3)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성과			4	3.974
	(4) 안전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안전망구축사업				
	(1)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성과			4	3.884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3	3.000
	(3) 안전망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기업지원사업				
	(1) 기업지원성과			8	6.991
	(2) 기업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이라는 기관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조에 더하여 수소안전사업을 확장해나가는 등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한 간명한 전략기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대규모 대내외 인식조사 사업은 보다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그 신뢰성을 제고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그린 뉴딜 기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들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은 전사적인 노력으로 KGS형 일자리를 2019년 3,142명에서 2020년 3,456명으로 10% 증가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자가 퇴사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 및 불만 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증장애인 23명 포함 취약계층의 채용 전형을 우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5.87%를 달성하였으나, 고졸자 처우개선에서 승진제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기관은 각종 자연재해에 긴급복구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2020년 자연재난 유공 국민포장을 수훈하였다. 기관은 자금유동성의 지원 강화 및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다양한 대금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4급 이하 비간부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직무급을 설계하였고, 일부의 연공적 요소를 포함한 직무급제도를 보수규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피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관은 노사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였으나, 지역본부·지사와 본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자발적인 성금 기부, 방역물품 공급, 소상공인·전통시장·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득점률은 92.365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1.958에 비해 0.407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률 92.543점(만점 100점), 득점 6.478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94.891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83.871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 대비 상승한 79.36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만점을 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93.22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만점을 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은 46.913%의 실적을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894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로 총인건비 관리지표는 정부의 인상률 상한인 2.8% 이내 1.657%로 집행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결과 벌점 1.7점을 부여 받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0.700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와 사회적가치기여도를 반영한 지표로 국민평가 지표는 0.44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안전검사’, ‘안전망 구축’, ‘기업지원’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교육·검사 등을 포함한 뉴노멀 대응체계 및 원격해외사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적극행정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 수소안전의 미래를 위한 수소안전사업들을 추진하고 가스안전분야의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의 다양한 신사업 영역을 개척·지원하였다. 특히 민간의 가스안전역량 강화효과, 일자리,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의 복합적인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래지향적 신사업과 기본 가스안전사업에 관련된 과제들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스안전 관련 영세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이해관계자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안전검사사업에서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미검사 가스시설 감소성과' 등 3개 지표,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소외계층 안전망 구축성과',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등 2개 지표, 기업지원사업에서 '기업지원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국민 취급부주의 사고 감소성과'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지표는 48.4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4.65%로 전년의 95.3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한국고용정보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4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	0.77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4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562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79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1) 워크넷 활용도			6	4.821
	(2) 보안무사고 달성 노력			2	2.000
	(3)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2. 미래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1) 직업선택 및 진로설계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성과			8	8.000
	(2)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1)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			8	7.428
	(2)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1)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7	6.488
	(2)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전략과제를 재편하였고, 가치체계 점검을 실시하여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변경하였다. 다만, 변경된 비전과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현원차 관리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청년인턴의 실제 고용과의 연계, 기관 고유의 역량을 활용한 민간일자리 창출모델의 추가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확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블라인드 채용제에 대한 피드백 평가 확대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PDCA 기반 관리 프로세스가 정착 및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기관과 임직원이 유해·위험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순환함으로써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충청 공공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지급의 확대, 공공기관 합동 투어링 채용설명회 시행 후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효과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혁신기획단 조직 구축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기관이 지원부서 인력 비율을 13% 수준으로 대폭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경영전략의 매칭 미흡 개선 및 교육의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작성과 직무 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각 직무에 대한 직무등급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전 직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이 요구된다. 또한, 비간부직의 직무기술서 완성도 제고 및 직무평가 기준의 세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기관이 금전적 복리후생제도와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힘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지역사회 지식 나눔 등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기관은 노사관계에 있어 신 경영전략을 반영한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노사관계 수준 만족도는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기관은 혁신 과제별로 기관 고유의 핵심사업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전략과제에 대비하여 혁신과제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의 득점률은 82.84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2.542점에 비해 9.699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의 하락과 저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영향으로 가중치 3점 중 2.400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적 통합 지표는 가중치 1점 중 0.770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여성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산촌 생삼품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은 만점을 달성한 반면 그 외 세부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중치 3점 중 2.562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 2.8%를 준수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39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의 내용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전략연계성, SMART 분석 등을 통해 성과목표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벤치마킹, SWOT 분석

으로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으나 일부 비계량 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근거를 정부정책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환경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일자리포털의 고도화 사업으로 지능형 고용서비스 'The Work' 고도화를 진행하였고, 직무역량 기반 일자리 매칭 자동화에 필수적인 직무데이터 사전을 구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지원하였다. 다만, 추천 일자리 취업건수 증가나 온라인 취업건수 증가가 알고리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구인 구직 정보의 오류율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워크넷의 콘텐츠 품질을 높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표준직무기술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채용공고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간 노동시장 고용동향지표를 분석하여 이를 정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고,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받도록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간접성과 전체를 기관의 추진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성과달성 과정에서 기관이 수행한 역할과 기능의 범위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에서 '워크넷 활용도', '보안무사고 달성 노력' 등 2개 지표, 미래 산업구조 변화 대응 강화사업에서 '직업선택 및 진로설계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성과' 지표,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에서 '고용정보 수집·분석·제공 성과' 지표,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및 활용률 제고사업에서 '국가고용정보망 운영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직업선택 및 진로설계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성과'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워크넷 활용도' 지표는 80.35%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2.70%로 전년의 91.6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한국관광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83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875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3	2.955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6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1)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한시장 확대			7	6.164
	(2) 고부가 관광마케팅 강화				
	㉮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6	4.393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4	3.140
	(3)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국내관광 활성화				
	(1)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성과			7	7.000
	(2) 관광복지 확대 성과			2	2.000
	(3) 국민안전			2	1.920
	(4)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		
	3. 관광산업 활성화				
	(1)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3	3.000
	(2) 관광산업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미래 대응방향을 '스마트관광 선도', '관광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국민 관광복지 실현'으로 도출하여 기관 역량을 재편하였다. 기관은 기관장 주도 하에 K-방역 기반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지수를 활용한 언택트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관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기업 피해극복 및 맞춤형 성장지원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관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관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지역의 관광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인프라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기관은 회사 내에서 친환경 경영활동을, 지역 내에서 환경관광 조성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의 경력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안전 만족도를 향상시킨 실적이 인정된다. 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제도 개선 및 관광업계 종사자 윤리·인권교육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준법·윤리경영체계 운영을 위한 노력과 종합청렴도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조직 간 기능과 역할 정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 개선, 디지털에 기반한 조직개편, 업무 활동과 노사관계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관광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정비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관광공사의 득점률은 94.991점으로 2019년도의 득점률 93.858점에 비해 1.133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률은 만점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에 비해 하락하여 가중치 3점 중 2.831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중치 1점 중 0.875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55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6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주요사업과 대상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관광업계,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입국 중단, 비대면 소통 증가, 관광업계 해외사업 중단 등 경영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과 목표에 변화를 주고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의 평가 대상 사업을 수정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이 주요사업 별로 선정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기준으로 '20년도 사업계획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이 확인되며 사회적 가치 달성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기관의 대상사업 및 실행과제와 연계해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관의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비계량 성과가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정성적, 질적 평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해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환류 과정에서 점검한 내용을 우수성과와 개선과제로 구분해 각 점검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연계한 환류 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한시장 확대',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등 3개 지표, 국내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관광복지 확대 성과', '국민안전' 등 3개 지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표이다. 평가 결과,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성과', '관광복지 확대성과', '관광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성과'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MICE참가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지표는 73.21%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9.09%로 전년의 96.88%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E^+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98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사업				
	(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6	5.603
	(2)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4	4.000
	(3)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2	2.000
	(4)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1) 제작결함조사율			3	3.000
	(2) 자동차안전도평가 소비자 활용 향상도			3	3.000
	(3)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10	9.933
	(4) 자동차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1)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3	3.000
	(2) 철도교통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D^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영 및 핵심가치 관리 성과 측정을 위한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구성원으로부터의 컨설팅 활동으로 다양한 혁신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 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기능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은 구성원 인식조사 고도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포함한 관리적 가치들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 상 협업을 주도하며, 도로·철도·항공 사업 간 균형잡힌 미래전략을 수행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직무역량 우수인재 확보와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의 양립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안전속도 5030 조기 확산과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성 개선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조성으로 보행자 사고율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3천명 이상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204명을 지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기관은 권익위의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대다수의 3급 이하 비간부직원에게 실질적 직무급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노사당사자의 변동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및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득점률은 97.374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7.967점에 비해 0.59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세부평가항목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9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39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안전관리', '철도교통안전관리'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안전속도 5030 정책홍보 및 기술지원,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사고율 감소, 운소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확대한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결함 문제 대응을 위한 결함 발굴 및 리콜 수행, 자동차 검사역량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을 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세부 추진내용과 사망자수 및 보행자수 감소 등의 성과 지표 간의 상관성을 구체화하고, 한정된 투입자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내용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 기관의 사업내용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지표 설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 모니터링, 성과점검과 평가,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 체계적인 환류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사업에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교통안전 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등 3개 지표, 자동차안전관리 사업에서 '제작 결함 조사율', '자동차 안전도 평가 소비자 활용 향상도',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등 3개 지표,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에서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지표이다. 평가 결과, '교통안전점검회사 사고율 감소실적', '사업용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실적', '제작결함조사율', '자동차 안전도 평가 소비자 활용 향상도', '열차안전운행서비스 제공' 등 5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지표는 93.39%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8.5%로 전년의 94.13%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한국국제협력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91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2.952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1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별프로그램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			9	9.000
	(2)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7	6.703
	(3) 국별프로그램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파트너십 프로그램				
	(1)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7	7.000
	(2)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1)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			8	7.611
	(2)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이행부서 명확화를 통해 전략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미래과제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치가 대상사업 및 사업단위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표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개발협력 인재 5만명 양성' 등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된 일자리 전략 하에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과제 발굴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자회사 설립 이후 직원의 만족도 제고 등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과 업무적합성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사회적 배려대상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공무직 만족도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AI면접의 이용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으나, 재난 안전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임직원의 안전관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목표화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공정한 사업계약 이행을 위해 공정서약서 도입 및 협력업체의 부담완화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의 협력이익공유·성과공유 등 신규사례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하다. 윤리경영에 있어 종합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인증 획득, 원조투명성지수 평가등급 향상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사업평가 보고서 공개비율 확대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대외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였으나, 인적자원개발 전략목표가 없으며, 성과지표도 성과타당도 확보에 미흡하므로 전략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도출 및 직무 가치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직무등급분포에 있어서 같은 레벨에서 직무 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전 직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도 요구된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

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며, 특히, 대국민 온라인 신고 채널을 신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경영진-노동자대표-실무부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참관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가정양립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점에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관은 ODA 사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ODA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평가까지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혁신과제에 투명성을 반영하여 ODA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의 득점률은 98.096점으로 2019년도의 득점률 97.975점에 비해 0.12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성과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9.559%를 달성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6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에 중소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 세부지표별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구매는 76%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무벌점으로 가중치 1점 중 1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1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별 프로그램,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사람, 평화, 번영, 환경 등의 4대 핵심가치와 국정과제와 연계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대상사업의 명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부정책과 국민니즈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투입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과 대상사업들을 선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지표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연계성을 제고하여 구성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와 실행과제는 주요사업 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비계량지표의 목표수준 설정 과정에서 전년도의 성과수준과 그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은 개별 실행과제의 추진계획과 이의 달성여부가 제시되는 지표들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국제협력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국별 프로그램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와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등 2개 지표, 파트너십 프로그램사업에서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지표, 개발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사업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와 ‘개발협력 파트너 재원 유치액’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97.79%로 전년의 98.73%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한국국토정보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D^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72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617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2.983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66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지적사업				
	(1) 측량처리기간 단축			9	7.306
	(2) 측량민원 감소			9	8.143
	(3) 지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2. 지적재조사사업				
	(1) 지적불부합지 해소율			5	4.820
	(2) 지적재조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3. 공간정보사업				
	(1)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4	4.000
	(2) 공간정보 표준화율			4	4.000
	(3) 공간정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협업				0.020
	3.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연차별 경영목표치를 명확화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한 경영목표를 전략과제에 연계하는 등 경영전략 체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다만, 대내외 여건 분석, SWOT 분석,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LX형 한국판 뉴딜 일자리 구축, 혁신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정규직 전환자와 계약직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전반적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제 안착을 위한 전문면접관 양성 등의 노력과 함께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의 준수 및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관의 임직원에게 내재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전사적인 재난·안전 의식 문화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한국판 뉴딜사업 핵심과제와 지역협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 비율의 확대 및 소상공인 물품구매액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부패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등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 일반에 있어 경영전략과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개인별 역량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 추천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서 부족역량에 대한 보완과 성과에 따른 단계적·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도출 및 직무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직무등급 구분의 기준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에 있어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며, 그 결과 직원 복리후생 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 실현을 통해 기관의 노사상생지수가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합리적인 목표치 제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원들의 혁신내재화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팀 단위, 개인 단위의 혁신 보상체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과제 발굴·추진 등 업무혁신내용을 평가한 후 우수직원에게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되도록 체계화하는 등 혁신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득점률은 86.809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1.292점에 비해 4.483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이나,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실적이 저조하여 가중치 3점 중 2.720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미흡하여 가중치 1점 중 0.617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8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9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2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63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종전과 같이 지적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SMART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정부정책기조에 맞춘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의 3개의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는 각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주요 사업의 성과창출은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지적측량업무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하여 측량실명제, 측량성과도 고유번호,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시급을 요하는 국민의 측량업무를 자체 행정처리절차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나아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 점은 기관의 성과로 판단된다. 기관이 국토이용현황조사체계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 토지정보 구축, 자동 영상 인식률 향상, 국토조사와 지적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한 것 등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지적사업에서 ‘측량처리기간 단축’, ‘측량민원 감소’ 등 2개 지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불부합지 해소율’ 지표, 공간정보사업에서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율’, ‘공간정보 표준화율’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공간정보 민간성장 지원률’, ‘공간정보 표준화율’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측량처리기간 단축’ 지표는 81.1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1.19%로 전년의 98.30%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B^0	3	2.99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708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2.988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69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8	8.000
	(2) 수출시장 다변화 국가 수출성과			2	2.000
	(3)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1)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4	4.000
	(2) 산지유통활성화			2	2.000
	(3) 유통시설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2	2.000
	(4)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11	11.000
	(2)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4. 식품산업 육성사업				
	(1)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2	2.000
	(2) 식품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시민참여				1.000
	3.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상위 전략체계와 하위 실행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사업 단위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정현원차를 축소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직거래 장터 운용 및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무직·업무직 정규직 전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AI 서류평가 시스템 도입, 청년·고졸자·지역인재 채용 등을 노력하였으나 장애인·보훈 고용 목표제 준수 및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을 수급업체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문책 규정을 제정·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아차사고 발굴제도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aT형 모범거래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 전담조직, 내부실행조직, 자문기구 등 조직체계 정비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보공개율 확대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전략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핵심성과지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KPI와 하위 실행과제 성과목표와의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도출 및 직무 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간부급에 한하여 직무급이 도입된 점과 직무등급 설정 방식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운영에 있어서 청년 채용 목표의

초과 달성과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률 확보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임금피크 3년차 공로연수 부여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신노사관계 발전방향 제시에 따라 노사합의체 운영을 통하여 모자회사 산업재해 zero 등에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혁신계획 수립 시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고 있으며,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으나, 혁신과제를 설정할 때 중장기적 포지셔닝도 고려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단기목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4.391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3.583점에 비해 0.808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94.968%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62.662%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생산품 구매지표를 제외한 6개의 지표에서 모두 100%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인상률은 2.511%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벌점 1.6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7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9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주요사업으로 농수산물수출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농수산물 수급안정사업,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사업별 지표는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자원배분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수출진흥을 통한 농어가 소득제고, 유통개선 통한 국산 농산물 안정 공급체계 구축, 수급안정 위한 국산 농산물 자립기반 확보,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원료 사용 증대 등의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 지적사항 및 자체평가 결과 반영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한국판 뉴딜과 같은 정부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활동을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인 농산물 수출지원사업과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연계하여 과잉생산된 마늘에 대한 수출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국내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급안정에도 성과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기관의 성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평가지표로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국가 수출 성과,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산지유통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 성과, 농업과 식품 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등의 지표 구성은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이해되고, 기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통시설 국민안전사고 감축 노력과 같은 일부 사업은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사업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에서 ‘농어가 소득연계품목 수출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국가 수출성과’ 등 2개 지표,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산지유통활성화’, ‘유통시설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등 3개 지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지표, 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의 97.9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한국농어촌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B^0	3	2.64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0.459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E^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04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 재해대응능력 제고			6	5.756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2. 농촌용수관리사업				
	(1) 농업용수 관리 노력도 제고			9	9.000
	(2)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2	1.797
	(3) 농촌용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3. 농지은행사업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9	6.401
	(2) 농지은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1)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5	4.733
	(2)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략체계 개선을 위해 'KRC 농어촌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수행주체를 명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에 있어 성과지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정현원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일자리 확대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규직-전환자-계약직 간의 복리후생비 개선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제 확대,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확대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채용목표제의 준수 및 무기계약직의 보수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 우선원칙을 확립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여 인명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관의 사망사고가 수급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위험성평가를 내실화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체험키트 판매, 농촌관광랜선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의 확대 및 사회적 협동조합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 다양한 내부견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기관의 간부직원이 부패비리에 연루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경영전략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인재양성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 전략 달성을 위한 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KPI 설정이 필요하며, 성과타당도에 기반을 둔 KPI 고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있어 기관은 경영개선 T/F 운영을 통한 적자원인분석과 분야별 손익개선 과제 24개를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점검 정교화 및 위기 대비 노력으로 20년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도출 및 직무 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비간부직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직급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사협의 및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기관은 정부방침을 준수한 예산집행 및 절감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며, 그 결과 복리후생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기관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관한 노사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때,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의 다양성과 참여 인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득점률 89.120으로 2019년도 득점률 94.162점에 비해 5.042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은 95.810%,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85.745%,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7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4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51.716%로 미흡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8개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은 33.304%로 만점인 1.000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관리에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3.000점(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벌점 3.1점을 부여 받아 가중치 1점 중 0.600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1점 중 0.44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주요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그리고 농어촌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이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SMART 분석과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롤링 프로세스를 거쳐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벤치마킹, SWOT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적절히 연계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DATA 기반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농업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그테크 기반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 시범사업과 첨단 무인기계화 농업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농경지 침수 최소화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준공을 확대하고, 농업용 배수펌프장의 사전경보 및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 및 확대 보급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바람직한 성과로 판단된다. 기관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재난 피해농가에 대한 임차료 감면과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진입, 성장, 은퇴에 걸쳐 주기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농업경영효율화를 위해 공공임대 농지매입 외에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 취약계층 역시 여성농업인, 다문화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재해대응능력 제고’ 지표, 농촌용수관리사업에서 ‘농업용수 관리 노력도 제고’,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등 2개 지표, 농지은행사업에서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지표, 농어촌 활력증진사업에서 ‘농어촌마을 활력 제고’ 지표이다. 평가 결과, ‘농업용수 관리 노력도 제고’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지표는 71.12%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9.31%로 전년의 99.20%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2.977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24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전파관리 강화				
	(1)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10	10.000
	(2)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8	7.900
	(3)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3	3.000
	(4) 전파관리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B^{0}		
	2.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활성화				
	(1) 시청자만족도 제고 노력			2	1.915
	(2)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3	3.000
	(3) 스마트미디어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3	3.000
	(4)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3. 기금운용관리 강화				
	(1)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2	1.604
	(2) 기금운용관리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기관의 R&R을 그린뉴딜·사회적 책임 강화까지 확대하여 재정립한 점, 소형선박 해상인명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SOS 장비 개발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 기금관리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 수익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기관은 기관장 리더십 지향점을 반영하여 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하고, 비전 인식도와 핵심가치 공유도를 상승시켰다. 기관은 디지털 뉴딜 사업 증가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관 내부 갈등, AI 기반 채용제도, 비수도권 인재 채용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가 목표를 초과달성한 점과 환경관리조직을 재정비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 강화, 전문 보건 인력 상주의 메디케어센터 오픈,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등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으나 청렴도 등급의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요구된다. 기관은 미래전략 상설팀 신설 및 분야별 전담조직 운영과 함께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전략과 인력 운용 방향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 재배치의 객관적 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기관은 공무직과 임금피크제 개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강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노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의 미래전략팀 및 전파자원관리단을 신설하고 협업 MOU 체결을 통한 혁신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혁신제안에 대한 환류 체계 정비 및 구성원들의 혁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득점률은 96.730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967점에

비해 0.237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는 모든 세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중치 1점 중 0.9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77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8%를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4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주요사업과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예산, 인력, 정책 중요도, 사회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도출한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전자파 불안감 해소 성과 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 지표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전국 5G 이동통신 기지국 확대 및 비수도권 이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저비용,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를 선제 공급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방송제작사의 방송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한 것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사업과 평가 대상사업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주요사업 별로 선정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노력과 관련된 성과들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비계량 지표의 수정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환류 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수립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센터, 빛마루방송 지원센터 등의 센터 관리나 다양한 콘텐츠 지원 등의 사업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전파관리 강화사업에서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국민안전 관련 무선국검사 강화',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등 3개 지표, 방송콘텐츠 및 스마트미디어활성화사업에서 '시청자 만족도 제고 노력',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스마트미디어 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등 3개 지표, 기금운용관리 강화사업에서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이용환경 개선 노력도', 사회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관리 성과',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강화 성과', '스마트미디어 분야 사업화 지원 성과'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는 80.20%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8.13%로 전년(98.2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C	3	2.90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895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2.971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94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보훈의료 질 향상 사업				
	(1)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11	10.068
	(2) 보훈의료 질 향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1)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10	8.978
	(2)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보훈복지사업				
	(1) 보훈요양원 입소자 호전·유지율 상승 노력과 성과			6	6.000
	(2) 보훈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4.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1)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약감소율			4	3.822
	(2)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D^{+}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경영목표, 전략방향, 전략과제를 재편하였고, 가치체계 점검을 실시하여 비전 및 핵심가치를 변경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비전과 핵심가치의 잦은 변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정현원차의 축소 및 업무지원직에 대한 임금 및 수당에서 형평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제 안착을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확대하고 채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사무 행정관리직의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조직 체계도에서 총괄조직과 소속기구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기에, 해당 조직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속기구별로 구성된 안전조직을 본부의 안전조직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밀착형 협력사업 추진 및 강원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구매액 확대, 공정경제 확립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등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다. 기관이 윤리경영위원조직 제도 정비 등 내부통제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내부청렴도 향상 및 조직 내 소수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구성원 핵심역량 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계획 수립·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의 감소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사교류와 특별승진은 근거조항만 신설하고 실적이 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기관이 실시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내용은 직무 중심 보상체계로의 이행 또는 기반 조성과 거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운영과 설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활용방안은 보다 적극적

으로 기관차원에서 발굴·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대한 노사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제도도입 전단계의 내재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기관은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득점률은 93.148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2.925점 대비 0.223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실적은 100%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51.786% 달성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대비 14.908%p 감소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80%대 실적을 유지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98.95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100% 달성하였다. 기술개발 생산품 실적은 87.360%, 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은 97.769%를 달성하였다. 총인건비 관리는 정부 총인건비 상한률 2.8% 이내 상승을 준수하여 만점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3.5점으로 평점 60점, 득점 0.6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는 평점 68.357점으로 득점 0.34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유·가족 진료, 의학적 정신적 재활로 자립정착 도모, 복지시설 운영으로 복지증진 기여'라는 설립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여

보훈의 질 향상 사업,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 보훈복지 사업,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였다. 기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 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SV-SMART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4개의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확진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및 전국 보훈병원 인프라 활용 요구가 증가하였다. 기관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을 통해 공공의료 책임진료 수행의 필요에서 보건의료 체계 붕괴 방지를 위한 확진 환자 전용 병상을 신속히 전환하여 치료병상 총 273개를 운영하였고, 확진 환자 총 8천여 명을 전담 치료하여 재난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책임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입소자 분석을 통해 다빈도 질환·증상에 대한 케어 역량을 강화하고, 잦은 외부 병원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한 원외처방전 발급 제도 도입, 보훈요양원 내 전문요양실 운영으로 외래방문의 감소, 원격협진의 증가, 의료·요양간호 처치 증가, 건강 악화지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보훈가족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보훈의료 질 향상 사업에서 ‘보훈의료 질 향상 성과’ 지표,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사업에서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지표, 보훈복지사업에서 ‘보훈요양원 입소자 호전·유지율 상승 노력과 성과’ 지표,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사업에서 ‘통합서비스 수혜대상자 투

약감소율’ 지표이다. 평가 결과, ‘보훈요양원 입소자 호전·유지율 상승 노력과 성과’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보훈의료 공공성 및 편의성 증진 성과’ 지표는 89.7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3.12%로 전년의 대비 91.4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51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85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1)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5	5.000
	(2)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4	4.000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9	9.000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2. 보건의료정보화 운영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성과			4	4.000
	(2) 보건의료정보화 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3.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1)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9	6.472
	(2)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출입명부(KI-Pass)를 개발하여 초기 K-방역에 기여한 점과 AI를 활용한 바우처 부정수급 심사 자동화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주 변경되는 핵심가치와 내부직원의 사회적 가치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관의 고민이 요구된다. 기관의 금융재산조사 방식 혁신으로 수급자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인정된다. 정보화 기능의 심화로 기관은 특히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맞는 직무 중심 인재 채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정부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선과 ISO45001 인증 획득 추진을 통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였다. 기관의 ISO37001 인증 획득 및 일상감사 자율준수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등급이 하락한 것은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과 유형별 임시조직 활용을 통해 경영 현안 대응을 강화한 점은 인정되나 성과관리 제도 만족도 개선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기관은 상위 직무자의 보상 강화와 하위직급자의 보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직급별 교육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사회보장서비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은 바람직하게 평가된다. 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인 혁신 동기부여 촉진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득점률이 93.957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225점에

비해 2.268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도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51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에서는 벌점 9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5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차세대 구축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운영부서 개편 및 차세대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차세대개발본부와 차세대구축반 운영에 있어 협업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PMO) 조직을 신설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회보장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쌍방향적이며 고객친화적인 신규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020년도 자체평가 절차와 내용, 평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그리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병행하여 우수 및 미흡 평가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기관은 자체평가에서의 미흡등급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환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사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수 및 미흡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의 정량적, 정성적

기준 외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표에 포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과 결과들을 보다 면밀히 진단, 평가하여 우수, 미흡 판정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등 3개 지표, 보건의료정보화 운영사업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성과' 지표, 사회·보육 전자바우처 운영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의뢰 활성화 성과', '공공부조 부적정 수급 예방 성과',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성과'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사회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강화 성과' 지표는 71.91%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1.85%로 전년의 96.67%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92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978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99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29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 지원 강화				
	(1)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9	9.000
	(2)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3	3.000
	(3)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6	5.675
	(4)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 지원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C		
	2.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1)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5	5.000
	(2)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3	3.000
	(3) 산업기술개발장비 활용촉진 성과			5	5.000
	(4)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회적 책무와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가치 지향점이 구체화하도록 가치체계를 개선하였다. 기관의 대·중소기업 우수기술 나눔 확대 노력으로 수혜자가 많이 증가한 점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확대 지원과 위기산업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역량강화 교육은 보상 성격에 머물지 말고 조직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확대 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 참관제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관은 민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창출된 기관 일자리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한 점과 환경 경영체계 구축 및 환경보호 실천, 그린뉴딜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활성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 수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수요 발굴에 대해서도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의 윤리경영 관련 규범체계 정비 및 부서평가 시 사업비 정산이행률 지표 도입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청렴도 등급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의 산업지능화 추진 전담부서 신설 등 경영전략과 연계한 조직개편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관리의 수용도 제고 및 교육의 현업적용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의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도출, 복리후생제도 개선, 임금피크제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와 규제애로해결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더욱 효율적인 소통 채널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득점률은 97.31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0.600점에 비해 6.713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 중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가중치 3점 중 2.920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 실적에서는 1점 만점 중 0.978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99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는 벌점 0.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9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0.5점 중 0.39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SE) 지원을 통하여 지역상생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사회적 책임실현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역혁신 거점기관에 대한 조직역량 및 R&D 역량진단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부적 현황파악 및 분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주도의 맞춤형 R&D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원활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산업 전략에 따른 하향식, 정부주도형 과제 발굴의 노력과 함께 기반구축사업 이해관계자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 내재화할 수 있는 상향적, 수평적, 전략적, 중장기적 참여형 정책 발굴모형 개발과 집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체평가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평가적 관점을 활용하여 보다 세밀한 시스템 성과관리지표 개발과 함께 정성적, 정량적 평가 지표들을 명시화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일자리 창출형 R&D 기업지원 강화사업에서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등 3개 지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활용촉진 성과' 등 3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R&D과제의 특허등록 성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나눔 이전성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활용촉진 성과' 등 5개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기술 전문인력 취업성과' 지표는 94.5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4.58%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한국산업단지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98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3.000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6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산업단지관리운영 사업				
	(1)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실적			10	10.000
	(2) 산업단지 안전 관리			4	4.000
	(3) 산업단지관리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기업성장지원 사업				
	(1) 기업성장지원서비스 수혜기업 매출 향상 실적			6	6.000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실적			6	6.000
	(3) 기업성장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산업입지조성 사업				
	(1) 산업단지 미분양률			5	5.000
	(2) 산업입지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디지털·그린·휴먼 3대 전략을 토대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과 수요자 맞춤형 공유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의 SWOT 분석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적극 관리하여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관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지원에 따른 간접 일자리 창출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의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전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청년 인턴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취업연계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기관은 전사적 안전가치를 강화하고,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ISO45001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관의 청렴자기주도학습 추진 및 자율준수 체계 확립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의 등급 하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관리 개선 과제를 수행한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단위조직의 역할 및 책임 재정립과 교육의 현업적용도와 구성원의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차입 유동성관리와 목표 부채비율을 초과 달성하였다. 기관의 직무급 도입, 근로자 처우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조정 등이 인정된다. 기관은 스마트그린산단 추진방안 수립 및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보다 객관적이며 계량적인 접근의 혁신 수준 진단과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득점률은 99.592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146점에

비해 3.446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지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목표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8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모든 세부지표 7개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 지표의 2020년 부채비율은 44.1%로 목표치인 55.3%를 하향 달성하여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으며, 총인건비 인상률도 인건비 인상률 2.8%를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 공시 점검 결과는 벌점 0점으로 만점을 득점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0.5점 중 0.46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산단안전환경강화사업을 산단환경개선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작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세부사업들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점증적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소 낮게 산정된 사회적 가치의 비율도 본 사업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세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함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중점애로사항들을 자체 지원사업 및 정부·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여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부분도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자체진단 및 자체평가의 결과들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보다 분석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환류활동을

추가하여 사회적 가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문제점-해결방안-추진계획 반영-개선효과 등으로 환류활동의 분석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업단지관리운영 사업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실적', '산업단지 안전 관리' 등 2개 지표, 기업성장지원 사업에서 '기업성장지원서비스 수혜기업 매출 향상 실적',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실적' 등 2개 지표, 산업입지조성 사업에서 '산업단지 미분양률'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의 93.4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83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0.7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0		
	㉯ 재난 및 안전관리	4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2.953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79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사고·사망재해 예방				
	(1) 사고·사망재해 감소				
	㉮ 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6	5.300
	㉯ 사망재해 감소			9	7.839
	(2)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3	3.000
	(3)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3	3.000
	(4) 사고·사망재해 예방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C		
	2.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1)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4	4.000
	(2)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3	2.501
	(3)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안전문화 확산사업				
	(1)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3	3.000
	(2) 안전문화 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안전투자사업을 유치하여 향후 미래사업과 성과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은 건설업 등 안전취약지점에 대한 특별기획점검 확대와 점검 실효성 확보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영역의 성과를 개선하였다. 다만 기관은 구성원 인식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안전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은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상반기 125명을 채용하였고, 시간선택제 정착,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2019년도 541명에서 2020년도에 9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기관은 재난대응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탑재한 스마트 지휘 차량을 도입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나,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고DB와 연계된 체계화된 빅데이터 활용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울산페이 3.26억 원의 사용, 지역농산물 직판매장 품목 10종 확대로 지역 상생에 기여하였다. 기관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은 비간부직의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외부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노사전략 수립 등 노사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천사고현장 등 현안대처에 노사간 긴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영세사업장과 대면노동자를 대상으로 30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긴급 구매 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득점률은 89.470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4.217점에 비해 4.747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99.925%, 19.855%를 달성하여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40%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구매 등 6개 분야 우선구매 실적 및 재정조기집행 실적에서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은 76.286%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39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고·사망재해예방', '직업건강활동 강화', '안전문화확산'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팬데믹 확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각지대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확산·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화학물질 자가측정 시스템,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시스템(MSDS), 상담노동자 보호방안 등의 체계적인 직업건강 보호대책 수립 등 직업건강활동 강화를 위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기관이 추진

하는 다양한 시범적 성격 사업들의 지속가능성, 연속성, 확장가능성 등을 기관의 자원 및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반적으로 2020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기관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관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중복안전점검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사고·사망재해 예방사업에서 '사고·사망재해 감소(중상해 사고재해 감소)', '사고·사망재해 감소(사망재해 감소)',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등 4개 지표,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에서 '특수건강진단 수진율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등 2개 지표, 안전문화 확산사업에서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율', '위험성평가 컨설팅 후 인정 연계율',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 작업환경측정 이행률' 지표는 83.3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2.39%로 전년의 94.05%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84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03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33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질 관리 성과			8	6.632
	(2) 청년 취업지원 성과			7	5.261
	(3)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2. 국가자격운영				
	(1) 국가자격취득률			6	5.677
	(2) 국가자격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외국인고용 지원				
	(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5	4.488
	(2) 외국인고용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글로벌 일자리지원				
	(1) 해외취업지원사업 성과			5	4.782
	(2) 글로벌 일자리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관 주요 사업인 국가자격 시험에서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超부처적인 노력과 타 기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비전내재화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장 경영성과 지표의 일부는 개선이 요구되며, 미션과 비전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기관의 재직자 교육 훈련은 고용안전에 기여하였지만 보다 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기관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목표 달성도가 높으며, 특히 여성 신규채용 비중이 60% 이상이므로 실질적 양성평등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국가 자격시험의 CBT 전형을 확대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 실기시험 잔여 재료에 대한 재사용방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지역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을 도모하였다. 기관은 HRDK 공정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청렴도 평가 등급의 상승을 달성하였다. 다만 갑질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며 인권경영의 중장기적 방향성 설정도 더욱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기관은 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공정채용 TF와 미래전략추진단 구성,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교육훈련의 만족도 제고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직무 가치를 반영한 보수체계개편,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임금피크제의 개선, 디지털 전환 대응과 노사 상생 문화 구축 등을 진행하였다. 기관의 미래전략추진단 및 한국판뉴딜추진단 등의 혁신 추진 체계 구축과 국가자격 모바일 전자증명제도 도입 및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혁신 추진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데이터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득점률은 96.339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233점에 비하여 전년대비 0.106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만점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846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0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0.1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9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3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참여적·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에 있어 사회적가치 실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어서 참여적, 협력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해답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의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대상사업을 개별적으로 선정·추진·집행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주요사업 집행과 사회적 가치 추진 및 실현성과 간 직접적인 연결성에 기반하여 단기적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 확산, 기대효과들도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체평가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는 자체평가단의 구성여부, 역할과 권한 등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다 높여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사업에서 '직업 능력개발 훈련 질 관리성과', '청년취업지원 성과' 등 2개 지표, 국가자격 운영사업에서 '국가 자격취득률' 지표, 외국인고용 지원사업에서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지표, 글로벌 일자리지원사업에서 '해외취업지원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해외취업지원 성과' 지표의 득점률이 95.64%를 기록한 반면, '청년취업지원 성과' 지표는 75.16%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6.58%로 전년의 83.9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한국석유관리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897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6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품질검사 사업				
	(1)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5	4.365
	(2)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9	9.000
	(3) 품질인증주유소 확대			2	2.000
	(4) 품질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유통조사 사업				
	(1)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5	5.000
	(2)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5	3.621
	(3) 유통조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기술연구 사업				
	(1)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			5	5.000
	(2) 기술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한국판 뉴딜에 발맞춘 새로운 사업들, 일반 시민과의 접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LPG 충전소 정량검사 업무를 시작하여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은 핵심가치 관련 지표의 도전성을 강화하며, 조직문화 진단체계를 고도화하여 구성원 동기부여, 윤리경영 등의 개선을 위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사회형평적 인력 중에서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향후 재난유형별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디딤돌 앱의 기관 SNS 업로드 후 이를 시민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공정거래 기여를 위한 계약 상대자와의 거래 관행의 개선,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 계약 비리 발생 건수 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과 당해연도 인력배치 간 연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간부직 직무급에 직무값을 반영하여 직무중심성을 강화하는 등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역사회를 활용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전문역량을 대내외로 전파 활용,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내 갈등요소를 처리 등 노력을 해왔다. 다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의 득점률은 98.757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600점에 비해

2.157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여성기업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및 국가유공자자 활용사촌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은 95.680%,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실적은 57.165%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1점 만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품질검사', '유통조사', '기술연구' 등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제도적, 기술적으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여 품질검사 활동의 실효성과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유통조사 과정에서 취약한 업체를 지원하고 보고과정의 편의성 제고, 수급정보 품질개선, LPG 정량검사 실행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바이오 연료연구, 중소기업 지원과 시험과정 고도화를 통한 기술연구 사업성과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팬데믹 시기 검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찾아가는 품질점검서비스를 통한 취약집단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신규지표가 다수 선정된 주요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의 연속성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성과달성 수준이 절대적 규모 관점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측정기준, 기대효과 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석유관리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품질검사 사업에서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등 3개 지표, 유통조사 사업에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등 2개 지표, 기술연구 사업에서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 지표이다. 평가 결과, '석유제품 품질관리 고도화', '품질인증 주유소 확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시험분석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석유대체연료 유통 확대' 지표는 72.42%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3.50%로 전년의 92.12%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 한국소비자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2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3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				
	(1) 소비자역량 향상 성과			5	5.000
	(2)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2. 소비생활 안전 개선				
	(1) 소비자안전 시장개선 조치 성과			10	10.000
	(2) 소비생활 안전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3.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1) 소비자 분쟁해결 성과			9	8.903
	(2)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4.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1)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성과			7	7.000
	(2)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이해관계집단 유형화를 개선하고 각각에 대한 소통전략을 설계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여 기관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기관은 다변화된 사업들 및 연결된 가치들 간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 개별 사업의 점진적 성과 개선을 넘어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해 조사체계를 고도화하며, 사업의 유기성 강화를 위한 신축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입 사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적극 채용 여력 산정 및 활용으로 충원률 98.8%를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높은 여성채용비율 및 여성비율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임원 임명을 위한 여성 인재 Pool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위험성 평가 조기 실시로 화학물질분야 위험요인을 134건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기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등 맞춤형 지역인재를 2019년 32명에서 2020년 126명으로 전년 대비 293.8%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자체 및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기관은 또한 국민권익위의 외부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인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처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직무급을 도입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형태를 볼 때 직무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직무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소비자원의 득점률은 97.843점으로 2019년 득점률 95.700점에 비해 2.143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 실적을 달성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평점이 60.000점으로 일자리 창출 지표는 가중치 3점에 2.920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를 달성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100%를 달성하여 0.900점(만점 1.000)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 지표가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7개에서 모두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599%를 달성하여 3.000점(만점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당년도 벌점이 0점으로 평점 100점 획득, 고객만족도는 2020년 88.4점으로 2019년 90.5점에 비해 2.1점 하락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2019년 대비 0.7점 상승한 70.9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0.5점 중 0.43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강화’, ‘소비생활 안전개선’,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지향성 확보’ 등 4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실용적 소비자정보 제공’에서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로의 사업명 변경을 통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위상을 확립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계층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소비자교육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바람개비 서포터즈 양성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다. 다만, 기관은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으로 해외 제품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급증하는 해외제품의 국내반입에 맞추어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차단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제공 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양질의 정보를 분석·생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 강화사업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성과' 지표, 소비생활 안전 개선사업에서 '소비자 안전 시장개선 조치성과' 지표, 수요자 맞춤형 분쟁 해결사업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성과' 지표,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 지향성 확보사업에서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 지향성 개선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성과', '소비자 안전 시장개선 조치성과', '정책·거래 환경의 소비자 지향성 개선성과'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소비자 분쟁해결 성과' 지표는 98.92%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9.69%로 전년의 97.87%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54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C	1	0.39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402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6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안전검사사업				
	(1)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9	6.940
	(2)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6	5.894
	(3) 부적합 승강기 조기개선율			6	5.988
	(4) 안전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C		
	2. 안전연구사업				
	(1)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6	6.000
	(2) 안전연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3. 안전교육사업				
	(1)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유지성과			2	1.950
	(2) 취약계층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2	2.000
	(3) 안전교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구성원들의 상향적 핵심가치 정의 노력을 통해 핵심가치 내재화 관리를 개선하였으나, 안전기준의 지속적 개선 노력과 승강기 산업의 육성 간 균형을 유지하고 그린 뉴딜 관련 사업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데이터 기반 경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 인식조사체계를 고도화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은 민간일자리 4,920명, 핵심사업 연계 일자리 447명,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46명을 창출하였으나, 사회형평적 인력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의 채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공단보유 시설물의 위험수준별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침수피해 승강기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또한 전자조달 입찰 및 계약을 통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계약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기관은 종합청렴도, 내·외부청렴도,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3년간 추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은 7급 구성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무급을 설계 적용하고 있으나, 직무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별도직무부여 등 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2018년도 기관통합 이후 추진해왔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현안 중심의 노사협의체를 운용하였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득점률은 80.052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0.867점에

비해 10.815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95.536%를 달성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81.910%와 60.0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40%를 달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38.042%를 달성하여 미흡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 7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제품 구매실적 57.66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 44..6%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4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추진과 안전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성 확보, 국민안전 및 행복 실현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안전검사’, ‘안전연구’, ‘안전교육’ 3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승강기 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써 딥택트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기존 ICT 및 IoT 환경 구축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교육사업을 위한 글로벌 수준 비교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사업 목표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 전략의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안전취약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약자 및 다양한 고객 민원을 관리하기 위한 고객 소통 경로를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다양한 실습장비를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및 콘텐츠를 통하여 승강기 안전 교육의 질적 성과를 달성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일부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환류활동을 통해 고도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재난발생 대응협력체계를 승강기안전국민참여단으로 확대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점검을 적발하기 위한 부실 승강기 사업자 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행정안전부 안전사고 예방활동 우수사례에 선정된 성과와 신기술/안전 관련 AI, 빅데이터,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하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성과가 높게 평가된다. 기관은 '찾아가는 안전인증 서비스' 및 시험타워를 무상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속적 모바일 앱 접속 오류 등의 고객 만족도 하락 및 세부 사업 성과목표 설정 및 확대에 따른 체계적 계획 수립, 다양한 ICT 승강기 안전 시스템 등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환류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인증 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안전검사사업에서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승강기 안전위험요소 제거성과', '부적합 승강기 조기 개선율' 등 3개 지표, 안전연구사업에서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지표, 안전교육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능력 유지성과', '취약계층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승강기 안전산업 R&D 활성화 성과', '취약계층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승강기사고 감소성과' 지표는 77.11%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1.82%로 전년의 99.04%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한국에너지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91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2.955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45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1)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참여사업장 이행달성 확대			5	5.000
	(2) 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성과			6	6.000
	(3)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2.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1) ICT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7	7.000
	(2)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4	4.000
	(3)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1)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9	9.000
	(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은 ESG 기반 경영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ESG가치 종합 관리모델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지역경제 기여, 투명청렴과 국민안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으뜸가전 환급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일자리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나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가 요구된다. 기관은 채용방법의 전문성 및 적합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여성 관리자 비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은 협업을 통하여 태양광 시공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내 제안제도의 안전 관련 소통도 강화하고, ISO 45001 인증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거래비용도 감소시켰으며, 사회적기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윤리경영 측면에서 ISO37001 인증을 전 지역본부 및 부서로 확대하고, 통합 ERP 구축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종합청렴도 하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정원 재배치, 디지털 업무 전환, 직무 전문성 확보 및 인재육성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플랫폼과 국민 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은 직무분류체계 수립 및 보수체계 개편을 단행하였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실행하였다. 기관은 규제혁신 패스트트랙 신설 및 으뜸효율 환급 사업 추진과 함께 기관 내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혁신 과제별 차이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혁신 제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의 득점률은 97.58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7.117점에 비해 0.466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만점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91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평가항목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여 가중치 1점 중 0.9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표를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2.955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0점으로 만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5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은 사회적가치, 지역균형 및 포용-상생발전, SDG 및 ESG 적 관점에서 본 지표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계량지표 설정의 정당성, 목표치의 도전성과 적극성을 보다 상향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공모전, 사회공헌)하고 일생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뉴미디어 활용 집중홍보를 통해 대국민 ZEB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 점 등 관련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ZEB 인증 의무화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신청지원, 인증지원,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절차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의 집중홍보

방식을 보다 다각화, 구조화, 공유화하여 대국민 ZEB 홍보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환류하는 과정에서 자체평가단의 역할과 권한, 의사결정과정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자체평가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세밀한 시스템 성과관리지표 및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들을 명시화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에서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참여사업장 이행달성 확대', '산업체 에너지 효율향상 성과' 등 2개 지표,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사업에서 'ICT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 확대' 등 2개 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사업에서 '민간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99.9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한국연구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5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41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연구개발지원사업				
	(1) 과학기술분야 질적 우수성과 창출			12	12.000
	(2)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창출			5	4.663
	(3) ICT분야 연구개발성과 효율성 강화			5	5.000
	(4) 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B^0		
	2. 인력양성지원사업				
	(1)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배출			6	4.952
	(2) 인력양성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연구관리기반구축사업				
	(1) 연구비 집행관리 책무성 강화			3	2.271
	(2) 연구관리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협업(시민참여)				0.800
	3.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경영목표의 개선방향을 '국민·연구자·근로자 생명안전'으로 설정하고,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지원'과 'R&D 지원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산과 관리과제 수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와 더불어 업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기관은 민간 및 내부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직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여성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안전 전담조직 신설, 안전관련 교육 강화, 연구실 안전 관련 법 개정을 도모하였다. 기관의 중소기업의 ICT 장비 활용과 범부처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도입처럼 제도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연구윤리지원센터 출범 및 연구사업 평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종합청렴도 등급도 상승하였으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 진단의 환류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기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신설과 함께 TF 운영을 통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육 이후의 평가 및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EAP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의 NRF-IITP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복리후생제도와 임금피크제 개선,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복무·인사관리 시스템 선진화 노력 등이 인정된다. 기관은 혁신과제 도출에 있어 국민 및 연구자 참여 확보 노력과 함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혁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환류 체계 강화와 함께 구성원의 혁신 피로도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득점률이 95.38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1.058점에 비해 4.325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목표치에 95%이상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이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75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중 평가항목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여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가중치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0점으로 만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가중치 0.5점 중 0.41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의 경우 인문사회 과학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발굴 및 구체적인 성과 목표 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대학원생 SCI 논문 질적 수준 등 일부 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질적인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성적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성과지표를 함께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문의 다양성을 위한 포용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의 구축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추진한 것은 기관이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문의 다양성이 연구 주제 및 학문 분야의 다양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요구

된다. 또한, 과기분야 상위 세계 10% 논문 지표 등 미달성한 목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자체 평가 결과의 내용을 우수와 미흡으로 구분하여 우수한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성과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분석적으로 환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기관의 성과로 확인된다. 다만, 대학교육 자율혁신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환류 계획과 실적의 구체적인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성과를 제시·기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질적 우수성과 창출',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창출', 'ICT분야 연구개발성과 효율성 강화' 등 3개 지표, 인력양성지원사업에서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배출' 지표, 연구관리기반구축사업에서 '연구비 집행관리 책무성 강화' 지표이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분야 질적 우수성과 창출', 'ICT분야 연구개발성과 효율성 강화'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연구비 집행관리 책무성 강화' 지표는 75.70%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3.18%로 전년의 96.79%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77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0	0.6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1)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9	8.539
	(2) 안전사고 예방지수			9	8.352
	(3)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8	7.739
	(4)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6	B^0		
	2.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 사업				
	(1)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5	5.000
	(2)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0**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단기적 양적 성장으로부터 장기적 양과 질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경영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국민 생활주변 방폐물 관리와 방사선 측정 등 국민과 직접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사업 확장이 발견된다. 다만 기관은 기관의 신사업들과 고준위방폐물관리 사업 가능성 개선을 위한 대국민 소통·홍보를 강화하고, 구성원 동기부여를 위한 인식조사를 고도화하여 환류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설립 이래 최대 충원률을 달성하였고, 일자리 늘리기, 채우기, 나누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공공일자리 확대 및 결원률 최소화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채용환경 불안정을 극복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청년을 채용하였으며, 고졸 적합직무의 개발 및 자체 채용목표제의 실시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사각지대 국민생활 주변 방사성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나, 재난안전관리 활동 실적의 평가 및 환류 시 국민참여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안전보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또한 필요하다. 기관은 에너지 및 지역지원사업 분야에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완료 및 주민주도 마을 단위 특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2급 이상 간부직에게는 직무급을 도입하였으나, 3급 이하 비간부직에게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 인건비 절감분과 임금충당률을 고려할 때 추가 신규채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복수노조의 출현 등 노사관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관리를 지속하였으나 현장과의 소통강화 등 노사공감대 형성을 위한 채널관리도 필요하다. 기관은 지역화폐 구매,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92.5점의 득점률을 기록하며, 전년도 90.569점 대비 1.93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92.5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80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100점을 득점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4.5점으로 60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953%로 가이드라인 2.8%를 충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방폐물 관리 미래기반 구축'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3중 안전검사를 추진하여 부적합 방폐물 처분제로 달성, 방사성 분석능력 최고등급 달성, 일일 방폐물 처분량 증가, 다양한 방폐물 관리체계 마련 등 중·저분위방폐물 안전관리를 위한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및 고준위방폐물 처리 기술 개발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방폐물 분석기관의 분석역량의 객관적인 검증절차 및 종사자 방사선 노출 저감,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를 위한 임시 및 영구저장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시설건립 계획 수립, 핵심기술개발의 장기로드맵 마련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전략적 중요도,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와 실행과제를 적절하게 도출하였으며,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기반 구축과 사업과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 기술확산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추진계획을 설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진하며, 장기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중저준위방폐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안전사고 예방지수',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 등 3개 지표, 방폐물관리 미래기반 구축사업에서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지표이다. 평가결과,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안전사고 예방지수' 지표는 92.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5.58%로 전년(96%)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3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492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87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51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				
	(1)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공률			7	7.000
	(2) 블록체인·전자문서 신서비스 사업화 성공률			4	4.000
	(3)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강화				
	(1)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11	9.860
	(2)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1)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 성과			9	9.000
	(2)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외적성장에 비하여 내부 성숙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영과 사업의 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성과지표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 지원'을 추가하여 확진자의 사생활을 보호한 점은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복리후생만족도, 비금전적 만족도, 저녁 있는 KISA에 대해서는 기관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원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회적 형평 인재 확보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고지화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감정노동자를 위한 운영지침 제정과 행복한 워킹맘 & 대디 교육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관의 지자체 정보인력 양성, 중소기업 정보기술 역량 강화 등의 상생협력 추진 역시 긍정적이다. 기관은 권익위 주요 평가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환류 체계 정비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신규 채용 및 본부/실별 인권지킴이 신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위직 갑질 금지 교육 및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의 미래정책연구실의 개편 및 지역정보보호지원 신규 센터 구축과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성과평가체계의 안정성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 설계, 복리후생제도와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의 디지털 전환과 일터혁신 등의 노력을 하였다. 기관의 코로나19 전사 대응체계 확립, 혁신과제별 성과지표의 이행부서 KPI와의 연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별 성과목표치 설정에 있어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득점률이 93.435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3.992점에 비해 0.557점 하락하였다. 일자리창출 지표의 경우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0% 충족하여 만점 획득하였고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대비 실적 호조로 2.932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0.492점으로 전년도 0.760점 대비 0.268점 하락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기술개발 생산품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여 2.87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는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 결과 벌점 0점으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의 경우 가중치 0.5점 중 0.451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위협 예방 사업과 공격 대응사업의 경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시장의 활성화, 정보보호 스타트업 지원과 신사업 발굴 및 지원, 정보보호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추진 등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정보보호 시장 확대 규모에 대한 분석의 경우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지표의 경우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에 더해 질적·정석적 성과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의 경우 단기 또는 중장기 환류계획만 제시되고 있어 각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환류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산업육성사업에서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공률', '블록체인·전자문서 신서비스 사업화 성공률' 등 2개 지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강화사업에서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지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사업에서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 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공률', '블록체인·전자문서 신서비스 사업화 성공률', '개인정보 피해 최소화'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사이버위협 안전도 향상' 지표는 89.64%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6.32%로 전년의 97.95%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4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맞춤형 취업지원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8	8.000
	(2)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고용의무 사업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 성과			5	5.000
	(3)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2.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				
	(1)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5	3.819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4	3.962
	(3) 기업의 일자리 확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				
	(1)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5	4.519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양질의 취업 확대			4	3.936
	(3)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미션,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가치별 행동양식 구체화한 행동지표를 설정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미래과제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별 소통채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의 급여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장애친화적 민간 일자리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청년·고졸자·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중 확대,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관의 임직원에게 내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관의 재난 안전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내부 제안제도 실적에 대해 성과에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성남시 주민 소득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 비율의 향상 및 지역사회와 기관 고유사업의 연계형태로 지역사회 발전 모델 제시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윤리경영에 있어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종합청렴도 향상 및 직원의 인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역량모델 고도화를 통한 역량기반 수요중심 교육과정 확대, 현업적용도 상승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역량중심 교육과 직무중심 교육의 혼재로 인한 교육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1급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결과가 보수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

하다. 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설계와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신규 채용 실적과 낮은 인건비 충당률은 상충되므로 지속가능한 제도의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 기관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이전에 혁신주니어보드 직원의 이사회 참관을 확대하였다.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하여 내부의사소통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장애인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 청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민참여혁신단에 기업의 구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득점률은 96.913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542점에 비해 0.371점 상승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도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7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4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 지원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맞춤형 취업지원’, ‘기업의 일자리 확대’,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별 성과 목표를 선정하고 경영목표에 맞게 전략방향을 적절히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중장기 경영목표에 입각하여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 특히, 주요사업과 대상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수렴, 정책환경 분석,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사업들 간 적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사업 선정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전략목표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장애인 특성별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학생-청년-장년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을 제공한 것은 소정의 성과로 판단된다. 기존에 추진하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역량강화, 맞춤형 훈련, 구진촉진수당 제공 등의 지원패키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좋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여력이 높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점은 ’20년도에 기관이 성취한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개별 실행과제에 있어 성과분석이 미흡한 점은 향후 개선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제도개선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지원인원수 확대' 등 2개 지표, 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등 2개 지표,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사업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수혜비율',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통한 양질의 취업 확대'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지원인원수 확대'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의무일자리 충족률' 지표는 76.3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4.31%로 전년의 100%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한국장학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5	C	3	2.66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0.7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85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1)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확대 노력			8	7.219
	(2) 분할상환약정 유지율			6	6.000
	(3)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2.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1)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지원 확대 성과			7	6.151
	(2) 국가장학금 이용 확대 노력			7	5.326
	(3)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지원 사업				
	(1) 전공 계열별 균형 있는 우수인재 양성 노력			2	2.000
	(2)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멘토링 확대 노력			1	0.914
	(3)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6.5**		**43.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가치 '공정'을 실현하는 정확한 소득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정규직 채용형 인턴제도 및 직무역량 검증 강화를 위한 직무심층 면접과 직무 관련 주제 PT 등을 통하여 인력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의 일부 지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기관 특성을 활용한 인재육성, 생태계 확산, 투자기반 지원으로 정부 정책에 협력하였고, 환경 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으로 친환경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기관의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기관은 본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협력 및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관의 노사공동 인사제도 개선 TF 추진과 함께 KOSAF 모범거래모델 정립 및 공공재정 환수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등급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교취업장학부 및 공공재정 환수 조직을 신설하고 취업센터운영팀 정규조직화와 함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육과정 환류 체계 정비와 성과평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기관은 보수체계와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노사 소통 개선과 디지털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의 맞춤형 혁신 교육과정과 빅데이터 기반 청년 창업 창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구성원의 혁신 피로도에 대한 관리와 함께 혁신 사업 제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장학재단의 득점률은 89.784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3.577점에 비해 3.793점 하락하였다. 일자리창출 지표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부지표에서 실적이

개선되어 2.667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2.632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만점을 달성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하여 0.7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 생산품 등 7개 모두 100%를 달성하여 3점을 획득하였으며, 중장기재무계획 이행실적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은 1,297%로 목표치인 1,478%를 하향 달성하여 만점인 1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지표도 인건비 인상률 2.8% 목표치를 준수하여 만점을 득점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벌점 6점이 발생하여 0.4점을 획득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0.5점 중 0.45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3대 평가대상 사업 각각에 대한 도출과정과 각 사업간 연계성, 중장기 경영목표의 기여도 측면 등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관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대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단위사업과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타 기관 및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은 물론 디지털전환과 같은 기술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멘토링 주요 거점 확보, 멘토-멘티 간 매칭 방식 개선, 예산 지원 확대 등 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한 실적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신규 주요사업은 자체평가에 따른 환류 활동이 더욱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기존 세부사업 재편 및 고도화와 신규사업 도입, 이에 맞는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 등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에서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확대 노력’, ‘분할상환약정 유지율’ 등 2개 지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저소득계층 국가장학 지원 확대 성과’, ‘국가장학금 이용 확대 노력’ 등 2개 지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 지원 사업에서 ‘전공 계열별 균형있는 우수인재 양성 노력’,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한 멘토링 확대 노력’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분할상환약정 유지율’, ‘전공 계열별 균형있는 우수인재 양성 노력’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100%를 기록한 반면, ‘국가장학금 이용 확대 노력’ 지표는 76.09%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89.07%로 전년의 91.1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7. 한국전기안전공사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0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397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03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0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1) 전기설비화재 감소			3	2.150
	(2) 선제적 전기설비 개선노력도			8	7.284
	(3)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2. 전기안전진단사업				
	(1)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7	7.000
	(2) 취약시설 전기안전확보율			4	4.000
	(3) 전기안전진단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3.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				
	(1) 전기재해 인명피해율 감소			5	5.000
	(2) 광역정전 예방노력도			4	3.880
	(3)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을 계기로 전기안전에서 국민안전으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전기화재 인명피해 감소 및 에너지 전환정책 관련 사업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였다. 다만 2025년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의 시계에 따라 환경변화와 사업 수요를 진단하고 장기 비전과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20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용 취약계층 대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은 청년 및 고졸 채용확대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혁신모델을 발굴하였으나, 지역인재 채용목표 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코로나19 의료시설과 거점시설을 지원하여 재난안전관리 유공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기관은 선금 지급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및 하도급지킴이 활용 등을 통한 대금 지급 환경개선 및 표준계약서 활용과 모범거래모델 도입 및 이행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다. 기관은 간부와 신입직원 간 의사소통 문제 및 점검직원의 방문 기피 사례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며,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당해연도 인력재배치 간 연계성의 보완과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제고 및 신구세대 간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간부직에 대한 직무평가와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부와 지사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중소기업 긴급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과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득점률은 90.487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1.717점에 비해 1.23점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96.957% 달성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95.529%로 가중치 1.8점에 1.720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전년대비 상승한 6.454%이나 미흡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2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59.444%를 달성하여 가중치 1점 중 0.397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중소기업 생산품,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생산품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실적은 각각 65.125%, 86.500%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에 2.90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661%를 달성하여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 벌점 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평가 지표 중 고객만족도 실적은 83.980점, 사회적 가치 기여도 실적은 67.300점으로 가중치 0.5점 중 0.403점을 달성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전기안전검사·점검’, ‘전기안전진단’, ‘전기안전지원·진흥’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시설의 전기안전 확보 및 가정방문에 대한 국민 거부·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대면·무정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군부대 전기시설 점검을 통해 공공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기준 마련 및 의무화, 검사 및 점검 업무 처리방침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영세 설치업자의 경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이라크 진출 국내기업 지원 및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정전복구 지원으로 기업생산성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험지역 긴급인력 투입 시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하며,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이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에서 '전기설비화재 감소', '선제적 전기설비 개선 노력도' 등 2개 지표, 전기안전진단사업에서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취약시설 전기안전확보율' 등 2개 지표, 전기안전지원·진흥사업에서 '전기재해 인명피해율 감소', '광역정전 예방노력도' 등 2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국민생활공간 전기안전확보율', '취약시설 전기안전확보율', '전기재해 인명피해율 감소' 등 3개 지표는 모두 득점률 100%를 기록한 반면, '전기설비화재 감소' 지표는 71.67%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4.56%로 전년의 98.4%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8. 한국전력거래소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995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837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28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				
	(1)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8	7.856
	(2)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6	6.000
	(3)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2.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1)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8	7.990
	(2)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1)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4	3.761
	(2) 전력거래 정확도			2	2.000
	(3)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D^+		
	4. 근로자 안전				
	(1) 근로자 안전			3	3.000
	(2) 근로자 안전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사회적 가치 경영을 강화하고 그린 뉴딜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과제 수를 늘리고 내부평가지표 연계를 확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전략 성과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중장기 경영전략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그린·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에너지 분야 취업 지원에 있어서 태양광 개인사업자의 실질수익률 제고 및 자회사와의 노사공동협의회 개최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안전 및 환경에 있어 2020년 12월 외부전문기관 사후 심사 결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침 필요 등 13개 보완사항이 도출된 바 있어, PDCA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나주시 주민 소득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누리봄 프로젝트 사업' 등 노력은 긍정적이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형 사업 프로젝트 확대, 선금지급 비율 향상 등 노력이 필요하다. 윤리경영에 있어 기관의 부패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은 긍정적이나, 정보공개의 확대 및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부 관련 위규사항(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역량모델을 재정립하여 역량기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인적자원개발 성숙도 지수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역량사전에 제시된 행동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역량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지표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직무중심 보수체계와 연계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중장기 신규채용 목표 설정과 인건비 충당률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제2 인생설계 지원보다 이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 기관은 노동이사제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은 다소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는 단계별 접근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혁신과제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설정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혁신과제의 중장기적 포지션도 고민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정하여 단기와 중장기 목표 간에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득점률이 71.826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7.325점에 비해 25.499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가중치 1점 중 0.995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개발 생산품을 제외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3점 중 2.837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련 지표에서는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지 못하여 0.000점(만점 3.000점)으로 득점하지 못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벌점 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1점을 획득하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28점을 획득하여 국민소통의 가중치 1.5점 중 1.428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라는 미션과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근로자 안전 사업 등 네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상시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석탄발전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상기후 및 코로나19의 전력수요 불확실성에 대해 수요변동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력소비패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전력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양광 연계형 ES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방전 운영 방식을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수급자원 활용도를 높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여 출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제도 마련, 손해배상 면책 규정의 개정 및 보완 등의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저탄소 전원믹스 구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추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의 상위정책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IT 디지털 뉴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신기술을 활용한 기반 구축 R&D 과제를 수행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국민참여형 신시장 확대를 위해 국민DR 제도를 도입하였고, 20년에는 ESS, 전기차 등 소규모 분산자원의 참여가 가능한 플러스 DR을 도입하는 등 국민참여형 전력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친환경 중심의 공정가격과 공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대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했고, 소규모 전력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여 대비 보상을 확충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형 전력사업자 중심의 사업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에너지쉼표와 같은 국민참여형 사업을 경제적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실현 등의 사회적 정의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전력거래소는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단기 전력계통 운영 사업에서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등 2개 지표, 중장기 전력수급관리 사업에서 '중장기 전력공급신뢰도 향상 성과' 지표,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전력거래 정확도' 등 2개 지표, 근로자 안전 사업에서 '근로자 안전' 지표이다. 평가 결과, '수요예측 오차범위 초과일수', '전력거래 정확도', '근로자 안전' 등 3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을 통한 전력가격 안정화' 지표는 94.03%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8.73%로 전년의 95.35%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84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577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015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60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1) 국가데이터 활용 성과			3	3.000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4	4.000
	(3)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1) 지능형 인프라 활용 확산 성과			5	5.000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1)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7	7.000
	(2)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7	7.000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4. 지능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사업				
	(1) 생산적 정보문화조성을 통한 수혜자 체감성과			5	5.000
	(2) 지능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을 최초로 제안하고, 디지털 뉴딜 추진체계와 위기대응을 적시에 반영하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연차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내부청렴도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기관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많은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였다. 다만 인재 채용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관의 업무연속성계획(BCMS), 화재안전우수건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종합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3대 과제 인증을 획득한 실적이 인정된다. 기관은 데이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서 모범거래모델 도입과 함께 시민참여 청렴활동 확대와 인권경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평가제도의 만족도는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AI데이터추진단과 공공데이터뉴딜팀 등의 신설과 디지털정부본부 개편과 함께 온라인 통합 교육플랫폼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육 효과성 검증과 평가제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직무분석, 복리후생제도와 임금피크제 직원 관리를 개선하였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임직원 및 노사관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혁신 전담조직 신설 및 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성장응답센터 구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혁신 동기부여 촉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득점률은 78.600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89.992점에 비해 11.392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은 가중치 대비 92.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가중치 대비 95.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등 3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등 4개 지표의 실적은 다소 미흡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국민소통에서는 벌점 12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2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0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수요·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선정한 것은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각 주요사업별 전년도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금년도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경우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디지털 정부 추진성과의 대내·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사업과 평가 대상사업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주요 사업에

대해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선정된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이 확인된다. 10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확산, 학교 무선인프라 활용 등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달성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기관의 경영 목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표들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에서 '국가데이터 활용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등 2개 지표,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지능형 인프라 활용확산 성과' 지표,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에서 'ICT 융합 사업화 성공률',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등 2개 지표, 지능화에 따른 역기능 대응 사업에서 '생산적 정보문화조성을 통한 수혜자 체감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모든 계량지표는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득점률은 100%로 전년의 98.50%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94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E^{+}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868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E^{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23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선박검사사업				
	(1) 선박안전 강화성과			8	7.545
	(2) 미수검선박 저감성과			6	6.000
	(3) 선박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1)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4	4.000
	(2)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성과			5	5.000
	(3)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1)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4	3.632
	(2) 해양교통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성과			2	1.976
	(3) 해양교통 온실가스 저감성과			2	2.000
	(4)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대내외 소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기관의 업의 확장으로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술적 영역에서 개선을 달성하였다. 다만 기관은 비개방검사의 안전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내외 구성원의 인식조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환류에 기반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20년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으로 보다 우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채용된 사회형평적 인력들의 퇴사 원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상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재난안전체계를 강화하였고, 낚시배와 10t이상 어선의 도면 제공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하였으나, 인명사상 및 선박사고를 감소시킬 꾸준한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경영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어선과 여객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내부·외부청렴도가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인 도입계획과 그에 따른 이행프로세스 설계 및 노사협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혁신네트워크가 혁신 플랫폼으로 보다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성금과 방역물품의 자발적 기부, 선박검사 규제개선으로 고객부담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득점률은 94.304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96.700점에 비해 2.396점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은 다소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940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다소 미흡하여 가중치 1점 중 0.8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기술개발 생산품 구매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3점 중 2.868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벌점 1.5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37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예방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로 국민생명·재산 보호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해양교통안전 관리'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선박검사사업을 통해 화재조기진압시스템 기술과 표준어선형 모델 개발,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감소, 어선 엔진검사비용과 검사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객선 운항관리 사업을 통해 e-Nav 운영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항로 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 안전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해양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화재폭발 및 기관

손상 등에 따른 해양사고, 여객선 항로사고, 해양 인명사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과지표, 실행과제,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 각 사업 간의 연계성,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서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선박검사사업에서 '선박안전 강화성과', '미수검선박 저감성과' 등 2개 지표, 여객선 운항관리사업에서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성과' 등 2개 지표,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에서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해양교통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성과', '해양교통 온실가스 저감성과' 등 3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미수검선박 저감성과',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성과', '해양교통 온실가스 저감성과'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지표는 90.80%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7.27%로 전년의 98.76%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한국환경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B^+	3	2.78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B^+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6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B^+	3	2.987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16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6	6.000
	(2) 온실가스 감축성과			5	4.693
	(3) 대기·온실가스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2. 물환경관리사업				
	(1)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8	5.935
	(2) 물환경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3. 자원순환관리사업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5	4.980
	(2) EPR 포장재 품목 재활용성과			4	3.910
	(3)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안전관리사업				
	(1)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			3	3.000
	(2)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전략방향·경영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등의 관리체계를 본부별, 부서별로 재정립함으로써 전략체계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에서 전략체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정현원차 해소 및 뉴딜사업 및 혁신성장 인프라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은 긍정적이나, 체험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채용점검위원회 신설 및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율 확대 및 공무직의 직장 내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 및 환경에 있어 PDCA 기반 관리 프로세스가 정착 및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있어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 캠페인' 등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은 긍정적이나, 선금지급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있어 기관의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부패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 등 노력은 긍정적이나,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과평가 수용도 제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평가만족도가 전년대비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기관은 2020년 12월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 직무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공동 TF 구성과 운영을 합의하였다. 기관은 가장 기초가 되는 직무기술서 준비부터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K-eco 임금피크제 설계·운영으로 기관 맞춤형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지역사회 지식 나눔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 2020년 3월 제3노조의 자진해산에 이어, 현재 복수노조도

자발적 통합 논의를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있어 기관은 혁신계획 수립 시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고 있으며,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장은 소통·협력을 통한 적극 행정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쌍방향 소통을 강화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임직원의 자유 소통 공간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환경공단의 득점률은 95.096점으로 2019년도의 득점률 95.542점에 비해 0.446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중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각각 94.951%와 44.556%를 달성하였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96.963%를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 모두 100%를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의 경우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 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생산품,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모두 100%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96.801%를 달성하였다. 또한,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 가중치 1점 중 0.7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 및 사회적가치기여도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6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물환경관리사업, 자원

순환관리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적합성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정부정책기조에 맞춘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4개의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전년도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환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신규 총량사업장의 배출량 적기할당, 배출량검증으로 부과금 산정, 총량사업장을 77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21%에서 82%로 상당히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기록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민들이 성과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환경관리사업에서도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체계구축과 시범사업 실시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에서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온실가스 감축성과' 등 2개 지표, 물환경관리사업에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지표, 자원순환관리사업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EPR포장재 품목 재활용성과' 등 2개 지표, 안전관리사업에서 '근로자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감축성과' 지표이다. 평가 결과, '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 '근로자안전을 위한 산업재해감축성과' 등 2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개선성과' 지표는 74.19%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1.99%로 전년의 85.76%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B^0	3	2.72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13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환경R&D 지원				
	(1) R&D 과제의 현장 활용도			5	5.000
	(2) R&D 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7	7.000
	(3) 연구비 투명성			3	3.000
	(4) 환경R&D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환경산업 육성				
	(1) 중소·중견 환경기업 국내외 매출실적			6	5.316
	(2) 환경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3. 친환경상품 확산				
	(1)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실적			5	4.340
	(2) 친환경상품 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4.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1)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5	5.000
	(2)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C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의 사업 변동 수요에 대응하여 하반기에 경영전략을 전면 수정하면서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전략적 방점을 두었다. 다만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은 10년 이상의 시계로 전략기획을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교대제, 휴직 대체,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2019년 대비 확대하였으며, 수시채용 및 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하여 충원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기관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신규 입사자 대상 채용 및 운영의 종합 만족도 94.3%를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불법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험실 발생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 상생 협력사업의 수혜주민 및 지역주민 만족도 성과를 개선하였다. 기관은 채용 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의 신설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외부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구 세대 간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채용자의 퇴사율을 낮출 필요가 있고,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도, 업무분장 및 업무부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후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직무급 도입 준비 노력은 발견되나, 신속한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비금전적 복리후생 아이디어 발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만족도 제고 등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노사소통 등 노사문화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성금과 방역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였고, 불법 방역제품 및 웹페이지 유통차단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득점률은 93.530점으로 2019년도 득점률 69.742점에 비해 23.788점 상승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목표치에 95%이상 달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 실적이 미흡하여 가중치 3점 중 2.721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다소 미흡하여 가중치 1점 중 0.8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지표는 모든 세부지표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에서 총인건비를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중 경영정보공시에서는 벌점 3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7점을 획득하였고, 국민평가에서는 가중치 0.5점 중 0.43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라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자 ‘환경 R&D 지원’, ‘환경산업육성’, ‘친환경상품 확산’,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등 4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특히 비대면 온라인 쇼핑으로 폐플라스틱이 급증하는 현실을 중시하여 소분판매, 종이 포장재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장바구니 대여 등을 도입한 친환경 유통매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녹색제품의 포털 등록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성과는 친환경 소비생활 유도와 녹색제품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환경 R&D 사업에 대한 낮은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배심원단의 취지와 운영목적에 알맞은 명칭으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경기업 현장의 질적제고를 위해 환경기업의 고용안정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화장실 리모델링, 휴게실 개선, 체력단련실 조성 등의 지원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좀 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계량지표는 환경R&D 지원사업에서 'R&D과제의 현장 활용도',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연구비 투명성' 등 3개 지표, 환경산업 육성사업에서 '중소 중견 환경기업 국내외 매출실적' 지표, 친환경상품 확산사업에서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실적' 지표,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지표이다. 평가 결과, 'R&D과제의 현장 활용도', 'R&D과제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연구비 투명성', '환경보건 취약계층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등 4개 지표의 득점률이 모두 100%를 기록한 반면, '친환경시장 확대 지원실적' 지표는 86.8%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득점률은 95.66%로 전년의 97.88%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강소형

1. 국제방송교류재단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 독립기념관
7. 시청자미디어재단
8. 아시아문화원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 창업진흥원
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6. 한국과학창의재단
17. 한국광해관리공단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1. 한국디자인진흥원
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 한국보육진흥원
2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8. 한국수목원관리원
29. 한국수산자원공단
3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1. 한국언론진흥재단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4. 한국임업진흥원
35. 한국재정정보원
3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8. 한국콘텐츠진흥원
3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Ⅲ. 2020년도 강소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경영관리 범주(비계량)

(1) 전략기획

○ 대다수 기관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성과를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들은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치체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션 혹은 비전의 변화는 기관의 존재 이유 및 미래상과 관련된 최상위의 전략적 의사결정 문제라는 점에서 세밀한 분석과정이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한 분석의 준거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기준 간 상호배타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경우가 있어 전략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비전 및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지표와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체계 정비 등과 같은 비정형적 조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의 목표 달성 로드맵이 우선순위 분석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치실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들은 변화하는 경영 여건을 반영하여 구성된 가치체계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핵심 가치를 전달하기에 세부적인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가치 활동에 따른 행동 요소별 규범이 몇몇 기관의 경우 다소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가치체계를 적절히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 및 확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재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핵심가치의 공유는 이해관계 구조에 따라 방식 다소 상이할 수 있어서 기관의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는데 영향도 및 관심도 수준에 따른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적 분류를 통하여 가치체계의 전파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체계를 개편하고 중장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 여건에 따라 강화, 유지 및 기능 조정사업에 대하여 자원 집중 및 사업 전환과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이나 미래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영목표나 전략과제 수립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초래한 사업환경 및 기관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다수 기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영목표와 핵심성과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경영개선

○ 대다수 기관은 경영개선과제에 대한 적절한 환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자체 경영진단 및 개선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관 내외부의 업무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 혁신 추진과제가 전략과제

등과 비추어 위계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과제 관리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과 민간이 연계된 업무의 경우 업무 효율화가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및 공익성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편적인 업무 공정상의 향상 이외에 업무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기적인 개선보다는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개선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쇠퇴하는 기능을 이관·폐지하는 과정과 신규사업을 도입하는 과정 등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보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기획의 목표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개선사항을 위한 목표나 지표를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개선 방향이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예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영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준에 근거한 계획과 더불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리더십

○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장은 경영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조기 달성된 경영계약 과제에 대하여 도전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개발하는 노력도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본질적인 경영계약 과제의 수행보다 환경적인 대응에 노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소수의 기관에서만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기관은 계약과제의 성과지표에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개편 혹은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이 적정한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부여 하기 위하여 혁신단계별 입체적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혁신마인드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계층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관장 주도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소통 대상별 적절한 채널과 방식이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다수 기관은 이사회 운영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사회 운영 방식의 다각화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영상 이사회를 도입하고 이사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통을 활성화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몇몇 기관의 경우 이사회 성과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점은 이사회의 역할을 지표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시되는 지표가 다소 단순하고 투입성 지표로써 점진적으로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일자리 창출

○ 대다수 기관은 내·외부 환경분석, 전년도 경영평가 환류 등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추진전략 고도화 노력을 하였다. 특히, 기관들은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일자리 전략 실행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보상체계 구축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은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기관 구성원 교육·의견수렴과 완성된 전략의 교육·공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일자리 창출 전략의 내재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대다수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별 일자리 추진전략수립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간접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전략에 따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인력수요분석 및 예측 관리에 기반하여 정규직 채용하는 등 정·현원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선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정원이 확보된 질 좋은 기관 일자리 충원에 대한 기관들의 추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대다수 기관은 체험형 청년인턴에게 직업체험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여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의 업무 효율이 균형적으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체험형 청년인턴의 취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고도화(경로관리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 대다수 기관은 핵심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들이 창출한 민간 일자리의 일부는 기관 본래 목적 사업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혁신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유 및 업력의 분석에 기반한 민간 일자리 타겟고객 설정과 통점(pain-point)분석 등을 통한 혁신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들이 창출한 민간일자리 급여와 질(근로조건 등) 개선에 관한 기관들의 관심은 적어 보여 이에 대한 기관들의 역량을 기대한다.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대다수 기관은 정현원차를 줄이고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등의 노력으로 결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청년인턴 채용, 신사업 발굴을 통한 인력 증원을 하였고, 육아휴직대체자 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기관에서 정현원차 결원율이 높은 상태로 정현원차 결원율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정현원차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형태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사업, 조달 및 위탁사업 확대를 통한 전사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고 2020년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였다. 뉴딜 관련 사업 및 사내벤처 활성화 등의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사내벤처 활성화의 효과가 아직은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며, 금융지원, 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 지원이 경영전략과 연계된 보다 체계화된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협력기업과의 기술 및 성과공유와 더불어 더욱 많은 기업으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대다수 기관은 공정한 채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채용단계별 실행전략 수립을 검토하여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필기전형 결과점수 공개를 통해 불합격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빅데이터 기반 자기소개서 검증을 통해 표절 검사 등을 시행하여 신속한 서류 검증으로 채용시간을 단축했고, AI 역량평가 면접을 통한 지원자간 절대·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통해 공정한 채용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사회형평적 인재활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고졸자, 여성, 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장내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적합직무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고졸자 채용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졸자 적합직무의 추가적인 개발, 다양한 직무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 등 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은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인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인력 고용 확대 및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행, 경력단절여성 적합 직무분석을 통해 신규 채용을 늘리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여성 관리자가 조직 내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 및 관리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관 내 여성인력의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맞춤형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통해 기관의 경영전략체계도 상에서의 주요 및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 및 실행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인다. 일부 기관에서는 여성임원 비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여성 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6) 안전 및 환경

○ 기관들은 기관의 고유업무 특성이 반영된 환경보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관은 정부의 시책으로 부여된 환경보전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에서 대다수 기관이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특성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추진한 기관이 많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기관의 중장기계획 내에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과제 발굴 및 고도화 계획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부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하거나 규정 및 지침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하였고 안전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재난관리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발주처로서 공사 설계, 공사 예산 및 적정 공사기간 산출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여러 기관이 '안전사고 zero', '무재해 운동'을 안전관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는 아차사고 및 경미한 사고의 보고를 막고, 사고 예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 제로'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하거나, 아차사고를 포함한 사고 보고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자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등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수 기관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배분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도별·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는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과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부 기관은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규모인 경우도 있으나 안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서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안전관련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련 교육과 유해요인의 적극적 발굴 및 해소의 노력도 다수의 기관이 지속해서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해당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확보 노력도 다수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노력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기관도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기관 내의 안전 강화 활동을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이버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해킹 메일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의 교육은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다수의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이나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은 해당 평가가 낮은 원인이 예산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지역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보유한 재원과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성과목표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과 산학협력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 기관이 지역기반의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축을 통해 공동협력의 방식으로 지역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혁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통해 지역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도 활발히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소재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물품구매 및 판로확대, 지역 봉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는 것에 비해, 수도권 소재 기관들의 경우에는 기관의 고유업무와 연계한 제한적인 지역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소재 지역과 별개로 기관의 특별한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협력·위탁업체에 대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다수 기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모범거래모델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금지급비율 확대 및 하도급지킴이의 활용을 통해 협력·위탁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도모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통적인 정부지침 적용이나 선금신청 독려 외에 선금신청 및 정산조건이나 부대비용 완화 등을 통해 업체의 선금신청 요청을 활성화하려는 기관의 능동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도급지킴이 역시 법정 의무적용 대상 외에 대해서도 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관련하여 대다수 기관이 권장목표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창업기업 및 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한 수요창출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수 기관은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은 주로 기관의 고유사업 또는 전문역량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각 기관의 고유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8) 윤리경영

○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실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대다수 기관이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의 마련 및 전담조직 체계의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별로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의 편차가 확인된다. 한편, 대다수 기관이 전년도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실적이 확인된다. 일부 기관은 청렴도 조사 외에도 다양한 윤리경영 진단활동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극적인 진단에 기초한 전략적인 윤리경영 개선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원문공개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적극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종합청렴도 점수와 비교해 내부 청렴도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청렴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관련해, 다수 기관이 인사·채용 및 회계·재무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개정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확인된다. 다수 기관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도입하면서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선한 사례도 확인된다. 한편, 기관 경영 의사결정의 내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당수의 기관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 또는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에 따라 노측이나 사측의 불만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확인되며, 점진적인 기관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건설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와 관련해, 다수 기관이 감사실 인력의 증원 또는 감사기능 및 조직의 독립성 제고 등을 통해 내부견제시스템의 강화를 추진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감사관 등을 통한 견제시스템의 운영도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기관에 따라 내부 감사지원인력의 감사역량 개발 및 감사활동의 능동적 수행 정도에 편차가 확인되며, 청렴감사관 등의 구성 및 운영 수준에도 큰 차이를 보여 실질적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윤리경영은 전 직원이 각자 스스로 부패위험을 자율점검하고 나아가 타 직원의 부패를 서로 감시함으로써 부패가 사라지는 문화가 정착될 때 완성된다는 관점에서, 기관들은 전 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교육과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윤리 교육과 전 직원의 윤리경영·청렴 교육 이수 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장은 수시로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며, 익명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채널을 갖춤으로써 준법·윤리경영 체계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및 활동과 관련해, 대다수 기관이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편적인 개선조치를 넘어, 동일 항목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의 마련과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9)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 대다수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방향별 대표사업 담당조직을 기준으로 환경변화 분석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운용방향을 정해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관은 조직·인력 운영 로드맵 체계가 중장기 조직운영계획이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및 연간 조직·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개편과 조직·인력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은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설 업무를 배당하거나 담당할 임시조직을 신설하였고, 다수의 기관이 단위조직의 신설·증가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증원·충원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다만, 전결규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임되기보다는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일상적인 전결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처럼 다수 기관의 상시기능 점검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단위조직 기능과 인력을 점검하는 상시기능 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은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나 제안을 반영하여 HRD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중간관리자 등 구성원의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적정 교육훈련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효과성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교육수요 조사를 내실화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이 성과지표와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과평가제도 및 성과지표, 평정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고, 성과관리위원회에서의 외부 성과위원 비중 및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 노력을 통해 성과평가제도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상당수 기관의 성과평가제도 만족도 개선 정도가 점진적이므로 성과평가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강화, 성과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다수 기관이 저성과자(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저성과 조직의 기준을 확대하고, 진단·코칭,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대다수 기관이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대상직위의 규모나 범위, 수준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개방형 계약직제의 활용이 주로 간부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

직위제 및 개방형 계약직제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파악된다. 전문직위제와 개방형 계약직제의 연계를 통해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제도로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다수 기관에서 인사교류를 위한 규정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인사교류 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직위의 선정·운영 외에 해당 직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확충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도모하고 일과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모든 기관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거나 재인증을 받은 점도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전년 대비 재택근무는 물론 유연근무제 및 가족(자녀) 돌봄휴가 등 각종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발한 운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조직 내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실적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유연근무제 실적 대부분이 재택근무제이므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황에서 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 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 만족도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직원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도 신설 및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10)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 대다수 기관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는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향후 기관들은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수용도를 토대로 직무 내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세분화된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직무분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가치 평가 및 직무급과 연계 노력, 기본연봉에서 직무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 노력, 기준보수 대비 직무가치 반영보수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한 노력, 순환보직 형태의 배치전환과 직무급의 합리적 연계방안 구축 노력 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 대다수 기관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였고 정부 정책 방향 및 지침에 근거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였다. 또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의 적정 편성과 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관 내·외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다만, 기관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복리후생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복리후생 강화 방안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이 정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 많은 기관에서 적합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 과정에 임금피크제 경험자나 대상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이 기관 HRD와 연계하여 개발 및 관리되고 있으며, 전직지원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 임금피크제 인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도 향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은 임금피크제 운영에 있어 향후 신규채용 인건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 임금 조정률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지침을 따른 점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신규직무를 개발하고, 평가·보상체계를 안정화하는 등 임금피크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도 적용 근로자의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및 관련 전직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업과 관련한 데이터가 성과지표로 관리되는 단계로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11) 노사관계

○ 대다수 기관에서는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계획과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추진 전략, 실천 과제, 성과 지표 등을 세부적 및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점검, 관리하는 활동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기관이 노사관계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였다. 다수 기관이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기관의 HRD에 연계하고, 교육 대상자별 역량에 맞춘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대상자별로 차별화한 프로그램조차, 단발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사관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고도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대다수 기관에서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 노력이 확인된다. 기관들은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고충처리 제도를 통합, 신규발굴하고, 활용이 저조한 경우 선제적인 고충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고충민원의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다만, 고충 민원 분석이 대부분 단순 분류에 그쳐, 근로조건 개선 민원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 및 분석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민원 관리 분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 혁신노력 및 성과

○ 대다수 기관이 정부의 혁신방향을 반영하여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한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위수준의 경영목표나 경영전략을 혁신목표나 혁신과제와 연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계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의 혁신방향과 혁신과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혁신과제와 세부혁신과제가 불일치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된다. 전년대비 혁신추진계획에 따른 혁신과제 수가 대폭 증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혁신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정합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기관이 혁신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전사적인 협의체 조직을 통해 혁신추진계획 이행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보상체계와 관련해, 대다수 기관이 성과평가 가점 및 포상제도 등을 통해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특별승진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수프로그램 기회 제공 외에도 혁신역량 강화의 연계한 보상방안의 개발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대다수 기관이 대내적 차원에서 주니어보드 등 하급직원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대외적 차원에서 시민참여혁신단의 구성·운영하여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게 파악된다. 기관에 따라 직원유형별로 추가적인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공기관협의체나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확대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도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혁신네트워크의 운영이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과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혁신과제의 실무적 수행이나, 제안된 과제의 심사·선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대다수 기관이 정부지침에 따라 내부규정 가운데 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발굴하고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에 따라 규제발굴의 규모나 규제입증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개선 실적에 편차가 있으나, 상당수의 기관이 규제적 성격의 규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이 핵심적 경영전략 및 경영방침 달성과 연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점 추진과제의 다양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에 있어서는 혁신성이나 도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편이다.

○ 다수 기관에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상당한 규모의 건의과제 발굴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외에도 개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시로 의견수렴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단위조직이나 사업과 연계한 참여와 소통 실적 등이 확인된다.

다만, 대규모 의견수렴 및 건의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다수 기관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경영공시 점검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혁신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적극행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이 고유사업을 통해 취득한 자료의 개방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혁신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으며 중점추진 과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영관리 범주(계량)

(1) 종 합

○ 당기 강소형에 포함된 기관은 총 41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2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 2곳이 강소형 유형으로 편입되고, 국립생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집행형 유형으로 이전되었다. 전체 지표(41개 기관)의 평균 득점률은 88.9점으로 전년도(43개 기관)의 90.818점보다 1.918점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개별 기관별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98.757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62.974점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그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가장 높은 상승률(25.286%)을 기록하였으며,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득점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나머지 25개 기관은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하락하였는데 그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가장 높은 하락률(△33.455%)을 기록하였으며, 아시아문화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 지표별

○ 강소형 유형의 경영관리 성과를 사회적 가치 구현, 경영정보공시점검 및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가치 구현의 평균 득점률은 90.184점으로 가중치 7점에서 6.313점이 득점되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득점률 99.171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한국보육진흥원이 73.229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평균 득점률은 55.61점으로 전년도 78.3점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10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점을 득점하여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고객만족도의 평균 득점률은 89.851점으로 전년도 94.3점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이 득점률 100점으로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득점률 80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 2020년 경영관리 계량 평가분야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가중치 5점) 지표가 존재한다.

- 해당 지표 평점은 71.06점으로 전년도 72.22점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의 경우, 강소형 41개 기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제외한 40개 기관이 총인건비인상률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사업 범주(비계량)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대부분의 강소형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여건, 정부정책, 국민의견 등 대내외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주요사업별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지표 풀(pool)에서 SMART 및 정책적 중요도, 사회적 가치 등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시 중장기 경영목표, 과거 추세분석,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외 우수기관 비교 등을 고려하였으며,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은 주요사업들간 사업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있거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성과지표 선정과 실행과제 도출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요소가 주요사업 내용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들은 주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인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기관이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주요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DCA 절차에 따라 각 주요사업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집행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주요사업 집행 노력은 인정되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노력과 성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고도로 반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대비 효과성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수의 기관에서 설정한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성과지표에서 달성한 실적은 기관의 당해연도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요사업 계량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비계량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비계량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비계량적 성과지표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량적 성과 위주로 성과가 제시되어 질적 성과 측면에서 당해연도 기관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환류활동 측면에서 다수의 기관들은 사업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국회, 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는 바, 전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환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적사항이 기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환류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 활동은 대부분의 기관이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류 노력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기제 및 주기 등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한 세부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성과달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그 결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실행의 모니터링 및 환류에 있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 기관들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설립목적과 비전, 주요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함으로써 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기관은 주요사업에 부합하는 지표를 구성하였고, 주요사업 지표와 주요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는 실적 산정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주요사업 대표성 측면에서 지표의 산식이 주요사업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사업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과, 기관 주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실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산식의 개발, 관리를 통해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기관에서 지표 구성의 항목이 주요사업 수행 노력과 성과의 일부만을 포함한 경우는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간 가중치 배분 시 인력과 예산,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 등 기관 업무의 비중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절한 평가방식을 통해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표관리의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지표의 성격을 갖는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사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지표의 평가방식으로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중장기목표부여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다만,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의해 목표대실적 혹은 중장기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부 지표는 비록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목표의 도전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되는 지표 중 임계치에 도달한 지표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지표 계산을 위해 국가통계,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기관의 경우 성과 데이터 누락, 데이터의 중복 계상 등 계량지표 산정시 신뢰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4. 주요사업 범주(계량)

(1) 종 합

○ 강소형 기관들은 2020년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보통 4~7개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강소형 기관 전체로는 41개 기관이 총 201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평가방식으로는 대부분 목표부여(편차) 방식(100개)과 목표부여 방식(68개)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목표대실적 방식(28개), 중장기목표부여 방식(4개) 또는 글로벌실적비교 방식(1개)을 활용하였다. 기관별 주요사업의 계량 가중치는 31점으로 동일하며, 기관들은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계량 가중치를 사업별로 조정하였다.

○ 강소형 유형에 속한 41개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은 전년 대비 0.455%p 하락한 94.732%를 기록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5개 기관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창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각각 12.916%p, 10.261%p, 7.503%p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20개 기관의 득점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득점률이 전년 대비 각각 14.839%p, 10.971%p, 8.010%p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 강소형 유형의 경우, 2019년 평가에서는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7개 기관, 95%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22개 기관이었으며, 2020년 평가에서도 100%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7개, 90% 이상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이

28개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강소형 기관의 대다수(약85%)가 90%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여 주요사업 계량 득점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계량지표 득점률의 표준편차는 5.120%p로 기관간 성과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계량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강소형 유형의 득점률 분포를 살펴보면,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7개 기관이 100%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8개 기관이 9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80% 대의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80% 미만의 득점률을 기록한 기관은 없었다.

○ 강소형 유형에 속한 41개 기관 중 19개(약 46%)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사업 계량실적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조정을 요청한 지표수는 35개(전체 지표수 201개 대비 17%)로 확인된다. 코로나19 결측/보정 지침에 따라 평가단이 최종 수용한 지표수는 24개로 수용률은 약 69%이며, 수용에 따른 해당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83%(준정부 전체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약 94%)로 나타났다.

5. 혁신성장 가점

(1) 혁신성장

○ 강소형 기관들은 설립목적과 비전에 기초하여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방향성 수립과 중점사업 선정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체계적인 혁신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혁신성장 경영을 도모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분야의 혁신성장 수요창출 성과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분야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성과가 두드러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기관의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혁신기술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신성장의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IoT, 인공지능, AR·VR,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기관의 주요사업에 융합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혁신성장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과 '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세부적인 성과 요소로서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두 가지 혁신성장 요소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많은 기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기관 고유의 데이터 수집, 가공 및 품질관리 방법과 효율적인 대국민 공유 및 개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넘어 민간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 대다수 기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정책, 내부환경, 이해관계자 니즈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 고통분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중·소사업자 지원, 취약사업자 지원 및 거래기업 지원 과제를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장,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의 급여 반납을 통해 코로나 성금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 현금선결제 운영확대, 지역 상생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조기 집행하여 재무 상황이 취약한 창업기업, 협력/위탁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의 판로개척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및 일자리 창출 성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현장 대응인력 확보, 국내 마스크 대란 당시 선제적인 물량 확보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 노인인력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대다수 기관은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기관 맞춤형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뉴딜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뉴딜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의 뉴딜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다수 기관은 각 기관의 특화된 방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바이오·헬스분야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국민 안전 중심 기상·지진서비스 시행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스마트팜, 다부처 R&D 추진 및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축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다수 기관이 도출한 추진과제 중 다수가 중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로 성과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제들이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시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이전부터 지속하여 오던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구분하여 전략 체계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제방송교류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D^{+}	3	2.41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D^{+}	3	2.046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0	0.4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				
	(1) 해외 시청자평가지수 달성도			11	11.000
	(2) 한국뉴스 글로벌 영향력 강화 성과			5	5.000
	(3)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2.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				
	(1) 아리랑TV 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13	13.000
	(2)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2	2.000
	(3)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관의 비전 달성 핵심 성공 요인을 기반으로 중장기 경영목표와 성과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전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되었던 경영목표의 명확화와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영전략 실행체계를 통해 2020년 경영목표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장이 해외 플랫폼 진입 수신 가구 전년 대비 13%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 불안정한 인건비 확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건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 및 문체부로부터 인건비의 국고 기금 지원을 확보하여 경영여건을 안정적으로 마련한 성과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편,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모색이 필요하고 연차사용 확대 노력을 통한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선택적 근무제 신규 도입 등 개선의 노력을 하였다. 방송사업 업무 특성으로 인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일자리 창출과 워라벨의 개선을 위한 연장근무 등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므로 '집중근무제' 등의 도입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단시간근로자 1명과 장애인 청년인턴 1명을 신규채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컨설팅을 받아 장애인고용 확대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은 긍정적 노력으로 인정된다.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에 따른 정부지침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정보 서비스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정례 브리핑"을 생중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 지역 상생·협력 종합실행계획의 미비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의견수렴-계획과 운영 차별화-성과평가-환류가 가능하도록 지역협력 사업운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구현위원회와 동반성장 추진 TFT를 구성하고 내·외부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기관 특성 기반의 지역 맞춤형 지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법적 위상 미비와 같은 약점요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기회 요인과 위협요인을 기관의 미션·비전, 경영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정확히 규명하여 전략 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사 보도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공공콘텐츠 편성은 시사 정보의 경우 2019년 27.0%에서 2020년 36.5%로, 한국문화의 경우 2019년 14.0%에서 2020년 20.0%로 각각 확대되었으나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렴조직문화 수준 가운데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점수, 업무청렴 수준 가운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청렴문화 조성과 예산 위법·부당 집행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총인건비 관리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평점 100점, 득점 3점을 획득하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는 평점 100점으로 득점 1점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나머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득점률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평점 80.6점, 득점 2.417점을 획득하였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평점 68.2점으로 득점 2.046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도 평점 40점, 득점 0.4점을 획득했으나, 국민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제외 기관으로, 결측 처리되었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과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도출하였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관은 성과목표와 연계한 지표 풀(Pool)을 도출하여 SMART, 전략적 중요도 및 사회적 가치 요인을 고려한 적합성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적절하게 SWOT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부실행과제와 실행계획을 도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 한국문화/산업 진흥 콘텐츠 제작, 뉴노멀시대 미래방송기술의 3개 대상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이 비상방송추진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안 뉴스의 전년대비 온라인 시청수 증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성과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관의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은 국제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상사업 각각의 실행과제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 사업을 위해 4개의 계량지표를, 그리고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위해 5개의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계량 성과지표 모두 다 목표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지표는 목표의 도전성이 미흡하기에 지표의 측정방식 및 도전성 제고를 위해 지표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해 4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사업과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높다고 파악된다. 다만, 일부 지표에서 산식에 측정 단위가 다른 두 지표가 포함되는 등 지표의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요소가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제방송교류재단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방송콘텐츠 공익성 제고사업의 ‘해외 시청자평가지수 달성도’ 지표와 ‘한국뉴스 글로벌 영향력 강화 성과’ 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해외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아리랑TV 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지표와 ‘아리랑 라디오콘텐츠 온라인 확산 성과’ 지표 역시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44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733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6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토교통산업 미래성장동력 육성				
	(1) 국토교통분야 기획 기능 강화			10	10.000
	(2) 국토교통산업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SOC 안전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				
	(1)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12	12.000
	(2) SOC 안전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국토교통기술 연구인프라 고도화				
	(1) 신진연구자 양성 노력			6	6.00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3) 국토교통기술 연구인프라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KAIA 맞춤형 사회적가치지수를 개발하여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다만 경영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에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외 평가에서 인정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 R&D 연계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제도교육 및 실적관리로 청년 223명 채용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성과관리를 통하여 직접고용 4명을 창출 하였다. 다만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적이 부족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인권감수성 면접질문 추가, 여성 관리자 목표비율 이행, 노사 간 차별해소 과제 공동 발굴 및 이행 등의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그린뉴딜도시 인프라 구축, 버스정류장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도입, 택배노동자 작업량 경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기관 내의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관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비리 사전차단 및 채용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며, 직무평가 요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리후생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략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노사가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설계와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직무가치 보수체계로 전환하고 노사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원만하게 최초의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혁신과제의 선정과 추진에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과 관련한 목표를 보다 도전적

으로 수립하고 외부 조직과의 실질적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관은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R&D 제도개선 패스트트랙”으로 민간납부금 납부경감, 정부 R&D 참여기회 확대, 기술료 납부 기한 유예 및 감면, 연구기간과 연구계획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청사 방문자 및 임직원에 대하여 확진자 제로를 달성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87.348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81.56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447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하여 간접고용근로자 8명 전원 정규직 조기 전환('18.7) 및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였고, 2020년 청년미취업자 신규채용 비중은 2년 연속 의무고용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실적은 2019년 대비 3.29%에서 3.38%로 소폭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73.333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733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장애인 채용인원 비율은 정부지침에 따라 2018년 3.79%, 2019년 5.95%, 2020년 6.12% 달성하여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국가유공자 채용인원 비율은 채용의무 인원 6명으로 2018년 3명, 2019년 이후 4명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채용의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상품, 여성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 모두 최근 3년간 만점을 획득하며 정부권장수준을 준수하고 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22%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임원연봉 공시오류(1건), 신규채용 현황 공시오류(8건)에 대해 벌점이 총 6.5점 부과되었고, 벌점구간 5.0점~10.0점에 해당하여 0.4점 득점하였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6.827점이고,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목표점수를 달성하여 93.02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영평가에는 0.465점을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효율적인 세부사업 추진과 자원 배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가치 중심 사업체계로 전환하여 '국토교통산업 미래성장동력 육성', 'SOC 안전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 '국토교통기술 연구 인프라 고도화' 등 3개의 주요사업을 변경하고,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주요 이슈와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SMART 분석,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를 이용한 성과지표 분석을 통해 각각의 주요사업별 6개의 계량 성과지표와 3개의 비계량 성과지표 선정 및 체계적인 절차 구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와 연계된 계량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과중장기 사업전략에 있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R&D 기술검증에 의한 국토교통 산업현장 법·제도 개선 39건은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것으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드론 실증연구는 다른 기관과의 중복투자 방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 체감형 R&D를 위해 주거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주거환경에 적용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수소 도시 친환경성 및 안정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사업에서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다. 특히 개방형 데이터 허브를 이용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과 물류창고 레고형 자동반출 시스템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경감할 수 있어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2025년 일자리 1.4만 개를 실질적인 성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환류 활동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국토교통산업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의 '국토교통분야 기획기능 강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SOC 안전관리 및 도시문제 해결사업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제고 노력' 지표에 대해서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국토교통기술 연구인프라 고도화사업의 '신진연구자 양성 노력' 지표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 또한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9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3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42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1)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10	8.703
	(2)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2.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1) 도농교류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성과			6	4.427
	(2) 귀농귀촌활성화 성과			7	6.154
	(3)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8	C		
	3.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1)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성과			3	3.000
	(2) 농식품 IT융합모델 확산실적			5	3.383
	(3)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 보강 및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전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수립하라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가치 업무 전담조직 신설 및 노사합의를 통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했다. 비핵심사업 조정으로 절감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핵심사업 기반 및 공익직불제 등 현장 중심 농정과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스마트팜 분야 기술 컨설팅, 농식품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의 직접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 확대, 폐업·실직자 대상 단기 일자리 제공 등 기관 고유 업무와 연계한 농산업 분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공무직의 인사제도, 보수에 있어 지속적인 처우를 개선한 것, 여성관리자 지속 육성 및 임용 확대한 것,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추가 개발, 지역상생과 연계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만족도 향상, 안전 관리 전담팀 신설한 점, 노사상생 TFT 신설, 하위직급 임금현실화 등 근로 조건 향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정한 입찰 문화 확산, 스마트팜 분야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상생 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 청렴 우수기관 선정, 반부패 시책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관의 윤리경영 실현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스마트농업 기술, 빅데이터 분야 농산업 혁신성장 선도한 점, D.N.A 생태계 기반 농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반 농업교육 및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등 디지털·그린 뉴딜의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협력 과제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과제 성과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기관 고유 혁신역량 한계 극복, 공동 실행력 확보 관점에서 혁신네트워크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99.057점(만점 100점), 득점 6.934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99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1.0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936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70.000점, 장애인생산품 지표는 99.018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1.423점 (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0.204점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기반하여 경영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을 도출하는 한편, 대내외 사업여건 분석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데이터 공유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노력을 통해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이 민간 기업과 함께 데이터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에 실제 적용하고, 데이터 품질강화를 위해 농식품 데이터 표준 및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정보화전략(ISP)을

수립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중복된 스마트팜 사업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도시민 귀농귀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DB를 수집하고 귀농귀촌 유치활동 우수지자체를 발굴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PDCA의 틀에 따라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관이 '19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20년에 반영하여 환류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20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1년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취창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농업기술표준 교육맵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개발에 참여한 것은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5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표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개의 성과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적절히 연계되고 적절한 가중치 배분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쌀 산업정책의 영향을 감안할 때 목표설정의 도전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복합지표의 경우 산식에 사용된 데이터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농업 전문인력 육성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87.0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농업 농촌 활성화 사업의 '도농교류 확대 및 소비 활성화 성과' 지표와 '귀농귀촌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73.78%, 87.9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농식품 정보화 촉진사업의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성과' 지표와 '농식품 IT융합모델 확산 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67.6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2.80%인 25.667점으로 평가되었다.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8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42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04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R&D 관리체계 고도화				
	(1) 농식품 R&D 지원 효과			8	8.00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3) R&D 관리체계 고도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2.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				
	(1)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실적)			9	8.324
	(2)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5	5.000
	(3)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6	5.132
	(4)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가치체계를 재설정하고 iPET 사회적가치기여도 조사를 정례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미션과 비전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은 GVC에 기반한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 농자재·농기계 개발 및 농업현장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농산업 성장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다. 한편 합리적 인력관리를 통한 정현원차 해소를 하였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신규인력과 결원인력 충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였다. 다만 환경보전 활동 전반에 걸친 추진계획 마련과 조직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안전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 강화 노력을 하였으나 안전관리 조직의 전문성 강화, 각종 매뉴얼의 내재화와 정보보안 의식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 기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취업 확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노력도 기울였다. 기관은 핵심업무의 전문성에 관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R&D 기획 전문가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직위 양성교육을 실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제를 목표제로 운영하고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관은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직무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직무평가의 결과를 보수체계와 연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노사공동 협의체를 재구축하고 노사협력 TF를 통해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개정하고 공무직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관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의 실행 범위와 내용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혁신 협의체 역할 명확화, 온라인 소통채널 확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혁신과제 수립 및 평가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PDCA 전 과정에 혁신 관련 조직 참여, 맞춤형 혁신교육, 혁신 사례의 내재화 활동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별 최적 자립화 모델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농업생태계 및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7점 중 6.742점을 획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이 0.287점에서 0점으로 하락하였으나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1.031점에서 1.800점으로 개선되어, 전년도 2.318점에서 당년도 2.800점으로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2.894점에서 2.942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여성기업생산품 지표에서 평점 100점을 획득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총인건비 관리에서 인건비 인상률 1.275%를 기록해 인상률 기준 2.8%를 준수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는 평점 60점으로 전년도 66.7점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에서는 평점 88.6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89.5점 보다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R&D 관리체계 고도화’,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미션과 비전, 경영

목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반영하여 4개의 전략목표와 이와 연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활용한 약점과 위협요인의 분석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기 사업 로드맵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설정 근거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표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제시한 점은 적절하나, 평가 계획 수립 시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기여도를 제시하였고, 핵심성과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POOL을 이용한 잠재적 지표를 확보한 후 SMART 분석, 사회적 가치 등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선진기관의 수준을 목표로 GAP 분석을 시행하고 Catch-up 전략을 발굴하는 벤치마킹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P-D-C-A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되고 있고 경영평가단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외부평가와 연계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목표별로 20년 자체평가 결과와 21년 환류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가치 측면의 환류 내용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R&D 관리체계 고도화사업의 ‘농식품 R&D 지원 효과’ 지표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농림식품기술 상용화 촉진사업의 ‘R&D 사업화 성과(기술이전 실적)’ 지표, ‘농식품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 조성’ 지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92.48%, 100%, 85.5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5.02%인 29.456점으로 평가되었다.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85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	3	2.851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06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농업기술실용화				
	(1)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6	3.656
	(2)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5	4.831
	(3) 기술기반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10	10.000
	(4) 농업기술실용화 성과관리 적정성	13	B^{+}		
	2. 농산업 공공성 제고				
	(1) 국내육성품종 종자 보급률			6	6.000
	(2)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			4	4.000
	(3) 농산업 공공성 제고 성과관리 적정성	6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30 신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별 미래전략 방향 도출 및 사업 중심축을 조정하여 미래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래 핵심사업 중심 사업구조 재정립을 위하여 경제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이 다소 모호하고 공공수요 변화에 대한 방향성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면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에 대하여 기관의 전략체계와 연계하여 고도화하고자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신사업 발굴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제도정비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6대 핵심사업 일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채용 과정의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적절하나 당해연도 여성임원 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고유 사업을 연계한 환경보전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체계 수립을 위해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전담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법정 의무사항을 상회하여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소액 발주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및 이전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인정되며 종합청렴도 등급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활용한 윤리경영 진단 활동도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자체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실적이 확인되지만,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조직인력 운용계획의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도 제기된다. 기관은 직무급제 중기 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직원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직무분석 및 평가 결과에 연계된 직무급은 부족하여, 향후 보수체계 적용 과정에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복리후생비가 낮은 편이나, 그럼에도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 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전환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급여 복리후생 확대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일원화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노사관계 역량 강화 교육이 제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은 주요사업과 전문성 등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및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선도형 경제구축을 위한 농식품 분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득점률은 92.722점으로 전기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목표 달성 등에 따라 평점 95.00점 득점 2.85점을 획득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지표는 전기까지 2년 연속하여 100.00점을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소 하락한 평점 90점, 득점 0.9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기술개발생산품 구매실적 이외의 모든 세부지표에서 만점을 달성하여 평점 95.033점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2.8%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3.9점이 부과되었고, 전년대비(벌점 2.0점) 벌점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벌점 구간별 득점방식 적용으로 평점 60.000점을 달성하였다. 고객만족도 평가지표인 종합지수를 2019년, 2020년에 모두 89.6점을 달성하여 평점 92.4점, 득점 0.462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새롭게 수립한 2030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농업기술실용화', '농산업 공공성 제고'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방향을 재정립하였다.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강조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설정근거 및 사업여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한 성과목표-추진방향-실행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과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추진하면서 모든 세부사업별로 경영자원(조직, 인력, 예산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 외에도 협업·참여·소통확대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코로나19 신속대응'을 통해 129개 과제(117억 원)에 대해 사업비 조기집행을 수행하였고, 저금리대출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비대면 소요자금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기한이 12일 단축되어 빠른 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수 신품종 보급 및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에 2020 국제종자박람회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VR 전시포와 가상 박람회장을 구축하여 다양한 온라인 B2B 프로그램 운영한 점과 지역학교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에 따른 종자산업가 양성을 통해 '20년 지역발전 기여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개선 환류 활동 관점에서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지속적인 성과창출에 필요한 운영주체의 역량이 함께 강화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농업기술 실용화사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성과' 지표, '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 '기술기반 농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60.93%, 96.61%,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농산업 공공성 제고사업의 '국내육성품종 종자 보급률' 지표와 '우수 분석·검정 서비스 제공실적'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1.89%인 28.487점으로 평가되었다.

6. 독립기념관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89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92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5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2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1) 독립정신 확산 전시콘텐츠 활용 성과			11	9.534
	(2) 관람객 안전사고 감축노력			2	1.960
	(3)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2.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1) 나라사랑 가치전달 확대 성과			9	9.000
	(2)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3.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1)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9	8.520
	(2)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 상황의 대응과 경영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경영목표를 개선하고, 도전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경영개선 측면에서 기능점검·미래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과제 선정의 과정에서 중요도와 공익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장기 전략과제와 연계한 노력이 인정된다.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혁신위원회', '일자리 창출 혁신 네트워크'를 신규로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AI활용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내서비스' 구축과 표준모델 정립을 통한 장기 지속 일자리 창출, 5G 인프라 접목 MR영상 콘텐츠 개발'로 혁신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 내규'를 개정하여 채용비위 직권면직 및 승진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과 고졸 채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 '기관 특성을 반영한 환경경영 실현'이라는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3대 전략 6대 실행과제를 도출한 것, 관람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관람객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안내 및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라이브 방식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를 통해 199백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시켜 중·소상공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관은 핵심기능인 학술연구기능을 강화와 기능통합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제도를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인사교류를 추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관 경영전략 및 인력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 로드맵이 포함된 HRD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직무급 도입을 위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합리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정규직과 공무직간의 차별 없는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사회 참관제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규정 및 단체협약에 명문화 하고, 안전의식 확산과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노사가 협력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은 체계적인 혁신 관리를 위해 혁신 목표수립, 과제 발굴, 성과관리, 보상체계, 역량개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인정되나 혁신 세부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독립기념관의 득점률은 95.383점으로 2019년 득점률 92.458점 대비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96.433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99.669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44.778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전년에는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올해에는 92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실적이 78점을 획득하여 평점 98.53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2.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평점 70.000점 득점으로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8.697점으로 평점 100.0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독립기념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주요사업은 전년도에 '여가문화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고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전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이다. 각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SWOT 분석과 국정 방향,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노력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 SWOT 분석을 다시 실시하면서 과정이 누락된 부분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온라인 연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5G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년도 지적사항을 연장하여 대전·충남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자료발굴 T/F 팀 연구원은 계약기간 관련 고용불안으로 인한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명사전 편찬의 대필의혹이 보도된 이후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바, 철저한 원인규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표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 항목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산식이 포함된 지표가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술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지표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독립기념관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의 계량지표를 설정

하였다. 대국민 역사의식 확산을 위한 공감 전시 사업의 '독립정신 확산 전시 콘텐츠 활용 성과' 지표와 '관람객 안전사고 감축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86.67%, 9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의 '나라사랑 가치 전달 확대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독립운동사 연구 사업의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94.6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3.59%인 29.014점으로 평가되었다.

7. 시청자미디어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81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0		
	㉯ 재난 및 안전관리	4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449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689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1)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8	8.000
	(2) 국민안전			2	2.000
	(3)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1)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10	9.544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1)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8	7.166
	(2)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 개선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1)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3	2.035
	(2)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2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부정책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설립목적을 재해석하고 재정의 된 설립목적에 따라 비전을 변경하였다.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의 사업방향을 4가지로 설정하고 미디어 교육, 미디어 접근성, 미디어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4대 개선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중요도와 공익·공공성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사업별 미래 혁신 방향을 설정한 노력은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최초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미디온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신규로 유아미디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더불어 기관은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대비 수어방송 제공 확대를 위해 재난전문 수어통역 인력을 109명 신규 양성하였다.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경영개선추진단 체제하에서 코로나19 전사 대응, 전략·조직·인사 효율화, 국민체감 혁신·안전, 공공서비스 사업혁신의 경영개선 과제를 도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전국 인프라를 갖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센터 재난대응인력을 추가 편성하고 안전담당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향후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단계별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은 전년도 일자리 성과의 분석과 보완을 통해서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PDCA 기반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실현하였다. 기관 경영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비전을 정립하고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 전략과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의 조성, 강화 및 확산을 위한 설계라고 보기에는 전략적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의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 센터별 지역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추진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향후 지역 현안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입체적인 과제 발굴 노력이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기관장 직속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경영 실행조직을 정비하였고,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 시 갑질 행위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더불어 기관은 정부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인권 친화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영향평가를 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권영향평가의 주기적 시행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인사 관련하여 기관은 사회적 가치 TF를 정규조직화하고 정책연구 기능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기능과 정책기능을 이관·통합하였으며, 8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중 4개 직위에 대해 2020년 신규채용을 하는 등 개방형 직위제를 충실히 운영하고자 하였다. 당초 직무급 도입에 대해 직원 수용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기관은 노·사가 전사적으로 협의 노력을 해 직무 중심 보수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향후 정교화된 직무기술서 고도화 노력, 직무 중심 경영관리 문화의 형성, 그리고 직무 중심 보수체계에 대한 수용도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혁신추진조직 구축을 위해 혁신총괄부서로 사회적가치팀을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전 직원이 혁신과제 발굴에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 등 보상 제도를 운용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혁신목표 아래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17대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고, 세부적으로 29대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혁신과제별 성과지표와 연도별 성과목표 및 추진일정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혁신과제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수용하거나 기관의 전사전략과제와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득점률은 86.513점으로 2019년 득점률 94.192점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93.700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전환실적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실적 미달성하여 전체 3점 만점에 2.811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달성하여 평점 100.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전체 7개 지표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구매 등 3개 항목에서 실적 100.000을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상품 우선구매 등 3개 항목의 실적 미달성으로, 전체 실적치는 81.633, 득점 2.449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1.078%로 2.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13.5점을 부과받아 평점 20.000점을 득점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보다 상승한 87.037로 평점97.700점을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설립목적과 미션·비전을 바탕으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환경개선,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사업 등의 4개의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각 사업을 위해 SMART 분석,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성과지표의 적합성분석을 통해 점수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고, SWOT 분석을 통하여 대상사업별 실행과제를 적절하게 도출하였다. 기관은 4개의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관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

업을 긴급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미디어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협력 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미디어 종합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시청권 보호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상생의 미디어 정책지원 다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4개 주요사업에 대해 중장기 목표와 사업 성과목표에 부합하고 대표성을 갖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사회적 가치 참여율 지표 및 자막·수어·화면해설 방송만족도 지표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사업의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산 성과' 지표와 '국민안전'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기여도' 지표에 대해서는 95.4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소외계층 방송시청 환경 개선 사업의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 제고' 지표는 목표 대비 89.5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사업의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지표는 목표 대비 67.8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2.73%인 28.745점으로 평가되었다.

8. 아시아문화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1.40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55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81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1) 아시아 문화 연구 성과			3	3.000
	(2) 아카이브 활성화 성과			4	4.000
	(3)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2.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1) 콘텐츠 활성화 성과			13	12.037
	(2) 콘텐츠 이용 만족도			3	2.631
	(3)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3.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				
	(1) 콘텐츠 교류협력 성과			4	4.000
	(2) 창제작 콘텐츠 유통 성과			4	4.000
	(3)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설립목적과 비전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기관의 역할 재정의, 확장된 R&R을 기준으로 가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도출된 전략목표와 부서별 KPI 연계를 통해 전략과제 실행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이라는 외부환경과 오프라인 사업체계, 비대면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부환경을 고려한 미래방향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유통플랫폼 확대, ACI形 DNA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성과 확대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 고유사업이 오프라인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밀접하므로 온·오프라인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비전, 성과목표에 기반 한 체계적·적극적 노력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였다. 2020년 8월에는 '아시아문화중심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로 정원채용을 실시하지 못해 기관의 정·현원차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과 인턴채용 등에 관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점은 구조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역량을 다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의 다양한 인프라 활용, 지역사회와의 협력·공유를 통해 청년자활사업단,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혁신적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증액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무장애(배리어프리) 안전관람 환경을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관람환경 개선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정량 지표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준법·윤리경영 비전과 목표에 따라, 청렴어사단 활동을 확대하고, 일상감사와 같은 준법·

윤리경영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내부청렴도 평가가 대폭 향상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부패·청렴 문화 환경 조성 부문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내부 청렴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경영현안에 대응하고 정부정책을 이행하고자 현안·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성장사업 중심 자원분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특별법 발의 등 기관 존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6개 본부 4개 부서 본부장이 공석되는 등 기관 운영에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19년에 기관 설립 근거법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 조직운영 진단과 조직개편을 준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무급 도입과 관련하여 직무분류체계 및 직무기술서 도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직무급도입위원회 근로자 위원 추가, 일터혁신컨설팅 신청 등 지속적인 기관 구성원과의 의견수렴과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이 근로조건 개선의 모멘텀이 되며, 직무가치에 따른 급여를 보장받는다는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특별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이후 단체 협약과 임금협약을 원활히 체결하며 무분규 조합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운영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 구성원이 혁신 주체로서 적극 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대외적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항시적인 소통체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라는 기관 존립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부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및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 설립 이후 축적된 양적·질적 성과뿐만 아니라, 양질의 물적·인적 자원 또한 아시아문화 발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를 위한 기반으로 고용승계를 통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75.171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46.900점, 가중치 3점 중 1.407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0.000점, 가중치 1점 중 0.9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98.500점, 가중치 3점 중 2.955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455%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연도별 벌점은 2017년도 17.5점, 2018년도 28점, 2019년 27.5점, 2020년 7.5점으로 과거에 비하여 벌점 수준이 대폭 개선되었다.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7년 85.651점, 2018년 82.035점, 2019년 87.544점 2020년 84.875점으로 2019년에 상승하였으나, 2020년 전년 대비 2.669점 하락하여, 고객만족도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을 도출하는 한편, 대내외 사업여건 분석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관은 성과목표와 연계한 지표 풀(Pool)을 도출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다만, 성과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 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 계량지표 외에 별도의 계량지표가 부족하여 성과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성과지표를 개발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평가대상사업과 성과목표를 구분하여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대상사업에 따라 기술하고,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각 실행과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아시아성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성과를 계량화한 아시아성 지수를 도입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이 제시한 실행과제들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대상은 무엇인지 등 '20년도에 추진된 구체적인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지표의 특성을 반영, 계량 및 비계량을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만, 주요사업의 정량적 성과가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9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20년에 반영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실적을 제시하는 한편, '20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1년 목표를 도출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된 주요 환류 성과는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설립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주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와 각 지표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을 적용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아시아 문화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와 문화향유 노력에 대한 평가 및 국내외 교류를 통한 콘텐츠 사업성과 지표는 각 사업의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세부지표들의 목표부여방식을 장기적으로 목표부여(편차)로 개선하여 목표의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아시아문화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아시아 문화 연구 및 자원활용 활성화 사업의 '아시아 문화 연구 성과' 지표와 '아카이브 활성화 성과'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사업의 '콘텐츠 활성화 성과' 지표와 '콘텐츠 이용 만족도' 지표는 목표 대비 각각 92.59%, 87.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문화예술 콘텐츠 국내외 교류·유통 사업의 '콘텐츠 교류협력 성과' 지표와 '창제작 콘텐츠 유통 성과'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5.70%인 29.668점으로 평가되었다.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C	3	2.90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684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2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연구성과 사업화				
	(1)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출자 및 이전실적			10	10.000
	(2)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9	9.000
	(3) 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D^{+}		
	2. 창업성장 지원				
	(1)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6	6.000
	(2)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6	6.000
	(3) 창업성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가치체계 내재화, 경영전략 개선 평가지표 및 윤리경영 측정 방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기관장은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구별 전담이사제 운영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경영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관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채용 전형을 추진하여 역대 최대 규모(33.5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양질의 과학기술기반 민간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하여 특구 펀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로 도입된 I-Spark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관은 2020년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하고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인증을 받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다만 기관은 채용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업체 간의 충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ISO45001 인증 취득 등을 통해 안전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활동의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공동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기관은 315개 특구기업에 기술혁신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화(R&BD) 과제 지원으로 매출 1,833억원을 올리는 등 공공기술 매칭·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사업 창출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직무분류와 직무기술서가 아직은 제도도입을 위한 탐색단계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안에 대한 노사합의, 이사회 승인 및 관련 규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체협약 체결 노력은 노사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관점에서 원만하게 체결되길 기대한다. 기관은 목적별 다양한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특구 입주기관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세부 혁신과제의 수행을 위한 자원배분, 과제 우선순위 설정, 혁신성과의 공유,

실질적 혁신역량 교육 등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 I-HOTEL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여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 공간 80호실 확보에 기여하였고 특구 내 마스크 제조업 긴급 입주승인을 통하여 26개사가 입주하여 당시 마스크 수급 위기상황을 해결한 것은 정부대책 대응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득점률은 90.591점으로 2019년 득점률 93.125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909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2.648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2.8%)이내인 1.948%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9점을 부여받아 0.400점(만점 0.5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3%로 0.425점(만점 0.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연구성과 사업화’, ‘창업·성장 지원’ 2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경영환경 변화, 글로벌 동향과 고객 니즈 및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한 성과목표 구축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기관과의 Gap 분석에 의한 Catch-up 전략을 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하고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점검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 기여도, 사회적 가치, SMART 분석을 통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사업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진단을 통해 성과지표 Pool을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와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였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면 계량 성과지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년도와 다른 이슈가 제시되었으나 전년과 같은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구 펀드 조성 및 투자금 유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나 부실 연구소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운영관리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 및 금융기관 협력에 의한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초기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고도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에서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이상, 비례량 성과지표는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지표는 결과지표로 변경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특구 우수기술을 활용할 대형 수요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처의 투자 및 기술이전 R&BD 지원 등에 의한 기획 창업 성과창출은 대기업과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한 사례로 판단되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과학기술기반 민간일자리 2,806개는 사업추진 과정 중 일자리 질과 유지율을 점검하는 환류 활동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연구성과 사업화사업의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출자 및 이전실적' 지표와 '사업화 지원기업의 매출액 향상 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실적' 지표와 '특구 내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지표에 대해서도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10.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D+	3	2.8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59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497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7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건설기계검사				
	(1) 건설기계검사실적			12	7.380
	(2) 건설기계검사 미수검률 저감			7	7.000
	(3) 건설기계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2. 건설기계 형식신고				
	(1) 건설기계 형식신고 실적			3	1.548
	(2) 건설기계 형식신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3.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1)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실적			5	5.000
	(2) 기관 내 무사고 달성 노력			4	4.000
	(3)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변화된 가치체계에 따른 전략과제,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략목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 달성 로드맵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을 구체화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목표 달성 로드맵을 중장기 자원 배분 계획에 기반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가치실현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분석 및 내외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선정된 성과과제가 전략과제와 연계되도록 구성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정현원차를 줄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창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기관의 주요 및 핵심사업과의 연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해 다양한 적합 직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고유 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교육 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보안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여전히 낮아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본원 및 지역검사소별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였지만 향후 지역사무소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윤리경영과 청렴경영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타워크레인안전본부를 설치는 적절하지만 기존 조직체계와 차별적으로 기관장 직속의 본부가 신설되고 있어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아직 직무평가의 결과를 보수체계와 연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에 따라 전직지원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 수립 등 제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도입 설계 등 주요 현안에서 노사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노사관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단발성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혁신과제에서의 반영정도가 다소 낮은 편이며, 추가적인 혁신과제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다가올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코로나 고통분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대다수 과제가 2020년 이후 추진될 예정으로 기대한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과제의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2 경영관리 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준정부기관으로 2번째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구현 7점 중 5.887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2.530점에서 2.800점으로 상승하였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에서 평점 0점을 받고 나머지 두 개 지표에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0.59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1.361점에서 2.49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지표에서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는 1.9%기준인상률에서 1.051%상승을 기록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는 평점 66.667점에서 20.000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고객만족도에서는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 '고객중심 검사서비스 강화',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제로'라는 경영목표에 맞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계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주요 사업 추진에서 출장검사소 확대 등 수검자 이동거리 단축,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친환경 검사 장비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 검사 대행기관 기술자 직무교육을 통한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에서 성과를 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건설기계검사 사업', '건설기계 형식신고 사업',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사업' 등 3개 주요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사업이 성과목표 전에 설정되고,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실행과제 성과지표가 이전에 제시되어 선정 이유와 근거 설명 등이 미흡하여 이러한 추진과정과 추진체계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조직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환류 활동에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PDCA 관점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경우 우수/미흡으로 구분하여 확산/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 계량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건설기계검사사업의 '건설기계검사실적' 지표와 '건설기계검사 미수검률 저감'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61.50%,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건설기계 형식신고사업의 '건설기계 형식신고 실적' 지표는 51.6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사업의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실적'지표와 '기관 내 무사고 달성 노력' 지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0.41%인 24.928점으로 평가되었다.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39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56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4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1.04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인공지능기반 지능화 선도				
	(1) 인공지능산업 확산성과			7	6.940
	(2)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5	4.709
	(3) 인공지능기반 지능화 선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1) SW 신서비스 사업화율			6	6.000
	(2) VR·AR 콘텐츠산업 활성화 매출 성과			7	4.340
	(3) ICT·SW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3.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				
	(1) ICT글로벌 벤처창업 지원성과			6	4.732
	(2)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부의 혁신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전략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장이 클라우드 업무환경 시스템 운영, 현업부서 중심 인력 운영,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제도 등 업무혁신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노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은 정현원차의 꾸준한 최소화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미흡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블라인드 전형, 외부인·감사인 참관, AI전형 도입 등 채용과정 전반의 개선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안전·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재난복구 등을 위한 매뉴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ICT를 활용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도 구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지역사회 참여형 문제해결을 추진하여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브랜드 기획, 지역민 소통·교류를 통한 사회문제 발굴 및 ICT 활용 해결방안 도출, NIPA IT SCHOOL 운영으로 ICT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였다. 기관은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AI 적용 바우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중심의 인적자원의 운영을 강화하여 AI 인력양성 등 핵심사업의 인력을 우선확대하고 SW 융합·규제 개선 등 사업인력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노사는 기관의 특성과 아울러 구성원의 수용성을 토대로 직무가치 평가 고도화,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 연계 강화, 기본연봉 및 직무급과의 연계 강화 노력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구성원의 니즈를 반영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 고용형태별 차별요소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혁신과제의 도출 및 운영에 있어서 내외부 혁신조직을 통해 혁신과제 추진·모니터링·평가 등의 객관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융합 중심의 혁신사업 추진이 강조되는 바, 보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 구성원의 실질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 충분히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자원을 투입하여 5G·AI 융합 확산을 통하여 국방, 헬스케어 등 사업화 매출액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영관리 부문 계량지표 득점률은 2019년 89.900점에서 2020년 81.687점으로 하락하였다. 주요 하락 원인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가 2019년 100점에서 2020년 56점으로 감소한 것 때문이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 2.8%를 준수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의 경우 경영정보공시는 2019년 83.4점에서 2020년 60점으로 하락하였고, 고객만족도는 2019년 88.6점에서 소폭하락하여 2020년 88.5점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년도에 이어 2개의 주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당해연도부터 ‘인공지능기반 지능화 선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기관이 AI진흥을 위해 주요사업에 반영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AI기술을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AI를 활용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수요기업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매칭함으로써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AI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AI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AI 진흥기관으로서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불편 타당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순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내부전문인력을 해당 사업에 배치하고 전공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관은 'ICT·SW 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W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의 경우에도 소외지역 미래인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SW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체계적이고 불편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향후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SW산업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대면 수출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신규 발굴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의 개선과 규제 사후관리, 인력양성의 질적 효과성 등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인공지능기반 지능화 선도사업의 '인공지능산업 확산성과' 지표와 '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사업화 성공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99.14%, 94.1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ICT·SW 기반 융합 신산업 확산 및 촉진사업의 'SW 신서비스 사업화율' 지표와 'VR·AR 콘텐츠산업 활성화 매출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대비 100%, 6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사업의 'ICT글로벌 벤처창업 지원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78.8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6.20%인 26.721점으로 평가되었다.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85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9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10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R&D혁신역량 강화				
	(1)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9	9.000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5	4.593
	(3)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7	7.000
	(4) 중소기업의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5) R&D혁신역량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C		
	2. 스마트제조혁신역량 강화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강화			3	3.000
	(2) 스마트공장 보급수준 고도화			4	4.000
	(3) 스마트제조혁신역량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R&D 평가에 애자일 조직 활용, 업무 RPA 자동화 등 업무프로세스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기관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성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이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R&D 평가위원 운영의 공정성,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매칭시키는 온라인 '기술인재 채용관'을 운영하여 '20년 기술인재 채용관에 875개 우수기업이 입점하여 1,197명의 일자리 매칭에 성공하였다. 기관은 ISO14001 인증 획득으로 환경경영을 위한 표준을 구축하였으나,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제품 구매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잠재적 부패리스크 발굴 및 관리를 추진목표로 청렴실천추진반 운영방향을 설정하였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리스크 고위험 직무 관리, 공정한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통하여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기관은 외부에서 충원한 전문인력이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반 제도와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은 직무등급의 세분화를 통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사 HRD 체계와 연계한 임금피크 대상자 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임금피크 적합직무에 대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아울러 전직 지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특별승진제도 시행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혁신네트워크실을 통해 외부구성원과의 효율적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사업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임직원 직급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추진전략의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KPI를 조정하고, 자발적 혁신조직의 강화, 온라인 소통채널의 활성화, 정보공개 처리시간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 기관은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금지원 및 제품 판로확보 지원 등의 요구에

경영난 기업 대상, 운영자금을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협조로 신속 대출 심사 및 기술보증 연계 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기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빅데이터·AI 기반의 제조데이터 공용 플랫폼(KAMP)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발판을 구축하고 제조기업의 지능형 공장화와 마이제조데이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 계량지표에서 10.861점(만점 11.5점)을 획득하였고, 평균득점률은 94.4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득점률 97.025점과 비교하여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주요 원인은 국민소통 지표가 2019년 99.450점에서 2020년 73.733점으로 감소한 것 때문이다. 또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2019년 100점에서 2020년 90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및 총인건비관리 관리 지표는 만점을 획득하였다. 한편, 일자리 창출 지표는 전년도 득점률 90.067점에서 95.167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도 전년도 98.400점에서 100점으로 득점률이 소폭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전년도의 주요사업인 'R&D 성과 확산' 사업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R&D 혁신역량 강화' 사업과 '스마트제조혁신 역량 강화' 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다. 기관은 전략분야와 사회적가치 및 환경변화와 연계된 실행과제 설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국민안전, 상생협력/지역경제 공헌, 포용성장, 안전한 근로환경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집행 과정,

성과 분석 및 환류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핵심 성과지표 선정 시 사업과 성과목표 간의 지속성 및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배분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DCA 관점에서 자체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 사업실적 평가, 평가 결과의 환류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달성한 성과를 내부·외부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국민 기술수요조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와 관련된 환류 활동의 효과성이 부족하며, 전년도 지적사항 중 글로벌 선진기관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별 목표를 고려하여 'R&D 혁신역량 강화'와 '스마트제조혁신 역량 강화' 2개 주요사업에 '유망기술 분야 투자실적' 등 8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의 성과지표는 정부정책과 대내외 환경변화 및 고객니즈를 반영하고 연계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목표의 도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입지표에서 성과지표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현안의 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R&D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100%, 91.86%, 100%,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스마트제조혁신 역량 강화사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수준 고도화'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69%인 30.593점으로 평가되었다.

13. 창업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5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46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36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				
	(1) 온라인 법인설립 비율			5	4.223
	(2)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생 만족도			5	4.017
	(3)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유망 창업기업 육성				
	(1) 창업사업 성공률			8	7.814
	(2) 창업기업 성장 성과			8	8.000
	(3) 유망 창업기업 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3. 지속성장역량				
	(1) 지속성장역량			5	4.413
	(2) 지속성장역량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창업진흥원은 전략의 최상위 수준인 미션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전략적 위치 매김이 달라져야 하지만 전략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화된 변화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소통 활동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다소 모호하고 미션 및 핵심 가치 변화에 따른 강화된 소통 대상으로의 변화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정현원차 1.1% 성과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으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명확한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형평적 인재 운영 내실화,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지표 개선 등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시행하였지만, 고졸자 적합직무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분야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환경분야 창업 이후의 성과 관리 노력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한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한 지역 창업인프라 및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나 고유사업 외에 차별화된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자체청렴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부패위험성을 진단하여 개선한 실적이 인정되지만, 자체청렴도 조사를 외부청렴도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전략과제의 마련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확인되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인력운영계획의 보완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제기된다. 기관은 직무중심보수체계 개편 중장기 계획을 새로 도입하고, 직무 분류 및 직무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직무 단위가 지나치게 넓어, 직무분류체계재정립이 필요

하다. 또한 기관은 임금피크제의 조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중장기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노력이 확인된다. 기관은 노사관계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비전 하에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가치혁신팀을 사회적가치혁신실로 승격하였으나, 전반적인 혁신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기관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 충실한 사회적 역할 이행을 목적으로 코로나 고통 분담 과제를 선정하고 뉴딜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다수의 과제가 2019년부터 진행되던 과제들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창업진흥원은 경영관리 부문의 계량지표 가중치 만점인 11.5점을 기준으로 10.806점을 득점하였으며, 평점은 전년도 기준 90.180점에서 93.965점으로 3.785점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의 평균 평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저조로 인하여 전년 90.033점에서 6.700점 하락한 83.333점으로, 전년 가중치 득점 2.701점에서 0.201점 하락한 2.500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100% 충족하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실적을 100% 달성하여 평점 100점, 가중치 만점인 1.000점을 득점하여 전년 해당지표의 가중치 득점 대비 0.500점 상승하였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은 운영하고 있지 않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등의 7개 항목에서 98.21%의 이행률을 보여 전년의 가중치 득점 2.862점보다 0.084점 상승한 2.946점을 득점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2.752%를 달성하여 가중치 만점인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지표는 경영정보공시에서 벌점 0.1점을 부여받아 평점 90점, 가중치 1.000점을 기준으로 0.900점을 득점하였으며,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653점을 득하여, 평점 91.920점으로 전년 92.500점 대비 0.580점 하락하였으며, 가중치 0.500점 만점 중 0.460점을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창업진흥원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대외 환경변화와 함께 전략과제의 이슈를 감안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을 배분하였고, 3개 주요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혁신노력과 성과, 코로나19 대응노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보유한 856개 파트너 기관과의 역량을 결집한 협력과제 추진 등 보다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에 바탕을 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 '유망창업기업 육성', '지속성장역량'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하였다. 3개 주요사업별로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SMART+S(사회적 가치)분석 시 지표별 객관성,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중장기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수준 달성을 위한 도전적 목표설정 및 벤치마킹 대상과의 Gap 분석 및 catch-up 전략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창업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손쉬운 창업환경 구축사업의 '온라인 법인설립 비율' 지표와 '온라인 창업교육 수료생 만족도'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84.47%, 80.35%의 달성률을 기록

하였다. 유망 창업기업 육성사업의 '창업사업 성공률' 지표와 '창업기업 성장 성과' 지표는 각각 97.68%,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지속성장역량사업의 '지속성장역량' 지표는 88.2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1.83%인 28.467점으로 평가되었다.

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D^0	3	2.22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	0.328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62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5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				
	(1) 통합센터 운영 지원 성과			10	9.542
	(2)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성과			3	3.000
	(3)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D^0		
	2.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1) 양육비 이행지원 성과			11	11.000
	(2)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3. 가족 다양성 수용증진 사업				
	(1)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성과			7	7.000
	(2) 가족 다양성 수용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D^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를 재설정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주무부처 관련법과 공운법상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기관의 분절적 조직운영 및 노사갈등과 직원 간 갈등이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기관장의 핵심가치 내재화와 조직원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노력 및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기관 전략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가 아직은 부족하며, 전략체계 내재화 수준은 타 기관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관의 분절적 조직운영을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기관 미션과 비전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통'이라는 핵심가치가 기관 내부적으로 갖는 중요성을 전략목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전략과제 성과를 산정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일자리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 추진과제, 성과지표 등 일자리 창출전략과 추진기반을 신규로 마련하여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 유관기관과 협력, 취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과 예비취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향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전략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 민간일자리 창출 계획마련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은 기간제 5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이후, 2019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특히, '가족전용상담전화' 관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부처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노력 등을 하였으나, 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인정의 어려움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 있어 이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외부위원 구성 확대, 채용규칙 개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응시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제도 개편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장애인 및 고졸인재 채용 노력과 적합직무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 분석과 대응을 위해 소통채널을 운영하였다. 낙후지역의 공적 돌봄 공급 한계 대응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등 지역문제 해결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경영전략목표와 핵심기능에 연계하여 조직인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으로 사업수행 효율성 및 업무량, 신규사업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직제개편과 인력재배치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감사실의 독립적 직제로의 편성과 감사실장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여 감사부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감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지속적으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조직 운용 계획에 맞춰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인력의 중장기 충원 계획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이루어졌으나 보수체계로 반영하는 단계에는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혁신에 있어 혁신목표 설정, 21개 실행과제 도출과 추진 노력, 성과점검과 공유확산 체계를 구축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장의 혁신의지를 담은 비전 수립과 선포, 현장소통과 협조체계 구축 등 혁신활동을 주도하였으며, 혁신참여혁신단은 기관의 혁신과제 발굴 이행점검 등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당년도 처음으로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5.172점(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고 평균 득점률 기준으로 73.886점이다. 세부점수 현황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 3개 항목에서 3점 만점에 2.224점을 득점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1점 만점에 0.328점을 득점,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3점 만점에 2.620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련 지표에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4.3%에 미달하는 -3.478%를 달성하여 3.000점(만점 3.000점)을 득점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경영공시 점검결과 벌점 9.1점으로 배점기준에 따라 득점 0.400점, 고객만족도는 84.843로 득점 0.457점으로 국민소통지표에서 총 0.857점(만점 1.5점)을 획득하여 평균득점률 57.133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이었던 '19년 사업과 비교하여 준정부기관으로서 '20년 주요사업의 구성이 크게 변경되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정책연계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구성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지표풀을 도출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다만,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세부실행과제의 내용과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의 비계량 성과지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준정부기관으로서 변화한 위상과 기능을 반영하는 주요사업 도출을 위해 중장기전략 등의 재설계를 통해 주요사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방지'라는 기관의 사회적 소명을 잘 수행하도록, 기관의 미션과 중장기전략을 혁신하고, 정책대상의 혁신적 발굴 및 관련 주요사업 개발을 통해 구체화할 때, 기관의 설립의의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을 적극 추진하면서 가족친화 직장교육생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함께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대전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고도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족친화 컨설팅 만족도 지표의 경우 가족친화 컨설팅의 단순만족도가 아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부영향 요인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스트레스 증가, 가족간 밀집도 및 대면시간 증가 등의 사회현상에 따른 상담증가 등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족상담 운영방식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 사업은 간접적 성과관리보다는 대국민 인식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 개선과 성과관리방식 전환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4개의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지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이 도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족 수용성 교육 효과의 구체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의 '통합센터 운영 지원 성과' 지표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각각 95.42%,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양육비 이행지원사업의 '양육비 이행지원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가족 다양성 수용증진 사업의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 성과' 지표 역시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52%인 30.542점으로 평가되었다.

1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66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491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63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				
	(1) 건강증진정책 성과도			7	4.624
	(2)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			6	6.000
	(3)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 성과관리의 적정성	8	D^{+}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1)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율			10	10.000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		
	3.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1) 흡연·음주폐해 예방 인지도			8	8.000
	(2)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5	D^{+}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중심의 혁신적 건강증진 사업추진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 실현'의 미션과, '온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의 비전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증진정책 제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를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신설하여 경영전략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혁신'을 기관의 키워드로 나아가기 위하여 외부환경 및 건강증진 분야 핵심 미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대비 추진 방향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미래방향에 따른 신규사업 Pool을 도출하고 내·외부와의 논의를 거쳐 3개의 신규 사업 개발과 3개의 기능조정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이관하고 기관의 역량을 신규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기관장은 혁신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기관의 핵심가치에 반영하고 대내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통하여 비전 및 핵심가치 내재화 지수가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서면 및 비대면 이사회 확대 및 비 상임이사의 현장경영 참여와 경영제언 건수가 증가한 것은 기관장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 5년 로드맵에 연계한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 분석 및 전년도 실적 환류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전략·실행 과제를 수립하여 계획-이행-점검-환류의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1인 월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이 전년도 보다 줄어 개선되었고 해당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인턴 13명을 채용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하며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였으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국민 안전을 위하여 금주 구역 지정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모델 개발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기관은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윤리경영 시스템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진단 및 투명성 제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관리, 윤리경영 성과공유 및 확산을 통하여 준법·윤리경영체계 운영을 하였다. 또한 기관운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통제관제도 도입, 기업민원 피해신고와 지원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신설, 블라인드 채용 전면 확대, 기록물관리 전담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록물 분류기준을 수립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직무분석, 평가체계 고도화, 평가-보수 연계의 중점과제에 대한 중장기로드맵을 도출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기관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기관장-실장-팀장-팀원의 직무 매트릭스'를 개발하였으며, 전 직원 직무기술서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직무범위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기관의 전사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한층 발휘하여 중앙정부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을 연결하는 임무수행을 통해 위기상황 속에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이행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득점률은 83.409점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처음 받은 전기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 2019년에는 인상율 상한인 1.8%를 초과하여 0.000점으로 득점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에는 2.8%이내 인상률 상한을 준수하여 만점을 획득하였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에서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평점 80점, 득점 0.8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득점률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감소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평점 88.9점, 득점 2.667를 획득하였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는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감소하여 평점

83.033점, 득점 2.491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13.1점(2019년 12.2점)으로 평점 20점, 득점 0.2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2019년 85.820점에서 2020년 83.630점으로 감소하여 평점 86.7점, 득점 0.434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설립목적인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위해 전략과제,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효율화',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 등 총 3개 사업이다. 성과지표에 대한 적합성 분석에서 SMART 분석뿐만 아니라 전략연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요사업별로 SWOT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광고는 효과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금연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아직도 크다고 판단되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의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률 지표와 같이 최근의 헬스케어 사업 양상과 변화 추세를 반영한 지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계량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산식에 사용된 변수가 기관의 성과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난도의 평가방식을 사용하는 지표의 경우 평가방식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건강증진정책 제도기반 구축사업의 '건강증진정책 성과도' 지표와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 증가율'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66.06%,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사업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율' 지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국민 건강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력 강화사업의 '흡연·음주폐해 예방 인지도' 지표 역시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2.34%인 28.624점으로 평가되었다.

16. 한국과학창의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0}		
	(3) 리더십	2	D^{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D^{0}	3	2.88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0}	1	0.536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D^{+}	3	2.845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3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과학기술 문화조성				
	(1)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6	6.000
	(2)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			4	4.000
	(3)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			4	3.595
	(4) 과학기술 문화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과학기술 인재육성				
	(1) 과학·수학·SW·STEAM 교육 진흥 성과			4.8	4.800
	(2)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9	9.000
	(3)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39.3**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기관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 가치체계 전반을 진단하여 비전과 핵심가치 경영방침을 재정의하였다. '과학 중심, 사람 중심, 신뢰받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체감 과학기술 혁신, 미래 사회 선도 인재양성, 교육 디지털 뉴딜 실현, 국민 신뢰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내·외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근본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혁신방안 수립 과정에서 내부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22회의 간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기관의 이슈와 문제를 청취하였고, 기관의 미션 및 인사·평가, 업무체계의 문제의식 수렴과 각 과제별 혁신아이디어를 수렴한 노력이 인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55명의 서면 자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기관의 역할과 위상 및 사업재편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실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비전·전략 수용도와 인사평가 공정성이 각각 0.3점, 0.5점 향상되는 등 기관 전반적으로 내부직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핵심가치가 청렴 및 사회적 가치에 치중되어 비전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경영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핵심가치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구체적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을 위하여 타겟 고객에 대한 통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문화산업의 다양화·전문화를 추진하였고 이는 과학문화 소비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일자리 창출 전략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일자리 성과목표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SDGs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환경 관련 체험 교육 진행, 환경 관련 우수과학도서 보급 등을 통해 학생과 도서

벽지 및 소외지역 소외계층에게도 환경보전 교육콘텐츠를 보급한 노력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학 융합한 청소년 교육으로 대국민 안전 확보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프로그램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코로나19 피해기관·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및 저소득노인 지원을 수행하였고 고유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관은 직무중심 기관운영을 위한 준비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113개 과업을 23개 수평적 직무(조직/기능)와 4단계 수직적 직무(역할)로 분류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이사회의결 및 취업규칙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89.486점(만점 100점), 득점 6.264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883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0.536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845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32.000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90.695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1.300점 (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0.534점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문화조성 사업의 성과목표로 과학문화 추진 기반 강화와 과학문화 국민 체감도 및 소통 증대를 설정하고, 과학기술문화사업 계획 수립,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민간 과학문화 지원 및 신시장 지원 확대, 과학문화 전문 일자리 창출 등의 실행과제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을 위하여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연계된 성과지표를 적절히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에 다수의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과학문화 거버넌스 개편으로 지역 거점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다수 발굴하고 과학문화 분야 787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과학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는 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직종 발굴을 위한 기관의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미래교육 혁신 추진을 위해 최초로 AI 정규수업을 시범실시하고 AI 교육 선도학교를 정규사업에 편성하는 등 AI 수업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AI 교육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였으며, 과학기술문화조성 사업의 지표를 통해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과학영재 육성 성과에서 학생 수 이외에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를 지표에 포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지수 산출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적절한 지표로의 대체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과학기술 문화조성사업의 '과학문화 사회소통 성과' 지표, '과학문화 격차해소 성과' 지표, '과학문화 소통 전문가 양성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100%, 100%, 89.8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의 '과학·수학·SW·STEAM 교육 진흥 성과' 지표와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각각 98.75%,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27.8점 중 98.54%인 27.395점으로 평가되었다.

17. 한국광해관리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64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C	1	0.7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		
	(2) 국민소통			1.5	1.27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광해관리사업				
	(1) 수질오염 저감			6	5.673
	(2) 토양복원사업의 법정기준치 달성도			6	5.995
	(3) 광해방지사업 완료 개소수			6	6.000
	(4) 광해방지사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2	1.968
	(5) 광해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2. 기술개발사업				
	(1) 기술개발 성과지수			5	5.000
	(2) 기술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3.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			6	6.000
	(2)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성장성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대응 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며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신규 및 미래 성장 대상 사업과 기능 조정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게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분석 기준이 공공성과 적합성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도표화된 과제의 위치가 포트폴리오 분석의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인력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정현원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나타나는 정현원차를 청년인턴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건비 재정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기관은 채용비리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과정 감사인 입회하에 채용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하였다. 고졸자 채용은 정규직 채용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합 직무의 개발, 채용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제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가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고유한 사업에 기반한 환경보전 노력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발주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산정기준 표준화, 설계 안전성 검토 분야 확대 등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기관은 공공기관 '공공구매 오디션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구축을 지원한 성과가 인정된다. 최근 3년간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종합청렴도 점수가 개선된 성과가 확인된다. 다만,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하여 전략적 개선방안의 발굴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과 혁신성장의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조직강화 및 중장기 인력 증대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기관통합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 진단과 방향설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무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일부 직무기술서 개선이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자의 직무급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기관은 상향식 복리후생 제도 발굴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리후생제도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노사관계 신 로드맵을 구축하고, 추진전략별 실적을 점검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한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기관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장을 포함한 경영진 주도의 혁신 관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달성 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차별적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기관의 뉴딜 추진체계를 기관 전략체계와 연계하였으나 많은 과제가 중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로 성과 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92.304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88.16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645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99.242%이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91.807%의 이행률을 보여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의무고용 초과달성 비중(기준 5%) 미달로 만점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2020년은 이행 실적이 없어 이행률은 0.000%로 나타났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70.0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700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40.000%의 이행률을 보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100%로 최근 3개년 100%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모두 2020년 100%로 최근 3개년 100%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20년 100%의 이행률을 달성하였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00%의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73%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공시오류 1건(1.5점)으로 1.5점의 벌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벌점 구간 0.5초과~1.5이하에 해당되어 득점 0.800점으로 득점하였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93.381점이고, 사업별 결과 및 해당 사업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고객만족도 달성도를 산출한 결과, 평점 94.020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0.5점 중 0.47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사업', '기술개발사업',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주요사업별 단위사업과 추진과제, 성과지표 등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은 설정된 계량지표에 대한 절차적 노력으로 비계량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 성과도출, 환류 수행 과정에서 개선된 실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단위사업에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보완하고, 계획 수립부터 환류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광해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고, 혁신기술 확산으로 국민 생활안전 강화와 상생협력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였으며,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중금속오염 토양복원농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획득, 광해방지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로 국민 생활안전 증진, 갱내 수열에너지 개발로 그린뉴딜 선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등은 대표적인 우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여건의 변화는 사전 추진계획과 실행, 성과, 환류에서 인과관계와 논리성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주요사업들의 추진계획과 성과측정에서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관리 노력이 추가된다면 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광해관리사업의 '수질오염 저감' 지표, '토양복원사업의 법정기준치 달성도' 지표, '광해방지사업 완료 개소수' 지표, '광해방지사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94.55%, 99.92%, 100%, 98.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과지수' 지표와 광산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83%인 30.636점으로 평가되었다.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60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613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2.444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258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1)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8	7.504
	(2)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2.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1)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5	4.716
	(2)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3.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1)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10	9.411
	(2)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4.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1)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8	8.000
	(2)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 경영여건과 내부 역량을 반영하여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달성에 필요한 전략과제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극복 등 전략방향을 도출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비상경영에 따른 위기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공공성 및 성장성을 고려한 매트릭스 분석과 SMART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적 자원을 재분배하여 추진한 노력도 인정된다. 또한, 기관장은 코로나 감염병의 이슈를 반영하여 이행방향을 변경하고 확대한 노력을 통해 중단·소외·장애 없는 교육을 위해 교육·학술·행재정 정보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안전한 교육정보 시스템을 운영한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전담 조직 일원화 필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필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개선하였고, 특히, 원격교육 분야 에듀테크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체계 수립을 통해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이들의 통점(pain-point)을 공유·분석하여 추진한 점은 혁신의 성과로 인정한다.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하여 청년 신규채용, 체험형 인턴 목표 초과 달성 및 지역인재와 국가유공자의 채용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 기관의 특성과 역량에 부합하여 K-방역 안전망 구축,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과제를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기관의 동반성장 브랜드로써 “비타민-K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한 점, 원문공개율이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 등을 볼 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관의 중장기 계획이 충실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적합직무 개발과 채용 성과가 미흡한 점, 기관의 업무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점,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개선되거나 추가

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정책 이행과 핵심업무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구축에 인력을 우선 배분하고, 한국판 뉴딜 중 교육정책 확산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 진단 및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위 신설을 통해 채용을 완료한 점,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확립하고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사업 특성이 반영된 신(新)직무체계(185개 직무)를 수립하여 직무평가를 완료한 노력은 있으나, 보수와 연계하고 제도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마련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및 상시적 원격교육 전면 시행의 정부정책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중단 없는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점, 나이스 기반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외발 입국자 교내감염을 사전 차단 및 클라우드 기반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제작 및 보급으로 차질 없는 학사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점 등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성과로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득점률은 86.287점으로 2019년 득점률 91.067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86.933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및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각각 평점 98.980점, 83.238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점 60.000점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평점 40.000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또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여 평점 82.5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100% 달성하였으나, 기관의 지속적인 구매 노력에도 중소기업생산품 등 4개 항목의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으로 평점 81.467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2.557%로 2.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에서는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의 경우 2020년 벌점 1.5점이 부과되어 평점 80.000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87.093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평점은 소폭 하락한 91.6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설립목적과 비전,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를 연계하고 기관 고유 업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학술정보 공개 데이터 확대, OER 기반 공개강의 확보량, 정보취약계층 활용 콘텐츠 확대 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경영평가 목표부여 최고 기준치로 설정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코로나19 상황 이전 '19년까지 20대 전략과제 중 대중인지도가 높았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사유를 주요사업 도출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교육시스템 중심으로 대전환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기관의 중장기 전략 재수립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하여 공고한 원격교육 지원 체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에듀통합플랫폼 ISP를 수립하고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에 착수한 성과확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제한으로 변경된 '21학년도 대입제도 도입과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이스 대입전형자료의 온라인 제공을 개선한 것은 적시성을 도모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머신러닝 기반 위협 분석 모델링 개발, 악성코드 탐지기법 등 에듀테크 시대 맞춤형 신규개발 및 정규화 확대 등에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4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표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지표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세부지표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기관 시스템 보호도 지표는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를 대표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표 삭제 및 실적 누적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맞춤형 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3.8%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고등교육 및 연구지원체제 고도화사업의 '학술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4.3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교육행재정정보서비스 활용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94.1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구현 사업의 '교육기관 정보보호체계 운영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5.58%인 29.631점으로 평가되었다.

19.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4	C	3	2.68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85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36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84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5	4.653
	(2) 기상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9	8.125
	(3)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D^{+}		
	2.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1) 국가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및 품질정확도 성과			7	7.000
	(2)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3. 기상 R&D 지원 사업				
	(1) 기상 R&D 지원 성과			7	5.632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3) 기상 R&D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관 전략의 달성을 위한 경영기획 부문의 지표관리체계가 기관 전체의 비전 달성과 연계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가치체계 진단이 필요하다. 기관은 현장 조사·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상장비 수리·정비 능력을 제고하여 예산절감과 장비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간보고업무에 지능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 간소화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장은 기상산업 진흥과 K-기상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날씨 경영 컨설턴트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되나 날씨 경영 컨설턴트 등 기상 관련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노력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재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한 청년,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인재 채용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보전 및 재난·안전관리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관은 청렴의 날, 청렴퀴즈, 클린신고센터 모의훈련, 청렴마일리지 등 청렴활동과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갑질실태조사 및 직원만족도조사를 통한 환류로 윤리경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노사공동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평가를 통해 직무역할급을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한 노력은 인정되나, 직무가치가 반영된 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노사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기관은 혁신목표, 혁신방향, 혁신과제 선정에 국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과제 간의 일관성, 과제와 성과지표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혁신역량 교육의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지식인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나, 대국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채널 및 정보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 안전 중심 기상·지진서비스 시행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검정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최초 지진관측장비 검정 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진관측장비 77대 시범 검정을 완료하였고 신규인력 19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84.757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89.56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687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7년부터 만점을 유지하였으나,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평점은 2017년 87.333점, 2018년 96.205점, 2019년 100점으로 지속 상승하였으나 2020년 91.429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평점은 2017년부터 만점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44.878점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56.03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85.0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850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평점은 2018년, 2019년 0점이었으나 2020년 평점 80점을 획득하면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2019년까지 만점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평점 90점을 획득하면서 다소 하락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78.86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366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점은 2016년부터 만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점은 24.770점을 획득하였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점은 10.525점을 획득하였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부터 만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점은 100점을 획득함으로서 최근 4년간 지속 상승하여 만점을 달성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점은 49.148점을 획득하였으며,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7년부터 만점을 유지하고 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3.8% 중 실적치 2.370%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기관은 지연공시 1건, 공시오류 1건 등이 발생하여 벌점 9.5점이 부과되었고, 벌점구간 5.0점~10.0점에 해당하여 0.4점 득점하였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점수 84.935점을 획득하여, 가중치 0.5점 대비 0.444점으로 평가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션, 경영목표 및 전략목표를 고려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기상 R&D 지원 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은 효율적 성과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므로 국민의 요구도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SMART 분석, 사회적 가치, 현안 대응 등을 이용한 지표분석을 통해 계량 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나 성과지표 Pool 구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 심사, 선정 절차를 제시하여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계획은 중기와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유통망 구축 및 운영에 의한 기상데이터 활용성 확대는 디지털 뉴딜 구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되나 빅데이터 처리 속도 및 분석의 정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상관측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상 기상 기술지원 및 협업 통한 기상관측장비 개선과 양질의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도모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온라인 기술거래 장터인 오픈 마켓 거래실적 활성화와 기초 R&D에 대한 관심 유지도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에서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이상, 비계량 성과지표는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배달 앱 주문 데이터와 배달주문 플랫폼 연계 기상서비스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환류 및 예측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양기상부이 설치는 위험기상 현장 및 국외 방사성 물질의 효율적 감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기관의 전문지식을 반영하는 적극적 환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기상산업 활성화사업의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기상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93.06%, 90.2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사업의 '국가기상관측장비 검정 수행 및 품질정확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기상 R&D 지원 성과사업의 '기상 R&D 지원 성과',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0.46%,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1.65%인 28.410점으로 평가되었다.

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2.64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42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3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				
	(1)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			5	5.000
	(2)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내실화			11	11.000
	(3)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2. 맞춤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1)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10	10.000
	(2)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5	5.000
	(3) 맞춤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외부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소통 노력은 기관의 전략 이행에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이해관계 목적성에 적합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장은 경영계약 과제에 대하여 중장기 전략과제와 연계하고 성과지표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실행 과정에서 빠른 환경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채용단계별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신설하고 채용 위탁업체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정성평가를 최소화하여 채용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역시 양적인 확대와 지속가능성 점검 등 체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 노인 안전전담부서 신설,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강화, 안전지킴이 제도 도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노인일자리 사망자가 10명으로 전년보다 3명 증가해,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 자문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제공한 실적이 확인되나, 고유사업 외에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년대비 종합청렴도가 1등급 하락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외부 청렴도의 등급 변동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의 핵심기능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협력부 및 사업총괄부, 교육안전부, 성장지원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 실적이 확인되나, 조직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합리적 보수체계추진 중장기 로드

맵을 재수립하였으나 보직자 직무분석, 직무평가군 합리적 조정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상향식 복리후생제도 발굴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 및 복리후생제도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새로운 복리후생제도 발굴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노사관계 중장기로드맵을 구축하고, '20년 신입직원 및 전직원 대상의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노력이 확인된다.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및 '4차 산업혁명·한국형 뉴딜 선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세부과제에 따른 추진성과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은 지역구매 확대, 규제 해소와 판로개척으로 노인 고용기업 고통 분담 동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94.157점(만점 100점), 득점 6.591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649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1.0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942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71.000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 지표에서 1.300점 (만점 1.5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사업'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등 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평가대상사업에 따른 실행과제를 설정하였다.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PDCA 관리 전반에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위험 속에서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사업인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사업'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어 성과를 창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정년퇴직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전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점은 세대통합형 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60+ 교육센터 운영으로 4,500명에게 교육을 하고 취업으로 연계한 성과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신규고용 창출 노력은 인정되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양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노인일자리 토양 조성사업의 '취업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수' 지표와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내실화'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의 '시니어인턴 계속고용률' 지표와 '고령자친화기업 고용 기여도' 지표 역시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21.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55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0		
	㉯ 재난 및 안전관리	2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861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67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맞춤형 디자인 지원 사업				
	(1)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8	8.000
	(2)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성과			9	9.000
	(3)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3	2.837
	(4)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2.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1) 전시사업 활성화 노력			9	8.508
	(2)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2	1.634
	(3)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비전2050을 선포하고 4가지 경영방침 9가지 철학, 8개 핵심가치, 9가지 중점업무를 마련하였으나, 가치체계의 연계성 제고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GVC에 기반한 디자인 산업 성장지원 강화 노력 및 구성원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미래 30년 전략 수립”의 경우 추정하고 있는 기간이 장기인 만큼 그 전략에 포함되고 있는 전제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관은 여성인재 역량 강화, 채용방식 내실화, 사회형평채용 강화·청년 및 청년인턴 최대 규모 채용 등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환경보전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조직을 구성하였으나, 환류 프로세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디자인 대가기준을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 업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기관은 인권경영 중장기전략, 인권경영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인권경영헌장 등 기본지침을 세우고 ISO 26000에 따른 인권분야 행동규범을 공표하였다. 기관은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사교류, 개방형 직위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인적 쇄신 노력을 하였다. 합리적인 보직 관리를 통한 전문성·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순환보직 및 공모직위제를 운영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직무급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구성원 공감대를 기반으로 직무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연계, 그리고 직무급 비중에 대한 적극적 관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환류에 반영하는 등 소통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전사 HRD체계와 연계하여 노사관계 역량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사의 전략체계와 혁신전략체계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에서 강조하는 융합

및 혁신과 관련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기관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의성 확보를 위한 추진 일정 조기 마련 및 성과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전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중간 점검 등을 통하여 해외 인턴쉽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해외 취업 판로개척을 한 것은 기관의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총인건비관리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서 높은 득점률을 달성하였으나, 국민소통 구현 지표에서 득점이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평점 85점, 득점 2.5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크게 상승하여 평점 100점으로 득점 1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기술개발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2개 항목의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의 실적은 전년 대비 만점 회복 내지 만점 유지를 달성하여 평점 95.367점, 득점 2.861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 2.8% 이내인 2.790%로 만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이 크게 증가하여 벌점 14점(2019년 2.5점)으로 평점 20점, 득점 0.2점을 획득하였고, 고객만족도는 2019년 88.134점에서 2020년 87.437점으로 소폭 감소하여 평점 94.9점, 득점 0.47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맞춤형 디자인 지원’,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고유기능 분석, 환경변화 분석, SWOT 분석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체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및 인력 비율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부여 체계에 대한 구체적 반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맞춤형 디자인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혁신기업 전주기 지원 고도화 노력을 통해 전년도 대비 디자인 혁신기업 지원율을 150% 향상했으며 다각도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 노력을 보인 점이 확인되며 이는 우수사례로써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민 참여형 디자인 확산 사업 성과에서의 기관의 역할 및 디자인과의 관계성이 모호하며 예산 효율성 제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관은 차세대 디자이너 지원 사업과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 협업 사업에서 다양한 전시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진국과의 교류 중심으로 보다 도전적인 세부사업 및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에서 설정한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P-D-C-A 관점에서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성과 및 사회적 가치 실현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이 확인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활동이 이루어졌음과 당해연도의 성과가 차후년도의 사업 성과목표 및 계획에 환류되는 과정을 명시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환류활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적절히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의 '디자인 일자리 창출 성과',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성과',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100%, 100%, 94.5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의 '전시사업 활성화 노력',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94.53%, 81.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6.71%인 29.979점으로 평가되었다.

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29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C	1	0.871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42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34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사업				
	(1) 보건복지 강사양성교육 운영 성과			6	6.000
	(2) 보건복지 전문교육 운영 성과			6	6.000
	(3) 보건복지 일자리교육 운영 성과			7	7.000
	(4)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C		
	2.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				
	(1)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품질 제고 성과			6	5.062
	(2)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콘텐츠 확대 성과			6	6.000
	(3)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중장기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실행수준에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기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내부평가와 연동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목표달성 로드맵을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치실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장의 경영성과 계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 및 인력, 예산 등의 배정하는 등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전년대비 정현원차 비율을 줄여 신규채용 인력을 전년대비 2배 확대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다만, 기관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철저한 채용관리감독을 위해 채용 전 과정 감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비리 Zero를 달성하였다. 여성 관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후의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의 제시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 활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인력 수요가 급증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도 획득하였다. 그러나 협력업체와 수급업체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협력업체의 자금안정을 위한 지급제도 정비 및 적극적인 선금 지급 촉진을 통해 연간 전체 계약 규모의 절반 이상에 대해 선금을 지급한 부분은 높은 성과로 판단된다. 감사팀을 감사부로 승격하고 감사부 내에 인권경영팀을 배치하여 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전담 조직으로서 감사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 실적이 인정되나 전년대비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여 미흡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전히 내부청렴도 등급은 매우 미흡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본부의 재편을 추진하였고 노사합동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승진시험도입을 통한 역량 중심의 관리자 평가제도를 도입한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은 직무기반 보수체계도입의 내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직원 참여형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류와 직무기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기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복리후생제도 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복리후생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성희롱, 괴롭힘 등 취약분야 개선 창구 마련 요청을 반영하여, 인권상담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무엇보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에 기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노력하였고 한국판 뉴딜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과제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로 세부 추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및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득점률은 90.336점으로 2019년 득점률 91.242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평점 76.333점을 획득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평점 86.374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평점 75.549점을 획득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의 경우 평점 33.101점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80.000점을 획득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평점 94.167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전체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으로 평점 71.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는 보수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2.668%로 2.8%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7.5점을 부과받아 평점 40.000점 득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실적치는 84.027로 0.434점(만점 0.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사업'과 '보건복지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 등 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추진과제를 설계하고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 등 PDCA 관리 전반에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위험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관의 주요사업인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 및 미래 대비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주요사업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검역관 및 감염병 초동대응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회안전망 인재양성 수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보건복지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글로벌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확대하여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 해소 및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

지표를 설정하였다.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사업의 '보건복지 강사양성교육 운영 성과' 지표, '보건복지 전문교육 운영 성과' 지표, '보건복지 일자리교육 운영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의 '보건복지인재양성 교육품질 제고 성과' 지표와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콘텐츠 확대 성과' 지표는 각각 84.37%,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6.97%인 30.062점으로 평가되었다.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C	3	2.74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C	1	0.7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		
	㉯ 재난 및 안전관리	2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22
	(5) 윤리경영	3	D^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0.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877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1) 글로벌 의료기술 개발 실적			4	3.518
	(2) 보건산업 원천기술 개발 실적			5	4.432
	(3)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4)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B^0		
	2.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1)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4	3.316
	(2)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5	3.940
	(3)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				
	(1)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10	10.000
	(2)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가치체계를 재정립하였으나 미션이 기관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새롭게 수립된 핵심가치인 사회적 책임의 의미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전문분야별 비상임이사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 기관장의 노력은 인정되나,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력, 자녀학비보조비, 사택 임차보증금 등 복리후생비 관리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 직원에 대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직무기술서 세분화, 면접관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 청년인턴 적합 직무 발굴 노력을 기울였으며,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의 보건산업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인증 추진은 긍정적이며, 사업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것도 인정된다. 기관은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센터장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나 특별승진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조직원의 사기 제고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구성원의 참여와 수용도를 토대로 전 직원 대상 직무가치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연봉 내에 직무가치 평가를 반영하는 보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및 구성원 의사소통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혁신체계와 경영체계 간의 정합성이 다소 미흡하며, 중점과제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공감 향상을 위해 과제 선정의 방법과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사내 사회적 기업 운영지침 마련, e-혁신교육시스템 운영,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혁신마인드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혁신교육, 혁신

조직의 실질적 성과 도출, 연구자 및 평가자 서비스 만족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고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396개를 창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식 행정 기반 한국판 뉴딜 추진」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수상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구현 7점 중 6.365점을 획득하였다.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서는 2.606점에서 2.743으로 상승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에서 평점 100점을 획득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0.700점으로 전년도 0.940점 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실적 미디달성으로 평점 0점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2.922점으로 전년도 2.986점과 비슷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2.8% 기준인상률을 준수하지 못한 2.902%로 0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와 고객만족도는 각각 평점 40.000점 및 95.400으로 전년도 83.400점 및 99.020점 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 3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으나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향후 목표 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사업별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중장기 사업 로드맵 수립 시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환경분석에 따른 단계별 설정 근거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예산 계획의 증감 사유를 평가 대상 사업별로 구분하고 지표별 모니터링 계획과 평가 계획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자세히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개의 주요사업은 적절하게 추진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요사업의 성과로 COVID-19 위기대응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위기상황 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도와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주요사업을 P-D-C-A 관점에 따라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고 경영평가단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외부평가와 연계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별로 20년 자체평가 결과와 21년 환류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적 가치 측면의 환류 내용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보건의료기술 R&D 지원사업의 ‘글로벌 의료기술 개발 실적’, ‘보건산업 원천기술 개발 실적’,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7.95%, 88.64%,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지표와 ‘외국인환자 유치 유실적 의료기관 비중’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2.9%, 78.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건산업 창업육성 및 성장 지원사업의 ‘창업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0.99%인 28.206점으로 평가되었다.

24.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1.68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713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724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0.606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1) 어린이집 품질 향상 성과			12	10.008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0		
	2.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1)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성과			5	5.000
	(2)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역량 강화 성과			4	4.000
	(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0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1)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			6	6.000
	(2)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성과			4	4.000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D^+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직원 참여기반의 가치체계를 재설정하였다. 또한 비전, 핵심가치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내재화 노력을 기울여 내재화 수준의 향상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목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대 사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혁신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 기준을 설정하여 효과를 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장은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선도, ESG 경영, 미래대응 경영혁신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함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질적으로 달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핵심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혁신적인 민간일자리 창출 실적은 미미하므로 향후 혁신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채용 관련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으로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면접응시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사회형평적 인재활용계획 등 구체적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 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한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관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폐플라스틱 장난감 수거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상생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경영 체계를 구축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 내부견제 활동을 확대하고 기관 운영 분야와 주요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를 주요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확장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을 정규화하고 인력을 배치했으며, 운영업무를 효율화시켜 사회적 가치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인력 운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노사 소통을 통하여 현장평가직의 직무특성에 따라 직무급과 연계한 노력을 하였다. 향후 상근직 직무중심 보수 체계를 도입하고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근 노조가 결성된 이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TFT를 구성하는 등 노사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노사협의회 위원의 성별·고용형태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혁신책임관 하에 기능별 혁신 추진 조직을 신설하고 시민참여혁신단을 확대하고,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점과제로서 경력단절 교사 17,350명이 재취업한 것과 스마트 출장비 정산 플랫폼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를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안전 긴급돌봄을 지원한 점, 보육교직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근로자 심리 방역을 강화한 점, 디지털 사업환경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업무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점 등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에 신규로 지정된 준정부기관으로, 총인건비관리 지표는 3점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국민소통 지표는 크게 하락하여 전년 대비 경영관리 계량 총득점률이 감소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는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크게 하락하여 평점 56.3점, 득점 1.689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만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향상된 평점 71.3점, 득점 0.713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실적은 목표를 하회하였으나 나머지 지표는 모두 만점을 달성하여 평점 90.800점, 득점 2.724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에 따라 기준치인 4.3% 이내를 준수하여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지표는 경영정보공시 벌점 결과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득점 0.200점, 0.406점으로 평가받아 1.5점 만점에 0.606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설립목적, 경영환경 및 국민니즈 분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목표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의 3개의 사업을 도출하였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성과목표와 연계한 지표 풀(Pool)을 도출하여 SMART, 전략, 사회적 가치 요인을 고려한 적합성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은 중장기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의 한계 등의 위협요인을 고려하여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도출하였다. 기관은 3개의 주요사업별 실행과제와 추진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집 품질평가 미평가 사각지대 해소 노력, 평가인력의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체감 평가제도 등의 추진, 실시간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교육 참여율 향상, 공보육 품질관리를 통해 재원아동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새로운 부모협력 모델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3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여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라 할지라도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년 대비 목표달성 정도 혹은 목표부여방식 등으로 비계량 지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성과는 사업목표인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합리적 어린이집 선택 기준 제공과 연계성이 높은 지표로 파악된다. 다만, 지표의 실적이 A등급 어린이집 수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도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의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지표의 실적치가 누적됨에 따라 보다 도전적인 평가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사업의 '어린이집 품질 향상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83.4%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의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성과' 지표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문역량 강화 성과' 지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의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 지표와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3.57%인 29.008점으로 평가되었다.

2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C	3	2.74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7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1)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10	10.000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8	7.667
	(3)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2	2.000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B^0		
	2.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				
	(1)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8	8.000
	(2)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3	2.797
	(3)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내외 요구분석을 통해 기관의 미션과 미래가치를 반영한 핵심가치를 개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복지 실현,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더불어 성장하는 산림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영목표를 구체화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도입하고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성과를 달성한 노력이 인정된다.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숲콘텐츠 사업화, 산촌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사회 장애인 보호자 돌봄, 숲치유 인프라 구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을 재수립하여 100명 이상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체험형 청년인턴(31명)을 채용하여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 점. 공정·투명한 채용절차 운영 및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산림복지전문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정보 매칭(186개 기관), 취약분야별 직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4,4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전문업 매출 332억원 등 전년대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하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14명을 증원하였고, 경영지원 기능 효율화와 핵심사업 기반의 현장중심 인력 배분으로 경영지원 인력 비중을 21.3%로 낮추었고,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만족도 등이 상승하였다. 또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직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등급을 정비하였고, 비보직자 대상 직무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점이 인정된다. 개방형 직위와 전문직위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직위 및 순환보직 운영 기준을 고도화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숲관광 상품 개발, 관리 주체가 상이한 사업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핵심역량 특성에 맞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복구

숲케어 지원 방안(13종)을 마련하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심리회복 지원에 기여한 점, 마음건강 KIT 재능기부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로 전환한 점, 헬스케어 앱 개발 등 혁신성장 투자를 확대한 노력, 협업을 통한 데이터 가치 향상 및 신규 서비스 발굴추진에 활용한 사례 등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결과가 3등급에 머물러, 청렴 문화나 업무지시 공정성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청렴 문화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완료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성공적인 직무급 도입 완료를 위해서는 직무와 역할의 정의와 분류 및 평가, 직무급 적용대상의 확대, 직무가치 반영 보수 비중 확대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사관계 역량 고도화를 통한 갈등관리·고충처리체계 강화, 노사 공동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만족도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6.357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1.500점, 가중치 3점 중 2.745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100.000점, 가중치 1점 중 0.1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100.000점,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1.287%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연도별 벌점은 2019년 12.1점, 2020년 3.0점으로 전기 대비 벌점 수준이 감소되었다.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9년 91.313점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5.825점으로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 사업과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의 2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기관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후, 미션의 주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19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SWOT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한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이 사회적 가치, 전략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표는 선정기준 평가 결과 각 대상사업 후순위로 관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문업 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예산 102억 원을 확보하여 실직위기 종사자 1,371명을 유지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반기 사용률 3%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대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였다. 또한, 기관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고객니즈를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방법을 중계형, 녹화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실습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한계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2개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의 계량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지표는 서비스 수혜인원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성 지표의 경우, 기관이 안전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성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지표 또한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 성과' 지표,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지표,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95.83%,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지원 사업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성과' 지표와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100%, 93.2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27%인 30.464점으로 평가되었다.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638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778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39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R&D 기획·평가관리사업				
	(1) R&D 사업화 성과			10	10.000
	(2)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3	3.000
	(3) R&D 기획·평가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2. R&D 성과·확산사업				
	(1) R&D 일자리 창출성과			10	10.000
	(2)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8	4.938
	(3) R&D 성과·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종합지수를 개발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략과제 및 목표가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전담할 전략본부와 한국판 뉴딜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신설하여 소부장 R&D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중심으로 R&D 사업을 재편하였다. 기관장은 채용전형 절차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이 고졸자, 장애인 전형 직종 확대, 고령친화직종 재고용 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이다. 기관은 우수 중소기업 사업화 및 R&D 지속을 위한 매칭 지원으로 사업화 이어달리기, 기술혁신전문펀드 조성, Beyond R&D 펀드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기관은 5년간 연속으로 권익위 청렴도평가 우수,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감사원평가 2년간 A 등급을 받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소부장 및 뉴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대응하였고 시설 안전, 법무 지원, 혁신성장, 항공 조선 TF를 신설하여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핵심사업 인력을 확보하였다. 다만, 사회적 가치 실현 기능을 담당할 인력의 보강 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노사는 기관의 특성과 아울러 구성원의 수용성을 토대로 직무가치 평가 고도화,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 연계 강화, 기본연봉 및 직무급과의 연계 강화 노력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충의 공정한 해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충처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평적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R&D 기획 및 평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비대면 디지털평가시스템(STELLA) 구축, 개방형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위기대응 기업상황판 운영, Chat-bot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업화 이어달리기 협력체,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시민참여단 등 혁신네트워크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실 위험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시스템 「R&D 기업상황판」은 시작 단계라서 그 체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기관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린 부도 기업 사전탐지 시스템으로 기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638점(만점 3점), 0.778점(만점 1점) 및 3.000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2.8%)이내인 2.055%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공시는 벌점 6점을 부여받아 0.400점(만점 1.0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5.249%로 0.439점(만점 0.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전년도 3개의 주요사업을 'R&D 기획·평가관리', 'R&D 성과확산'의 2개의 주요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였다. 전략목표와 연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고 적합성 검토를 통해 핵심지표를 발굴하였다. SWOT 분석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계획까지는 연계

하였으나, 중장기 사업 로드맵 수립 시 계량지표의 성과 달성도와 비계량 지표의 달성성과의 우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 계획의 전년대비 증감·변동 상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표별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였고 점검 채널별 모니터링 방법과 결과에 대해 제시하여 체계성과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알키미스트 R&D를 운영하여 도전적 이슈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의 테마를 발굴한 것과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 단계에서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당해 연도 및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P-D-C-A로 이어지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고 경영평가단의 외부평가와 연계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도 실시하고 있고 전년도 자체평가를 통한 환류 활동 내용을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성과목표별로 '20년 자체평가 결과와 '21년 환류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R&D 기획·평가관리사업의 'R&D 사업화 성과' 지표,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R&D 성과·확산사업의 'R&D 일자리 창출성과' 지표와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100%, 61.7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0.12%인 27.938점으로 평가되었다.

2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5	D^+	3	2.8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C	3	2.965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15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				
	(1)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13	10.533
	(2)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6	5.262
	(3)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D^{+}		
	2. 소방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1) 소방 R&D 성과			8	8.000
	(2)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			4	3.413
	(3) 소방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변화하는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구성된 가치체계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치체계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이슈의 발굴과 변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계획 및 실천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 전반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책임 부서를 운영하는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미충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정현원차 비율을 개선한 노력이 인정되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시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되도록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채용전형 시 필기전형 가점 강화, 행정사무 분야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소화약제 개발,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검사제도에 환경유해물질사용 금지 기준 도입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환경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확대 지정, 안전전담조직 권한 강화, 전담 인력 추가 채용, 위험시설 정비비와 안전 교육 훈련비 증액 등 재난대응조직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지역소방서 및 지역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전개선 및 생계지원 등의 공헌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합동 원스톱 안전서비스를 통해 지역공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한 부분이 인정된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청렴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체계적 진단과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산업 혁신성장 동력의 발굴 및 신기술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기능과 관련하여 조직인력 운영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직무급 설계용역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와 연계된 직무급은 제한적이어서, 향후 개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금피크제 적합직무를 개편하고, 연차별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선하는 등 평가와 환류를 지속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단체협약 체결,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 등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확대된 협의체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표준화 사업의 기대효과와 연계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다가올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소방산업체 및 지역사회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긴급성을 고려한 코로나19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6.643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3.333점, 가중치 3점 중 2.800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100.000점, 가중치 1점 중 0.1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98.833점, 가중치 3점 중 2.965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611%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 공시 점검의 평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3.400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19년 66.700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70.000점으로 상승

하였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7년 86.418점, 2018년 84.185점, 2019년 82.469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84.892점으로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 주요사업의 평가대상사업에는 소방제품 검·인증 사업과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사업을, '소방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사업의 평가대상사업에는 소방 R&D 사업과 소방산업 진흥사업을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사업별로 다수의 실행과제는 적절한 추진성과를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마찰 저감 기술이 적용된 완강기용 조속기 개발로 국내 기준보다 상향된 유럽기준을 만족한 점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동시에 가능하게 평시에는 소방펌프차로 활용하고 유사시엔 다목적 소방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차 개발로 KFI 무인방수탑차 인증 규격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점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을 통한 성과목표-추진방향-실행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과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 P-SMART 분석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기여와 국정과제 등 정책비율 등 종합 분석결과를 근거로 핵심성과지표 선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에 대한 결과와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 주요사업에서 '19년에 16건의 경평단 지적사항과 '소방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요사업에서는 '19년에 8건의 경평단 지적사항과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1건이 발생하는 등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많은 점에 대해 PDCA 관점에서 적극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사업의 구분에서 사업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벤치마킹, SWOT,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논리적 연계가 미흡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포함한 분석검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이 성과측정 고도화 관점에서 내부와 외부 점검시스템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성과측정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화재예방 안전관리사업의 '소방용품 신뢰성 향상 성과' 지표와 '위험물시설 안전성 확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81.02%, 87.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소방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소방 R&D 성과' 지표와 '소방산업체 특허지원 성과' 지표는 각각 100%, 85.3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7.77%인 27.208점으로 평가되었다.

28. 한국수목원관리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D^+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D^+	3	2.88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0.82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D^+	3	2.828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0		
	(2) 국민소통			1.0	0.2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1) 산림식물자원 현지외보전			10	9.701
	(2)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종자확보 실적			3	3.000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D^{+}		
	2. 산림생물자원 활용 사업				
	(1) 연구활동 성과			5	5.000
	(2) 산림생물자원 활용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D^{+}		
	3. 수목원 서비스 사업				
	(1) 수목원 문화 확산 성과			8	7.878
	(2) 수목원 교육 성과			5	5.000
	(3) 수목원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목표 재수립을 위하여 효율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인정된다. 하지만 균형검토를 위한 분석 과정이 다소 모호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로드맵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가치실현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과제에 따른 목표치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통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설정된 성과 과제가 중장기 전략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초과근무 감소, 시간선택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재정 절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추가 인력 채용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관리자 비율을 여성관리자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3년 연속 초과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성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여성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 온실가스 감축, 기관 고유의 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달성하였다. 다만 안전보건 교육 체계 고도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불공정 사례 사전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적용 누락이 확인된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윤리경영 심의 및 의결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 조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세종수목원의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90% 이상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향후 수목원 서비스 중심의 규모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전 및 연구·산업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단위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제기된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직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직무급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내부 소통 채널과 외부 의견 청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통 채널별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을 활용한 환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관은 노사관계 구축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노사관계 역량 강화 등 노사관계 고도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혁신책임관을 기관장으로 개편하여 혁신추진체계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주니어보드를 신설하여 혁신소통을 활성화한 노력도 인정된다. 과제 내용의 혁신성에 비해 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수준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제기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추진체계에 운영체계와 성과점검 시스템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용자원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20년도에 최초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7점만점에 6.535점을 기록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지표는 평점 43.744점을 획득하였지만 나머지 2개지표의 평점이 100점이 되면서 3점만점에 2.887점을 기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지표는 평점 40.000점을 기록하였지만, 나머지 2개지표에서 평점 100점을 기록하면서 0.820점을 득점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2.828점을 득점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에서 평점 100점을 기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인상률 0.374%를 기록하여, 기준 인상률 2.8%이내를 충족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는 0.2점을 획득하였으며, 국민평가는 조사 미실시로 결측 처리 되었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연 방문객 2백만 명’, ‘보유 식물종수 1만 종’, ‘기술보급 실적 500건’, ‘지속가능평가 우수등급’ 이라는 경영목표에 맞춰 수목원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추진에서 지역 상생, 민간 협력을 충실히 수행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 성과를 보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수목원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2030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산림생물자원 활용 사업’, ‘수목원 서비스 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과지표와 실행과제 도출을 위해 SMART+사회적가치+전략연계를 적절히 배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적절히 도출하였다. 다만 주요사업 성과목표 설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목표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무예산 및 조직인력 계획이 세부사업별로 자원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추진하면서 모든 세부사업별로 경영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관은 신규 조직 설립에 따른 인력 조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보공유 대상이 제한적인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수목원관리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의 '산림식물자원 현지외보전' 지표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종자확보 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97.01%,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산림생물자원 활용사업의 '연구활동 활용 성과' 지표는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수목원 서비스 사업의 '수목원 문화 확산 성과' 지표와 '수목원 교육 성과' 지표는 각각 98.48%와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64%인 30.579점으로 평가되었다.

29. 한국수산자원공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1.5	B^0	3	1.97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C	1	0.8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6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46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455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어장 생태환경 개선사업				
	(1)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7	7.000
	(2) 갯녹음 해소율			6	6.000
	(3) 어장 생태환경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2. 수산자원증대 사업				
	(1)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6	6.000
	(2) 먹이생물 생산량 증가실적			4	4.000
	(3) 수산자원증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어업자원관리 사업				
	(1) TAC제도 확대 및 TAC 어업 생산량 증대 실적			4	3.083
	(2)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2	2.000
	(3) 어업자원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B^0		
	4.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1)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2	1.920
	(2)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B^0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경영목표를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배분하는 등의 노력은 기관의 사업적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형태로 인정된다. 하지만 중장기적 경영목표 달성 수준에 적합한 중장기적 기관의 자원 할당 및 발전 계획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장 성과 과제를 기관 본연의 역할과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TAC(총허용어획량) 조사 체계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 어업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등을 강화하여 어종 및 관리 척수를 확대를 위한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를 실현하는 등의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연한 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초과근무 감소, 시간선택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재정 절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추가 인력 채용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 채용기준이나 공정한 채용을 위한 내용 등이 대상별, 유형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임원 비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였으며, 천연소재 모조 주머니 이용 확대, 친환경 밧줄 및 부이 사용 확대 등의 노력도 지속하였다.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발주자로서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협력·위탁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해 FIRA데스크를 설치 및 운영한 실적이 인정된다. 준법윤리반을 신설하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른 적극적 개선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인정된다. 기관은 본부별 정원통합 및 본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본부 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개편한 실적이 확인되지만, 성과평가과정에서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의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난이도에 대한 차등적 고려가 필요하다.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후 직무기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협력·위탁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 강화, 기관 청사 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교육 제공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 증진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전체 임직원 대상의 중장기 노사관계 역량 강화 교육 실행, 고충처리 절차 및 환류 방안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참여혁신단과 내부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커톤 워크숍을 통해 혁신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혁신과제의 발굴을 넘어 실천적인 혁신과제로 발전시킨 노력이 인정된다. 추진과제의 구체적 성과는 긍정적으로 인정되나, 기관의 혁신노력을 대표하는 중점 혁신과제로서의 적절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확산 및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였고, 지역특화 사업을 통한 침체한 수산업 및 어촌마을 지원을 강화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득점률은 88.496점으로 2019년 득점률 92.917점 대비 하락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100.000점,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44.000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60.000점을 기록하여, 목표대비 65.867% 달성으로 1.976점(만점 3.000점)을 득점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전년보다 하락한 60.000점을 기록하여 0.800점(만점 1.0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경우 6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으로 전체 기준 98.200%를 달성하여 2.946점(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 지표에서는 총인건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치 2.767%로 기준인 2.800% 이내 인상률을 준수하여 전년에 이어 만점인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에서 경영정보공시항목 점검 실적은 벌점 없이 만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고객만족도는 86.608점을

받아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평점 90.900점으로 0.455점(만점 0.5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연근해 자원량 회복', '어가소득 증대', '국민평가 최고등급'이라는 경영목표에 맞춰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기관은 주요 사업추진에서 기관 고유 업무와 연계한 어촌 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에 기여하였고, 수중 드론 및 항공 드론을 활용, 잠수사의 안전 및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주요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표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비교 설명이 부족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미션·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의 도출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은 비계량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을 강조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설정근거 및 사업여건 등을 제시하고, SWOT 분석을 통한 성과목표-추진방향-실행과제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과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성과지표 설정 시 배분 비율에 사회적 가치가 20%인데 타 기관과 비교할 때 해당 지표의 비중이 낮은 만큼 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성과목표를 추진하면서 모든 세부사업별로 경영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 외에도 협업·참여·소통 확대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비계량 성과지표의 달성 성과의 경우 단순 기술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통한 우수성 검토를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산절감과 관련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한계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0년도에 4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어장 생태환경 개선사업의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 실적' 지표와 '갯녹음 해소율'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수산자원증대사업의 '연안수산자원 증가실적' 지표와 '먹이생물 생산량 증가실적' 지표 역시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어업자원관리 사업의 'TAC 제도 확대 및 TAC 어업 생산량 증대 실적' 지표, '유전적 다양성 향상 실적' 지표는 각각 77.08%,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사업의 '주요사업 산업재해 감축 노력' 지표는 9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6.78%인 30.003점으로 평가되었다.

3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33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5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0	3	2.946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0.831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1)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11	11.000
	(2) 영세 소규모업체 HACCP인증 활성화 성과			7	7.000
	(3)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2.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1)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7	7.000
	(2)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6	6.000
	(3)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전략과제 이행에 따라 핵심업무 중심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중점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조직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의 목표달성 로드맵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분석되고 가치실현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계약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직 및 인력, 예산 등을 배정하는 등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달성을 위한 인력변화 예측 및 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인력, 퇴직자, 육아휴직 예정자 파악을 통한 예측치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정현원차 관리 및 일자리 나눔을 실현하였다. 기관은 고용약자 차별 해소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고용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지만, 시행과정의 모니터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년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이 향상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미달하였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보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교육 고도화, 연구실 안전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전년도보다 점수가 하락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발굴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노력이 인정되나, 목표구매비율 설정 수준에 대한 향상의 필요가 있다. 전년대비 내부 청렴도가 2등급 개선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외부 청렴도의 경우에는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1등급 하락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팀단위 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인정된다. 기관은 직무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등급을 설정하였으나 구

성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였고, 적합직무 실효성 검증,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비 등 임금피크제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기관은 신임기관장 취임, 노조 집행부 교체 등의 노사 리더십 전환기에 노사협력·소통을 통해 21건의 근로조건 관련 인사·복무·보수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무분규 단체협약 갱신을 체결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과제의 세부 과제가 공공과 민간 일자리, 기존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세분화된 목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정책, 기관장의 의지,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3개의 추진 방향, 9개의 코로나 대응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영세 소규모업체 대상 HACCP 도입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7점 만점에 6.779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2.833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점을 획득하였다. 항목별 원인 또한 동일한 득점을 기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기술개발생산품 지표에서 소폭 하락으로 전년대비 0.024점 하락한 2.946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관리는 기준인상률 2.8%를 준수한 1.869%를 기록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와 고객만족도는 각각 평점 40점과 86.2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점수 66.700점과 86.700점과 비교해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등 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추진과제를 설계하고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 등 PDCA 관리 전반에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기관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은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위험 속에서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관의 주요사업인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안심식품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영세 소규모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들 소규모업체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려 노력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사업과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 사업의 핵심성과지표 선정에 대한 적합성 분석결과와 적합성 검토 내용, 그리고 성과달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의 목표에 따른 수동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기관이 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표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실적보고서에 '20년 목표에 대한 전략적 배분과 성과달성도, 그리고 중장기 이행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 확대사업의 '식품안전위생 향상 성과'

지표와 ‘영세 소규모업체 HACCP인증 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술지원사업의 ‘인증준비업체 기술지원 효과’ 지표와 ‘인증업체 기술지원 효과’ 지표 역시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31. 한국언론진흥재단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0	3	2.86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D^0	3	2.894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3.553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0		
	(2) 국민소통			1.5	1.15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저널리즘 지원 사업				
	(1)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7	6.860
	(2)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활성화 성과			5	5.000
	(3) 저널리즘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2.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				
	(1) 언론사 뉴스저작권사업 성장 성과			8	6.723
	(2)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3. 정부 공공광고 사업				
	(1) 정부광고 효율화지수			6	6.000
	(2) 정부 공공광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비전 슬로건을 새롭게 정의하고, '존중'을 핵심가치에 추가하는 등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가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외부가 참여한 사업진단을 통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또한 바람직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가 기능을 조정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은 GOAD, 빅카인즈, 뉴스토어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민간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정부 광고 어음을 전면 폐지하여 민간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 경영의 경영목표(KPI)가 안전가치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윤리경영, 일자리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공공광고 부문 경영목표에 질적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 극복 기여'로 일자리 비전을 재설정하고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과 '미디어 강사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와 고졸 인력 채용 실적을 개선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여성임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을 위해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팩트체크 아카이브를 제공함으로써 인포데믹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정부·공공광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보수체계 개편안을 설계

하는 등 기본 토대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복리후생비 다중 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1인당 복리후생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 만족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96.614점(만점 100점), 득점 6.763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869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1.0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894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75.03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97.108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1.153점 (만점 1.5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0.633점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목적, 경영환경 및 국민니즈 분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목표를 고려하여 저널리즘 지원,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정부 공공광고

사업 등의 3개의 사업을 도출하였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각 사업을 위해 SMART 분석, 전략연계,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성과지표의 적합성분석을 통해 점수가 높은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지표를 제시하였고, SWOT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실행과제와 세부추진계획을 도출하였다. 기관은 3개의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요사업의 추진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및 국민의 능동적 미디어 수용능력 제고, 뉴스 저작권 시장 확대를 위한 인지도 제고와 합법이용 기반 강화, 그리고 정부광고 효과를 올리는 업무수행체계 확립과 코로나19 관련 정책홍보 효과성 제고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4개의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의 세부 지표들은 기관 설립목적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으며, 지표별 가중치 배분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 산식에서 중복 우려가 있는 변수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저널리즘 지원사업의 '언론인 전문성 강화 지원 성과' 지표와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활성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98%,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사업의 '언론사 뉴스저작권사업 성장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84.0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정부 공공광고 사업의 '정부광고 효율화지수'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26점 중 94.55%인 24.583점으로 평가되었다.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93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3.000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68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1) 에너지기술개발 매출 발생 실적			5	5.000
	(2)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7	7.000
	(3) 신재생에너지기술 시장진출 실적			5	5.000
	(4)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5)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D^{+}		
	2.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				
	(1)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6	6.000
	(2)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5	5.000
	(3)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비대면 다자 순환평가 방식의 온라인 메타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정성, 예산절감,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바람직한 성과로 인정된다. 에너지 R&D 사업화율 개선 노력, 업무혁신 토론방 개설과 혁신모임 제안을 통한 혁신문화 조성 노력, 계획실장제도 도입 및 특별승진을 통한 직원의 동기부여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가치체계의 점검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가치체계 내재화 평가결과 등의 환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에너지 R&D 사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에코 세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정되나, 시간선택제 채용 확산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은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완비하였다. 기관은 고유사업에서의 환경보전 중장기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며, 사이버 안전을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의 강화 및 매뉴얼의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은 비대면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임직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청렴·윤리교육에 접함으로써 윤리의식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학교 2.0을 운영하여 심층 학습 커리큘럼을 운영하였고 인적자원 개발 성과의 주기적 진단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과 비교하여 보수체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열린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경영권에 대한 합리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기관은 상향식 구성 및 하향식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P-SMART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과제선정을 하였다. 다만, P-SMART 평가지표와 혁신방향과의 일치성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혁신지원에 대한 환류활동 강화, 대국민소통채널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관이 에너지 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지역 주도 그린 뉴딜 협력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고객관점에서 세계 각국, 국내 각처의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정보획득 게이트웨이를 구축한 노력이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99.029점(만점 100점), 득점 6.932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932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1.000점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3.0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모두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0.682점 (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1.150점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에너지 기술 R&D 인프라 강화'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중장기 전략과제, 경영여건, 정부 정책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사업별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것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되나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와 산업계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환류 활동 및 글로벌 기업과의 Gap 차이 극복을 위해 벤치마킹을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에 이용된 전략, 사회적 가치, SMART 분석 등의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지표 선정의 최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분석 그룹의 확대를 도모하여 선정된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기 및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기 대상사업의 실행과제 선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8대 사업에 기관이 제안한 정책 100%가 반영되는 등 그린 뉴딜 정책 기획에 있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것과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반 R&D 기획 도입으로 산업계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 분야 R&D 성과 확산에 기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효율적 R&D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에너지 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수출 유망기술 현지 실증연구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세계 에너지 시장정보' 포털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에서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이상, 비계량 성과지표는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비말 필터 선풍기, 발열 칸막이, 열회수 환기 장치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점과 일자리 내비게이터에 의한 직업정보 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운영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모한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재정투자 조기 실현으로 창출한 민간부문 일자리 5,075개는 일자리 질 및 유지율 등 현황조사에 의한 환류 활동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의 ‘에너지기술개발 매출 발생 향상 실적’ 지표, ‘사업화 연계성과 창출실적’ 지표, ‘신재생에너지기술 시장진출 실적’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에너지기술 R&D 인프라 강화사업의 ‘국제공동연구사업 공동 연구성과 개선도’ 지표와 ‘인력양성사업 산학 연계성과 창출실적’ 지표에 대해서도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3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3	3.0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942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우체국쇼핑 운영 사업				
	(1)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8	8.000
	(2)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5	5.000
	(3) 우체국쇼핑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B^0		
	2. 우체국콜센터 운영 사업				
	(1) 상담 운영 성과 증대			4	3.795
	(2) 우체국콜센터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3.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1)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6	6.000
	(2)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8	8.000
	(3)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전략목표에 따라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지표와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핵심적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체계 정비 등과 같은 비정형적 조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의 목표 달성 로드맵이 중장기 자원 배분 및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분석되고 가치실현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심가치의 공유를 위하여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대면 혹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정현원차를 줄여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정현원차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채용 중장기로드맵 상에서 공정채용 최적화로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의 도약단계에 있으며 채용비리 예방 대책 마련, 채용전문성 고도화, 지원자 중심의 채용 설계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하였다. 기관은 고유 사업에 연계된 환경보전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박스 및 포장재 관련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및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한 노력이 확인된다. 또한 기관은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 전담인력 확대, 안전관련 집행 예산증액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된다. 기관은 적극적인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 노력과 함께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된다. 전년대비 전반적인 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성과가 확인된다. 다만, 전년도에 대폭 하락한 청렴도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자체 진단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된 소통문화의 개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 기능 확대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무분석 및 직무가치 평가 고도화 노력으로, 직무급 설계안과 직무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 부족 시, 총인건비 범위 내 활용에 대해 노사 합의를 실시하였고, 매년 임금피크제 적합직무 실효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단체협약에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 상호 협력사항을 명문화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는 등의 주요 노사 합의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민참여혁신단을 온·오프라인으로 구성하여 확대한 노력이 확인되나,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관련해 온라인 시민참여혁신단의 구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조직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운용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93.409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100.0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3년 연속 평점 100.000점을 득점하였으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도 지표 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100.000점을 달성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최근 3개년 연속 평점 100.000점을 달성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100.0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1.000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균등한 일자리 창출 추진 노력을 통해 최근 3개년 연속 평점 100.000점을 달성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도 2020년 100.000점을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결측처리한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95.857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942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최근 3개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관련 우선구매 실적은 기술개발 생산품을 제외한 전 지표 평점 100.000점을 달성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의 경우 기관 사업 특성으로 구매가 용이하지 않아 71.000점을 달성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4.3% 중 실적치 2.565%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요약 손인계산서와 단체협약 협약정보 관련 공시 오류 2건과 기타 수정공시 6건이 발생함에 따라 벌점 9.5점이 부과되어, 벌점 5.0점~10.0점 구간에 속하여 최종 0.400점을 득점하였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우체국쇼핑은 목표치 85.030점 보다 낮은 실적치 78.631점을 기록하였고, 불만족 결과를 반영하여 평점 80.000점, 득점 0.4점을 기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 운영사업', '우체국콜센터 운영사업',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 등 3개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은 실행계획의 추진활동에 대해 추진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진행한 중점 추진내용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추진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과 추진활동에 대한 효율성 제고 노력 그리고 평가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요인 및 긴급현안 대응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지표 중 계량지표 12개 중 10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비계량지표 2개는 목표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설정 목표 외 목표산정 근거, 사업여건, 전년 대비 개선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때 성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비계량 성과지표의 경우 절차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내용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5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우체국쇼핑 운영사업의 '우체국쇼핑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 지표와 '우체국쇼핑 협력업체 동반성장 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우체국콜센터 운영사업의 '상담 운영 성과 증대' 지표는 94.8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우정문화 보급 및 홍보사업의 '중소상인 홍보활동 지원' 지표와 '문화소외계층 우정문화 확산 노력' 지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9.34%인 30.795점으로 평가되었다.

34. 한국임업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62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B^0	3	2.88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5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임업소득 증대				
	(1) 산양삼 생산율			5	5.000
	(2)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4	4.000
	(3) 임업소득 증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1)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3	3.000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2	2.000
	(3)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8	7.529
	(4)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3. 산림자원 보호·육성				
	(1)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6	6.000
	(2) 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3	2.965
	(3)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기존의 핵심가치에 사람중심의 핵심가치를 추가하는 등 가치체계를 재정비하였으나 새롭게 수정된 비전체계와 기존체계 간의 유사성으로 혁신의지의 반영에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 기관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도입, 해외산림개발기업에 대한 금융제도 개선, 기술료 분할납부제도 도입 등 대내외적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긍정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산물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매미나방 피해 대응을 위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은 정현원차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간 선택제 전환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이버 교육관을 개설하였다. 기관은 산림경영 인증면적 확대부문 3위에 선정되었으며, 청정숲 푸드 브랜드 품목확대, 목재 시설물 진단 서비스 등의 안전 활동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의 환경경영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임직원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기관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나눔문화 조성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 지식의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업무의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을 위한 C-PLAYER에 대한 상담시 전문상담자의 상담으로 예비저성과자가 저성과자로 되는 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기관은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수용도를 토대로 직무 내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세분화된 직무분석과 이에 따른 직무분류 고도화 노력, 직무가치 평가 및 직무급과 연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노사관계 전략에 내재화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기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고도화 노력도 요청된다. 기관은 혁신과제의 이행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부서별 혁신담당자를 지정하고 국민

참여혁신단을 통해 과제 실행력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림일자리 발전소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경영체 확대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임업사이버학교 신설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관이 산림 분야 우수 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 발굴·육성하여 산림 분야 4차 산업 및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을 통하여 혁신기술 예비창업자지원을 통한 연내 28개 기업 창업을 완료한 것은 기관의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7점 만점에 6.506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전년도 2.628점과 비슷한 2.626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2개지표가 하락하면서 총 득점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2.976점에서 2.880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지표 점수가 평점 88점에서 40점으로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총인건비관리는 2.8%이내인 2.624%를 기록하여 3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의 경영정보공시와 국민평가는 각각 평점 70점과 90.6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하락한 보습을 보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임업소득 증대’,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는 주요 현안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성과를 도출하려는 기관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부실행과제가 도출되지 않아 성과지표

및 세부실행계획과 평가대상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과목표 선정 과정과 추진체계를 수정·보완하는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약점보완을 위한 선진기관 벤치마킹 및 대내외 요건을 고려한 SWOT분석을 통해 대상사업별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제시한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실행계획 도출 시 적절한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고 GAP분석을 통해 세부사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격전략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추진체계 구축 운영에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예산, 인력을 확대했으며 주요 이슈에 따른 자원 배분과 함께 증감요인을 제시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모니터링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환류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임업인 대상 '온라인 시장진입 및 안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성과목표 달성에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사업의 P-D-C-A 관점에서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성과 및 사회적 가치 실현도를 평가하고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한 점에 대해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며 경영평가단 등 외부평가와 연계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한 '21년 환류 계획에서 평가대상사업 마다 우수, 미흡 성과를 파악 후 우수성과는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차년도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임업진흥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임업소득 증대사업의 '산양삼 생산율' 지표와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임업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산림과학기술 성과확산' 지표,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 ‘우수 목재제품 유통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100%, 100%, 94.1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소 성과’ 지표와 ‘지속가능 산림자원 확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100%, 98.83%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8.37%인 30.494점으로 평가되었다.

35. 한국재정정보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3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4	D^+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3	2.981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1.251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9	9.000
	(2)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7	7.000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1)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강화 노력			7	7.00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C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			8	8.000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전체계는 안전 등 사회적 가치와 기관의 미래방향을 반영하여 재설정되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경영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전략적 포지셔닝 및 핵심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지원하고 이를 기관장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등의 노력은 인정되며, 특히 신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처 및 추진단과 선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구축 이후가 아닌 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고, 사용자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 상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정수급 방지체계 고도화 및 일자리안정자금 자격검증 효율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전략 체계도에 제시된 과제들이 경영전략체계도 상의 고유 및 핵심사업과도 연계가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기관은 남녀 차별없는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여성인력 채용확대 및 여성관리자 양성으로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고졸자 채용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보조금 정산서류 온라인화 등으로 종이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정책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분야 재정구조와 추이, 재정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 것은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환경보전 노력으로 평가한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기관은 재난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신속히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실시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유지하였으며, 내부청렴도도 1등급 상승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영전략과 조직인력 운영전략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며, 경영전략과 연계한 일부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직무급을 전면 도입하였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과 조치, 만족도 조사 및 추세 분석, 효율성 검증 등 측정점검과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근로자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노조 대표 1인이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며, 참관제 운영방안 개선 환류 작업까지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경제활력 제고 마중물 역할 강화' 및 '직무 중심 보수체계 고도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나, 혁신과제의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에 대응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을 위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조직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체계에 포함하고, 가용자원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5.929점을 달성하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1.133점, 가중치 3점 중 2.734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100.000점, 가중치 1점 중 0.1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99.367점, 가중치 3점 중 2.981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285%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의 연도별 벌점은 2018년 13점에서 2019년 0.5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공시오류에 따라 1.5점이 부과되어 80.000점을 득점하였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75.448점에서 2020년 77.198점으로 전년대비 1.750점 상승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운영'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안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관이 운영하는 dBrain과 e나라도움 2개의 핵심 서비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안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계획과 성과를 설계하였다. dBrain 운영사업은 지속성장, 수요자별 재정서비스 제공, 국민중심 재정플랫폼 운영을 진행한 성과가 인정된다. e나라도움 운영사업은 부정수급 방지체계 고도화, 국민중심 보조금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였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사업은 국가재정시스템 보안관리, 재정 경제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관은 코로나 극복 보조금 신속 지원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고통 경감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전용시스템, 재정배움 콘텐츠 개발과 활용, 3개 지역사무소 개소, 영세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 실적 등이 개선되었다. dBrain과 e나라도움의 브랜딩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정보원의 핵심 사업이면서 국민과 정책 수요자들에게 기관의 경영활동과 핵심서비스 내용을 알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사업의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 지표와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사업의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강화 노력' 지표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사업의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무사고 달성노력’ 지표 역시 모두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100%인 31점으로 평가되었다.

3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B^0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814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2.913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28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1) CYS-Net서비스 위기수준 변화도			8	6.745
	(2)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4	4.000
	(3)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5	5.000
	(4)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3	3.000
	(5)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C		
	2.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1)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5	4.783
	(2)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			6	6.000
	(3)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B^0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B^+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코로나19 위기, 청소년 참여 등을 반영하여 기관의 설립목적·미션·핵심가치를 재정의하고, 구성원의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이 사회적 가치 이행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업혁신을 위한 6개 실행과제, 내부직원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는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개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상담사를 역대 최대로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점이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복리후생을 적용한 점, 사업장별 채용담당자 지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고졸인재 채용을 위하여 정보기술분야의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였으며, 고용감찰관제를 통한 투명한 채용과정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 업무에 적합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채용방식 지속 개선과 직무수행능력중심 채용에 따른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채용제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준비하면서 계획·규정·매뉴얼을 개선하였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전문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민 안전·보호서비스로서 심리방역서비스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지역 내 동서격차해소를 위한 서부 학교 현장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업체에 대한 납품책임 감면, 선금지급률 80%로 확대 등 협력·위탁업체의 지원과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기관이 준법·윤리경영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청렴교육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며, 비전·핵심가치와 연계한 인재상을 정의하고, 직급·역량수준별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한 점, 저성과

부서 대상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 점 등의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종합청렴도가 8.57점으로 전년과 비슷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기관은 노사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소재 사업장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여 갈등관리(예방)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사업혁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화 사업도 편의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사업방식이 지속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향상되었고, 총인건비 관리 지표는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국민소통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사회적가치 구현 중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서 각각 2.814점(만점 3점), 1.000점(만점 1점) 및 2.913점(만점 3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정부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상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상한율(3.8%)이내인 2.491%로 3.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민소통 중 경영정보 공시는 벌점 3점을 부과 받아 0.700점(만점 1점)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는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428점(만점 0.5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의 전문성과 설립목표로부터 사업을 도출하고, 성과지표들이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지표고도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질적 관리지표 성과측정에서 응답자 특성이 편향되지 않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표고도화 등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및 상담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교육콘텐츠와 대응매뉴얼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또래상담이 증가하면서, 상담의 품질관리로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래상담사 제도는 사업운영 방식 및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또래상담자의 상담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20년에도 여전히 '19년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지표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지표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은 프로그램 보급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상담사 양성률은 기관 설립목적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나, 비대면 자격연수 등의 변화에 대비한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지표가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적치가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는 기관이 도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20년도에 2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의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상담복지 통합지원체계 활성화사업의 'CYS-Net 서비스 위기수준 변화도' 지표,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 지표, '스마트폰중독 개선율' 지표, '프로그램 평균 보급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4.31%, 100%, 100%,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상담복지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사업의 '청소년상담사 양성률' 지표와 '학교폭력 예방환경 조성'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95.66%,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5.25%인 29.528점으로 평가되었다.

3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B^0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C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2	B^0	3	2.72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B^0		
	㉯ 재난 및 안전관리	4	B^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E^+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B^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B^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B^0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B^0		
	(2) 국민소통			1.5	1.1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1)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9	8.544
	(2)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2	2.000
	(3)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1)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4	3.951
	(2)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3	3.000
	(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4	4.000
	(4)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1)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6	5.017
	(2)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3	2.901
	(3)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B^0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A^0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환경변화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을 재설정하고 5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전략 방향과 전략과제를 수립하였고,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경영목표의 성과지표를 정의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기관이 현재의 기관 모습과 미래에 지향하는 모습을 대비하여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관의 수입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의 경영개선 추진 방향과 6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성과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이행정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체계를 구축한 노력도 인정된다. 기관장은 참여, 포용, 안전, 융합의 핵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내재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검사 및 치료 시설 제공과 수련시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재정 여건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한 예산확보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소년 활동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공모·선정되고, 2025년까지 해당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한 점은 체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적합직무를 재설계하여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였고,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하여 고졸 적합직무 신설·확대는 물론 현장실습 선도기관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맞춤형 인재양성 체제 마련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은 환경분석과 기관의 고유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정의 확립 및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경영체제 확립 등 3개 중점과제와 6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하여 안전경영시스템 실태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각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기관은 지역사회협력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공정계약관련 개선을 위하여 '구매계약업무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구매·계약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다. 기관은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근로 환경과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지원하여 출자회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한 성과를 거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하여 두 개 공공기관과 인사교류를 하여 외부전문가 영입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방향 설정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직무분류 체계를 확정하였으며 직무평가를 시행하여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기본연봉 대비 직무급 비중 및 역할급 차등폭 확대 등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의 진전을 이루어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환류체계의 개선을 고려한 고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관은 고용형태별 다양한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사업장별로 각각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추진방식으로 운영을 개편한 점은 협력적 노·사관계 수준 제고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특히, 노·사가 기존의 임금인상방식을 전 직급 동일금액 인상에 합의하여 하위직급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협약을 마련한 것은 노사협의를 통한 기관의 근로조건 취약계층을 배려한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사례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 혁신과제들의 성과지표가 보다 실효적인 지표들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6.014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0.700점, 가중치 3점 중 2.721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100.000점, 가중치 1점 중 1.0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100.000점,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758%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벌점은 2016년 13점, 2017년 4.5점, 2018년 6.5점, 2019년 13점, 2020년 3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6년 87.0점, 2017년 90.6점, 2018년 90.4점, 2019년 90.3점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81.8점으로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년 사업을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의 3개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은 청소년 활동의 공적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장기 사업추진전략을 설정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설립목적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하였고 성과목표로 청소년활동 공적기능 제고와 양질의 청소년활동 제공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분석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S-SMART 분석을 통해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며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에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은 사업여건 및 사회적 가치 연계를 통해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지표를 개선하고 안전사업을 고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개 주요사업에 대해 7개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표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는 평점지표 구성에 있어 대표성 있는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는 안전사고 발생건수 관리를 넘어 부상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지표는 그 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활성화 성과 지표의 경우 현재의 산식으로는 현장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지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7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사업의 '청소년수련활동 품질 개선 성과' 지표와 '국립수련원 공공성 강화 성과' 지표는 목표 대비 각각 94.93%,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사업의 '인증수련활동 확산 성과' 지표,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성과' 지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확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98.78%, 100%,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청소년활동 현장지원 내실화 사업의 '청소년활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성과' 지표와 '청소년지도자전문역량 강화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각각 83.62%, 96.7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4.88%인 29.413점으로 평가되었다.

38.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D^+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685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C	1	0.988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D^+	3	2.299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0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D^+		
	(2) 국민소통			1.5	1.332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기반조성				
	(1)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10	8.084
	(2)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성과			8	7.673
	(3)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기반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B^0		
	2.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1)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4	3.203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콘텐츠 지원율			3	1.440
	(3)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콘텐츠 산업 재해 감축 노력			3	3.000
	(4)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6	D^+		
	3.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1)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성과			3	2.781
	(2)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성과관리의 적정성	2	C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첨단기술 활용 콘텐츠 육성, K-POP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비대면 유통형 콘텐츠 개발 등을 신규개발 사업으로 발굴하였다. 그러나 기관은 가치체계 내재화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경영자원의 투입 및 배분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이사회 활성화지수와 같은 성과지표의 활용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역할 강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위주의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여성임원비율 30%를 달성하였으며, 고졸자와 여성 직원에 대하여도 차별 없는 채용 및 인사제도 여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 처우개선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기관 특성의 고려와 기관 고유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친환경 개념의 접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 관련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관은 기관 보유 인프라와 지역거점을 활용한 주민 문화향유 지원을 위하여 지역 콘텐츠 누림터, 콘텐츠 기반 국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등 이전지역 공헌을 추진하였다. 다만 기관은 구성원의 청렴도 제고를 비롯하여 경영평가 계량지표 적정성 제고 및 승진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청된다. 기관은 직무 수행자의 전문성과 역량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가치 평가 결과와 직무급과의 연계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전준비 및 사후 논의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 원칙 및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과 주니어보드의 투표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나, 중점과제 선정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방향성과 기관 전략목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혁신프로세스

에서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대응과 관련하여 콘텐츠기업 생존을 위한 선지급과 금융이자 완화조치를 단행하였고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콘텐츠 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을 견인할 산업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시범 적용한 「BCWW 온라인」을 통하여 코로나19 방역모델을 시범 적용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89.600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89.5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685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전년대비 증감률)은 2018년 62.366점(24.438%) 2019년과 2020년은 동일하게 77.607점을 달성하였다.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전년대비 증감률)은 98.556점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 실적은 2019년 28.821점 대비 2020년 78.132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98.8점으로 가중치 1점 중 0.988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2019년 이후 2개년 동안 100점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2019년 97.308 대비 2020년 97.500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76.633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299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만점을 달성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0.030점 대비 2020년 25.0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구매실적은 2020년 45.704점이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100점이며,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만점을 달성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6.918점으로 전년과 유사 점수로 측정되었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실적은 69.490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764%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공시변경 1건으로 인해 벌점 0.5점 부과되었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지수는 83.444이며 평점은 86.4점, 가중치 0.5점으로 0.432점 득점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년도와 같이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기반조성,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의 3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전략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Pool 분석을 활용하여 적정 성과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한 점과 세부 사업의 내용과 성과지표 선정에서 콘텐츠산업 약자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패션브랜드 해외진출 노력 등 일부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표 또는MATRIX 분석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도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으로서 피해 기업 금리 인하와 일자리창출 지원 수행과 표준계약서 작성 장려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우수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인프라 구축 사업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국민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과제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전략과제와 사업목표와 관련성이 낮고 타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D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여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매출액이나 인원 등의 자료가 최근 성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사업의 P-D-C-A 관점에서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며 '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각 성과에 대해 우수성과를 확산하고 미흡성과는 개선하는 등의 환류 활동은 바람직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명확한 지향점 필요 의견에 대하여 비계량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6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중소콘텐츠 기업 혁신성장 기반조성사업의 '문화기술 상용화 지원 성과' 지표와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0.84%, 95.9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대사업의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 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콘텐츠 지원율',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콘텐츠 산업 재해 감축 노력'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 대비 80.07%, 48%,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사업의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92.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4.45%인 26.181점으로 평가되었다.

3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D^+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79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D^+	1	0.6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D^+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C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D^+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D^+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261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10	10.000
	(2)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B^0		
	2.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1) 특허기술 동향조사 신규 지원율			6	6.000
	(2)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8	8.000
	(3)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C		
	3.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				
	(1)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7	6.689
	(2)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D^+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미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구성하였으나, 가치체계의 변화가 기관 운영 및 전략으로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치체계의 공유 및 내재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핵심가치에 대응하여 경영방침을 고도화하고 이해관계자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한 것, 혁신우수부서 조직평가 가점부여 등을 통한 성과보상을 확대한 것, 설립 근거법 마련과 국가 특허 빅데이터 개소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노력은 인정된다. 기관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특허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생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운영 경비 절감 따른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기관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이나, 채용단계별 평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결과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ISO45001 인증 획득, 안전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전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안전관련 사업예산 강화 및 전문 인력 충원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자료 등에 대한 보안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기관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창조센터와 함께 특허-투자 패키지 확대 지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충청지역 스타트 업 지원, 특허분야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가동 등 활동을 하였다. 기관의 노사는 기관의 특성과 아울러 구성원의 수용성을 토대로 직무가치 평가 고도화, 직무평가 결과와 직무등급 연계 강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노사관계 전략 고도화 및 내재화도 요청된다. 기관장은 혁신방향으로 생명·안전 최우선 및 공공성 제고, 혁신과 포용성장 주도, 윤리경영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혁신과제 선정에서 이의 반영이 미흡하다. 직급에 따른 필요 역량을 분석하여 교육 등에

반영하고 개방형 혁신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의 다양화, 협력기관 자율형 과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대응과 관련하여 세계가 인정한 K-방역 국제표준화 및 공적 활용 합의를 통한 국익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임상 3개 기업 긴급 지원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평점 91.414점을 달성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의 경우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93.300점, 가중치 3점 중 2.799점을 득점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등 3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점 60.000점, 가중치 1점 중 0.600점을 득점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등 7개 지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상생 국민소통 지표는 평점 100.000점,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획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668%로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평점 100점으로 3점을 획득하였다. 경영정보 공시 점검의 연도별 벌점은 2019년 0점에서 2020년 1.1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89.484점에서 2020년 88.488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션, 경영목표, 전략 방향 및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 '보유 특허 관리 및 활용지원'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대내·외 경영여건, 정부 정책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있는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 반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계량 성과지표 분석에 이용된 변수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적합성 분석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전년 대비 폐지된 성과지표의 사유를 제시하여 주요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종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민간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권 진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K-방역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특허 대응전략 제공 및 5G 분야의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통한 출원 특허의 국제표준안 반영률 향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특허인정제도 협약 국가의 빠른 확산과 부적격 특허 출원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주요사업에서 선정한 계량 성과지표는 '기술이전 성과'를 제외하고 목표대비 100% 이상, 비계량 성과지표는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 초동대응을 위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IP 전략 제공과 특허출원 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특허와 논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학·연에 제공하고 맞춤형 IP-R&D 전략 지원에 의해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를 도모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다부처 협업에 의한 종합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사업의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성 제고사업의 '특허기술 동향

조사 신규 지원율',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보유특허 관리 및 활용 지원사업의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95.5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9%인 30.689점으로 평가되었다.

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3	2.711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	0.6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4	D^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D^+	3	2.855
	(5) 윤리경영	3	D^+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D^+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D^0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0.800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1) 해양사고 감소실적			11	7.636
	(2) 해양사고 예방교육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C		
	2.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1)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15	15.000
	(2)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B^0		
	3. 국가자격시험 운영 사업				
	(1) 국가자격 운영 성과			5	4.184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B^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C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전략목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를 위한 목표달성 로드맵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을 구체화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목표달성 로드맵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하고 이를 가치실현계획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확한 성과창출을 위한 기관장 성과 과제 보완 및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도전적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재설정 등의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 전략체계와 더욱 밀접하고 기관장 역할에 적합한 과제의 발굴과 기관 미래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의 선정 및 배분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풍력기구가 인증한 풍력발전 교육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국내 벤처기업 협업, 수면비행선박 교육 개발로 미래 해양 교통 선도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채용공고부터 합격자선정까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공정 채용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고졸자 채용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졸자 적합 직무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기관은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여, 환경보전과 관련한 체계적 관리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하였고,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민참여형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기관은 지역소재 비영리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공간 내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한 부분도 확인되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감사팀을 분리·독립하여 신설하였으나 내·외부 청렴도를 포함해 종합청렴도 조사결과가 모두 1등급 하락하여 '미흡'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 진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기획과 운영부서의 통합이 진행되었으며, 목포분원 운영준비를 위한 임시

조직 및 자율운항선박 운영인력 교육 등 해양융합인력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임시조직의 운영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조직 규모에 맞는 직무분류체계를 재설계하였으나 현재 수행된 직무평가에 연계된 직무급은 부족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리후생제도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개선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의 복수노조 체제에서도 다양한 노사 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임금협약 체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이 확인된다. 혁신추진조직으로 KIMFT 혁신리더와 주니어보드 모두 과제이행 실적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성격이 크며, 조직구성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 운영체계와 성과점검 시스템을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운용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사회적가치구현 지표에서 총득점율 88.086점(만점 100점), 득점 6.166점 (만점 7.000점)을 획득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지표 2.711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0.600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가중치 3점 중 2.855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생산품,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지표는 평점 100점을 획득하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중 기술개발생산품 지표는 평점 62.500점, 장애인생산품 지표는 93.412점을 획득하였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 중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점 (만점 3.000점)을 획득하였다. 혁신과 소통 지표 중 국민소통지표에서 0.800점 (만점 2.000점)을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0.867점 감소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해양수산인력 양성, 선박 운항 및 어업에 관한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국가자격 운영사업' 3개 주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대다수 단위사업들은 설정된 계량지표에 대한 절차적 노력으로 비계량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 성과도출, 환류 수행 과정에서 개선된 실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로 안전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와 국가자격 운영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 기회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 특히 보유특허 나눔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대, 여성인재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찾아가는 시험 서비스로 어업인 생계활동 지원 등은 그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2020년 평가에서는 기존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지표가 국가자격 운영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의 논리성과 연계성이 지적된다. 국가자격 운영사업은 신규로 포함되었다. 기존 지표와 교체 시에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다. 향후 국가자격 운영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설득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기관의 노력을 기대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3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해양사고 예방교육 활성화사업의 '해양사고 감소실적' 지표에 대해서는 69.4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초급해기사 교육품질 제고사업의 '오션폴리텍 교육생 취업률' 지표와 국가자격시험 운영 사업의 '국가자격 운영성과' 지표는 각각 100%, 83.6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86.52%인 26.820점으로 평가되었다.

4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	2	C		
	(2) 경영개선	2	C		
	(3) 리더십	2	B^0		
	2. 사회적 가치 구현				
	(1) 일자리 창출	3	C	3	2.877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B^0	1	1.000
	(3) 안전 및 환경				
	㉮ 환경보전	1	C		
	㉯ 재난 및 안전관리	2	C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C	3	3.000
	(5) 윤리경영	3	B^0		
	3. 조직·인사·재무관리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2) 재무예산 운영·성과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2	C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	C		
	(2) 총인건비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5. 혁신과 소통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2) 국민소통			1.5	1.033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주요사업	1. 해양수산R&D 산업융합기술 지원 강화				
	(1) 해양수산분야 산업융합기술 지원 확대			7	7.000
	(2) 산업융합기술 지원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D^+		
	2.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1)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10	9.235
	(2) 연구비 투명성 제고			3	3.000
	(3)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C		
	3. 해양수산 시장창출 성과 제고				
	(1)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지원			11	11.000
	(2) 시장창출 성과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D^+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D^+		
전체 합계		**55.5**		**42.5**	
가점	1. 혁신성장 가점	1	C		
	2. 코로나19 대응노력과 성과 가점	3	C		

1 경영관리

1 경영관리 비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경영활동 가치체계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과 환류과정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기관은 코로나19 및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여 KIMST 비상경제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업무환경을 조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채용비리 및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시간선택제 채용 및 우대가점 적용 등 여성인재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무기계약직 업무환경 개선, 정규직 대비 2배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별 요소를 해소하였다.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과 KIMST 안전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의 강화와 사이버안전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판로개척, 기술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관은 윤리·준법경영 교육 및 청렴교육 이수, 회계시스템 고도화와 검증 강화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모범거래모델 도입, 갑질예방교육, 반부패청렴평가 등 청렴문화 내재화 노력을 하였다. 다만 사회적 가치 교육 체계화 및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노력이 보이나 점진적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준보수 대비 직무가치 평가와 연계된 임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셰르파 프로그램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임금피크 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임직원의 혁신수준진단 방안의 마련, 판다 프로젝트 강화,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소통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KPI 목표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임직원의 혁신마인드 제고 노력 및 적극행정 확산에 따른 구체적 성과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준수로 임직원 및 내방객 감염을 ZERO로 만들었으며, R&D 신청서류 방문

제출을 폐지하여 중기부 주관「기업 공감 절차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도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판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선박의 지능형 항해·기관 자동화 신규 R&D 사업에 착수하여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로 신시장을 개척하였다.

2 경영관리 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경영관리 계량 총 득점율이 94.870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평점은 95.9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2.877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91.667점이며,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2020년에는 100점을 획득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은 79.815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에서는 평점 100.00점으로 가중치 1점 중 1.000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100점으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고,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100점으로 5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결측치로 처리되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평점 100점으로 가중치 3점 중 3점을 득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100점으로 5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고,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0년 100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5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모두 2020년 100점으로 3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였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우선구매 실적은 2020년 만점이며,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집행관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목표치 2.8% 중 실적치 2.441%를 달성하여 가중치 3점 중 3.000점을 득점하였다. 국민소통 지표 중 경영정보공시 점검에서는 공시오류 1개 항목과 수정공시 2개 항목에 대해 총 3.5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0.600점을 득점하였다.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점수 85.953점,

달성도 점수 0.865점으로 종합 0.433점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기여도는 조사대상 제외로 결측치로 처리하여 평점 86.600점을 획득하였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비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주요사업으로 '해양수산 R&D 산업융합기술 지원 강화', '해양수산 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 '해양수산 R&D 시장창출 성과 제고'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전년도 사업과의 연계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나 세부사업별 주요현안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체계적인 선정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 선정 시 보다 많은 잠재적 성과지표 POOL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WOT분석을 통해 세부 사업별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계획을 제시한 점은 확인되었으나 중장기 사업 로드맵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설정근거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자세히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인정된다. 다만, 지표별 모니터링 계획과 평가 계획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평가시기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설정근거와 향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P-D-C-A 관점에 따라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고 경영평가단 및 국회·감사원을 포함한 외부평가와 연계된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활동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가 대상사업 평가 시 평가방식을 보다 다각화하여 우수, 미흡 성과를 파악 후 우수성과는 확산, 미흡한 점은 환류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분석 및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사업 계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도에 3개의 주요사업에 대해 총 4개 계량지표를 설정하였다. 해양수산분야사업의 '해양수산분야 산업융합기술 지원 확대'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해양수산R&D 성과지향형 평가관리 강화사업의 '해양수산분야 연구 질적 관리 강화' 지표와 '연구비 투명성 제고'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목표대비 92.35%,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해양수산R&D 시장창출 성과 제고사업의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 달성도는 총 31점 중 97.53%인 30.235점으로 평가되었다.